

마른뼈들이

데이빗리 목사

부흥을 노래한다

* 페이지 내 인물 사진은 샘플이미지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가?
마른뼈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취하라!!



목 차CONTENTS

<제 1 부>

- 제 1 장 에스겔서의 개요 _ 5
- 제 2 장 에스겔의 환상 _ 29
- 제 3 장 이스라엘의 죄악 _ 103
- 제 4 장 에스겔 성전 _ 144
- 제 5 장 천국의 생명수 _ 277
- 제 6 장 곡과 마곡 전쟁 _ 290
- 제 7 장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_ 311

<제 2 부>

제 1 장	에스겔서 1장 _ 333	제 25 장	에스겔서 25장 _ 585
제 2 장	에스겔서 2장 _ 349	제 26 장	에스겔서 26장 _ 593
제 3 장	에스겔서 3장 _ 356	제 27 장	에스겔서 27장 _ 600
제 4 장	에스겔서 4장 _ 379	제 28 장	에스겔서 28장 _ 607
제 5 장	에스겔서 5장 _ 387	제 29 장	에스겔서 29장 _ 615
제 6 장	에스겔서 6장 _ 395	제 30 장	에스겔서 30장 _ 624
제 7 장	에스겔서 7장 _ 401	제 31 장	에스겔서 31장 _ 631
제 8 장	에스겔서 7장 _ 408	제 32 장	에스겔서 32장 _ 638
제 9 장	에스겔서 9장 _ 424	제 33 장	에스겔서 33장 _ 647
제 10 장	에스겔서 10장 _ 430	제 34 장	에스겔서 34장 _ 658
제 11 장	에스겔서 11장 _ 441	제 35 장	에스겔서 35장 _ 669
제 12 장	에스겔서 12장 _ 451	제 36 장	에스겔서 36장 _ 676
제 13 장	에스겔서 13장 _ 458	제 37 장	에스겔서 37장 _ 690
제 14 장	에스겔서 14장 _ 467	제 38 장	에스겔서 38장 _ 700
제 15 장	에스겔서 15장 _ 477	제 39 장	에스겔서 39장 _ 713
제 16 장	에스겔서 16장 _ 481	제 40 장	에스겔서 40장 _ 724
제 17 장	에스겔서 17장 _ 498	제 41 장	에스겔서 41장 _ 750
제 18 장	에스겔서 18장 _ 506	제 42 장	에스겔서 42장 _ 768
제 19 장	에스겔서 19장 _ 517	제 43 장	에스겔서 43장 _ 777
제 20 장	에스겔서 20장 _ 523	제 44 장	에스겔서 44장 _ 792
제 21 장	에스겔서 21장 _ 541	제 45 장	에스겔서 45장 _ 817
제 22 장	에스겔서 22장 _ 554	제 46 장	에스겔서 46장 _ 835
제 23 장	에스겔서 23장 _ 564	제 47 장	에스겔서 47장 _ 851
제 24 장	에스겔서 24장 _ 575	제 48 장	에스겔서 48장 _ 862



에스겔서의 구조



1 장

/

에스겔서의 개요

포로가 된 에스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에스겔이 예언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앗수르 제국의 경우엔 포로로 잡아오기보다는 점령한 도시의 사람들을 다른 도시 사람들과 바뀌치기 하면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쳤지만 바벨론 제국의 경우엔 점령한 도시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때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 갔습니다. 3차 침공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왕하 24:10] 그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왕하 24:11]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왕하 24:12]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

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왕하 24:13]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하 24:14]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하 24:15]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
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하 24:16]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
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
아 가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용사와 장인
과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에 남아 있었습니다. 2차 침공 때는 1차 침공 때와 같이 능력있고 쓸모
가 있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하지만 1차 때는 2차 때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 1: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단 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단 1: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단 1: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단 1: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단 1: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 갔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겔 1: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겔 1: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30
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예수님
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눅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
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에스겔 아내의 죽음

에스겔은 결혼을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
을 아내가 있었습니다.

“[겔 24: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
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아내는 눈에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에스겔도 아내가 사랑스러웠습니
다. 아내는 에스겔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겔의 아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생명을 취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라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아래 인도받는 것입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죽을 때 슬퍼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레 21:4]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
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애
곡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레 21:10]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겔의 직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대제사장보다 더 한 수 위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보
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에스겔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
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가족 외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 가족의 죽을 슬퍼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당신이 에스겔이라면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에스겔 아내의 장례식

에스겔의 아내가 죽자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겔 24: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그런 태도에 의아해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온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겔 24: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문상을 온 사람들에게 그 의도하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겔 24: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러지게 할지라"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으니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더럽힘을 당할 것이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울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알려 주시려고 일부러 에스겔에게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겔 24:23]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자녀가 죽임을 당했지만 자녀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멸망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하게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겔 24:24]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만일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이 부모가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까요?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정결과 거룩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에스겔처럼 가슴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가장 큰 아픔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

에스겔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1-3장):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둘째 부분(4-24장):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셋째 부분(25-32장):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넷째 부분(33-39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언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부분(40-48장):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3장의 개요

1장: 에스겔은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꽃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위의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전할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3장: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맡기시며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에스겔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4-24장의 개요

4-5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7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8-11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기에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1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가 되어 그들의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13-14장: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전하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25--32장의 개요

15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용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본래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s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16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린 여인에 비유하여 그들의 타락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보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장: 하나님은 두 독수리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첫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며 두번째 독수리는 애굽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을 의지했지만 애굽 왕에게 돌아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18장: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각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로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십니다.

19장: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 애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들을 설명하며 슬퍼합니다.

2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왔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21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들고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명확히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벌하실 때는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22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큰 죄악들을 나열하시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불의, 폭력, 타락, 부패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장: 하나님은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타락을 비

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24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시며 에스겔에게 '이제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슬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25-3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십니다. 아람, 모압, 에돔, 블레세, 애굽 등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법과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33-39장의 개요

33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전달하는 사람이므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34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5장: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하십니다.

36-37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시며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그셀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8-39장: 하나님은 고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40-48장의 개요

40-48장: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다시 주시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리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고, 그 후 남왕국 유다는 약 140여 년 더 존속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기원전 597-586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으나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최후의 순간이었으며, 이 사건은 유다 백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과 상황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기 직전에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공격이 시작된 시점은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입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기원전 605년): 이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입니다. 이들은 왕실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기원전 597년): 유다의 왕 여호야קים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이때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다는 사실상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며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 왕국의 종말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적, 영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3. 에스겔의 생애와 사명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국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당시 약 25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30세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이후 2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는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했습니다. 에스겔은 매우 강력한 예언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 바벨론 제국과 그 영향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며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의 광대한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다신론적이며, 신들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또한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한 문명으로, 건축, 예술, 과학 등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정복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5. 에스겔서의 주요 주제

에스겔서에는 다양한 예언과 상징이 등장하는데 그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며, 특히 우상 숭배와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응징을 하실 것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 2) 회복의 약속: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36장과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죽은 뼈들이 살아가는 환상(골짜기에서의 마른 뼈들)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3)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 개인의 책임: 에스겔서에서는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새로운 성전과 왕국: 에스겔은 40장에서 48장에 걸쳐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6. 에스겔서의 신학적 의미

에스겔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죄와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에스겔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찾고, 죄의 대가를 치르며, 그 후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

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2 장

/

에스겔의 환상

첫번째 환상

네 생물

에스겔의 첫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겔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겔 1: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 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단 쇠' <하쉬말>은 금과 은의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 생물은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그룹에 대한 내용이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에덴동산을 지켰던 그룹과 같은 천사입니다.

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막의 지성소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인 속죄소에는 두 그룹 모양의 천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언약궤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속죄소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속죄와 하나로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룹과 속죄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각각 한 생물에 네 개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의 얼굴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

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물은 곧 천사인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다른 얼굴은 사자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용맹함입니다. 천사는 용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맹스럽습니다. 작은 짐승같지 아니하고 사자같이 용맹스럽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송아지 모습입니다. 송아지는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천사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얼굴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고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고귀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

는 사람은 고귀합니다.

각각의 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얼굴은 모두 우리가 지녀야 할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해야 합니다. 소처럼 충성되어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고귀해야 합니다.

생물의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한 생물마다 네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여섯 날개인데 에스겔서의 생물은 네개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습니다.

"[겔 1:11]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천사

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갑니다.

"[겔 1: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르아흐>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이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천

사는 성령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천사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나아갑니다. "...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12절 하). 우리도 돌이키지 않아야 합니다. 곧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돌이키다' <사바브>는 '돌다', '둘러싸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턴을 말합니다. 곧바로 가야 하는데 유턴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유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큰일납니다. 즉시로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에스겔이 본 생물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이었습니다.

"[겔 1: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천사는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천사는 불꽃처럼 일을 합니다.

"[히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우리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번개와도 같습니다.

“[겔 1: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번개는 빠릅니다. 천사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빠르게 일을 해야 합니다. 느리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생물들은 서로 번개같이 왕래합니다.

“[겔 1:14]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번개처럼 서로 왕래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왕래합니다. 이는 저들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

‘네 생물’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단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
심을 수호하는 그룹을 상징합니다.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데

[계 4: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
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 4: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

에스겔이 생물들을 자세히 보니 그 생물들 옆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겔 1: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런데 그 바퀴들이 매우 높고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겔 1: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는 동서남북 어디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천사가 아주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즉시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합니다. 느리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천사는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종입니다.

*"[히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천사는 즉시로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에 즉각적으로 일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바퀴는 직진으로만 갑니다. 유턴하지 않습니다.

"[겔 1:17]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지 아니하고 가며"

천사는 한번 받은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뒤돌지도 않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돌진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퀴에 수많은 눈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겔 1: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은 곧 하나님의 눈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켜보는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지켜보는 눈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졸지 않고 지킬 때의 눈입니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
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귀는 생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겔 1:19]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귀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
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귀들도 들려서”

생물과 바귀는 일심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위해 바귀를 주
신 것입니다. 천사가 일을 잘 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
면 자가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자가용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용으로 세상의 정욕을 위한 곳으
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갑니다.

“[겔 1: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귀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귀들 가운데
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바귀들도 그와 같습니다. 바귀는 오직 생물을 따라 갑니다. 바
귀는 생물이 서면 서고 가면 갑니다. 바귀가 생물을 위해 존재하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면 우리도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면 우리도 가야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갔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정박했고 다시 구름기둥이 발행하면 백성들도 속히 함께 떠났습니다.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출 40: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겔 1: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런데 보기에 두려웠습니다. '수정 같은 궁창'은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생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습니다.

“[겔 1: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외함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두렵고 떨린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많은 물 소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웅장합니다. 장엄합니다. 매우 권위적이며 큰 권세가 느껴지는 음성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궁창 위에 보좌를 보

았는데 보좌에 사람의 형상을 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그 허리가 '단 쇠' 같아보였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아 보였습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겔 1: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겔 1: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옆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이처럼 광채가 납니다. 이처럼 장엄합니다. 이처럼

뜨겁습니다. 때로는 불과 같으며 때로는 바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웅장하며 때로는 장엄합니다. 때로는 깊이가 있으며 때로는 넓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들어감이 있고 때로는 내비치는 빛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환하고 때로는 은은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28절 하).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런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 복된 사람입니다.

두번째 환상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3: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었더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겔 3: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얼마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겠습니까? 당신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시고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먹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사람은 백 번을 읽어도 성경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을 먹은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글로 쓰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뱃속까지 내려가고 뺨속까지 심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가리켜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고스> 말씀을 볼 때에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외국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저들이 에스겔의 전한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겔 3:6]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실제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니스웨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스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셨습니다.

"[겔 3: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라는 단어는 사람의 결심이나 어떤 결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까지 강인한 자세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비록 저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7일간 숨어지낸 에스겔

에스겔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물과

함께 하는 바퀴 소리도 들었습니다.

“[겔 3:13]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곁
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에스겔은 이들의 소리가 매우 큰 소리였으며 울리는 소리였다고 말
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생물들
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들에게서 ‘많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
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칠 때 소리가 났습니다. ‘부딪치다’<나사
크>는 말은 원래 ‘입맞추다’, ‘포옹하다’라는 말입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질서없이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조화로우며 질서있
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하염없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곤충의 날개에서 소리가 나듯이 생물들
의 날개가 열심히 움직일 때 이러한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났
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겔 3:14]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
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
시더라”

도대체 왜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
근심’<마르>이라는 단어는 ‘쓰’, ‘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분한 마음’<
하마트 루히>은 ‘영의 열기’라는 말로 ‘진노’,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
습니다. 왜 에스겔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을까요? 왜 에스겔의 마음이
‘분노’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
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괴로움과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
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근심’과 ‘괴로움’이 생
겨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평
범한 성도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선지자에게서 일어
납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하나님
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체험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근심’과 ‘분노심’을 가지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고
말았습니다.

“[겔 3:15] 이에 내가 델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근심’과 ‘분노심’이 차올랐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혹 당신도 에스겔처럼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7일 후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에스겔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겔 3:16] 칠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칠 일’은 에스겔이 숨어 지낸 날들입니다. ‘칠 일’은 그가 두려움에 가득차있는 날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부담되어 숨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 숨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 그는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칠 일'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의 두려움이 떠나는 숫자입니다. 두려움의 인간에서 강력한 선지자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지내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1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협박(?)하셨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협박(?)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의 죄값이 너에게 임할 것이지만 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백성의 죄값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되리라"고 협박의 말을 하셨습니다. 에스겔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백성이 죄값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때에 모든 피값이 에스겔의 몫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이상 에스겔로 하여금 숨을 곳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 임직을 받았지만 평신도처럼 지내는 목사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입니다. 목숨이 여러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의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혹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당장에 나오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당신도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겔 3: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로 나가야 합니다. 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들은 고요한 곳입니다. 들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의 방해는 있을 지 모르겠으

나 적어도 사람의 방해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나 많이 먹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듣는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에스겔은 들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에스겔이 들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들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은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숨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있게 체험했던 것처럼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겔 3:23]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에스겔이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체험의 느낌을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린 것은 다시금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확립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에가 문을 닫고 기다리라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3:24]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왜 성령님은 에스겔에게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고 명하셨을까요? 혹 당신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교회개척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신실한 권사님과 함께 교회개척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지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한달도 채 안 되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곳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교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미국 생활인데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시니 참

으로 납득할 수 없었으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나 대신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매우 힘든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략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일 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다음 날 바로 만났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집으로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선택 받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무수히 많이 겪습니다. 이런 체험을 겪지 않고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2주 정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이지만 그 외에도 성경을 가르쳐야 했고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지냈더니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려왔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이 몰린 느낌보다는 빗쟁이들이 돈 값으라고 물려오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집을 나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집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집 안에만 갇혀서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집 안에만 갇혀 생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겔 3:25]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에스겔은 빠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습니다.

“[겔 3:26]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병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병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백성을 꾸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선 병어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길 원하셨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중에는 자신의 뜻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전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자신이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목사들은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병어리가 되듯 이들도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들려집니다.

에스겔은 선불리 선지사역을 행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어리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병어리가 되면 어떻게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십니다.

"[겔 3: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눌 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될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눌 때에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음성을 더하지도 말고 자신의 뜻을 더하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때 입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예수님께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에스겔과 같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만 전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에스겔의 교훈을 배우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을 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환상

주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셨다

에스겔의 세번째 환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서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겔 8: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한 형상을 보았는데 그는 허리 위에는 불과 같고 허리 아래는 단 쇠와 같았습니다.

“[겔 8:2]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칠십인역에는 '불'대신 '사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사람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처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환상 체험은 그가 포로로 붙잡혀온지 육 년 유 월 오 일에 일어났습니다.

“[겔 8:1]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와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
리기로”

날짜를 계산해보면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을 때가 기원전 597년이고 6년 6월 5일째를 계산해보니 기원전 592년 8-9월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북향한 문으로 가셨습니다. '북향한 문'은 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에스겔을 북쪽의 문으

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이 악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세력이 북쪽을 통해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들

에스겔은 북향한 문에서 우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이름은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겔 8: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 이라"

'질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의 이름이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 일으킬만한 우상이 성전 북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대표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이러한 우상들 외에 이방 나라로부터 가져온 우상도 많았

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예 우상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 버리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앗수스를 방문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제단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의 모습을 그려서 그걸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만들라 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성전에도가 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부 왕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우상을 더 잘 숭배하기 위해 성전의 일부분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들이 세운 우상은 하나님께 '질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시키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를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나 1:2]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 보복하
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겔 8: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떠나길 원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어쩔 수없이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까? 짐승을 내 쫓듯이 그렇게 쫓을 것입니까? 월세를 못 낸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낼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주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뜰 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겔 8:7]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 '뜯 문'은 성전의 바깥 쪽에 있는 뜯입니다. 그 뜯의 좌우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감추고자 답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쌓은 답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슨 구멍일까요? 왜 답에 구멍이 나 있을까요? 그 구멍은 사람들을 살피는 구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설치한 구멍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악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보려고 만든 구멍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이런 구멍을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저들의 심령에 구멍을 뚫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심령에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구멍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 답을 헐라 명하셨습니다.

*"[겔 8: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답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답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 답을 헐었더니 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문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참으로 추악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겔 8:10]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사장들의 숙소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혹 당신의 심령에도 이런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는지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방을 열면 혹시 우상들이 가득하지는 않을까요?

에스겔이 그 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곳에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겔 8: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
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우상을 위해 향로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피운 향로의 연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찬 '담배방'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을 위해 향로 불을 지폈을까요? 저들이 지펴야 할 향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장로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겔 8: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말 중에 '각각'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칠십인 각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각자 사용하는 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은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과 함께 하는 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만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을 주셨습니다. 골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저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들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때 우리 입에서도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욱 가증한 죄악들

주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가증스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왕들이 세운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숙소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비밀의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보다 더욱 가증스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14절 하). '애곡' <바카>은 단순히 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애절하게 우는 눈물입니다. 도대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저들은 '담무스'(Tammuz)를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담무스'란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 숭배되어온 우상입니다. 담무스의 누이 '이쉬타르'(Ishtar)에 의해 지하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지상의 식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풍성한 결실을 보장한다는 미신을 믿고서 바벨론 사람들이 담무스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 우상숭배가 이슬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담무스'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보다 더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의 신이었지만 '담무스' 우상은 바벨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사대주의에 의해 비릇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것이면 뭐든지 좋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것이라면 뭐든지 좋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들이 어디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북문'입니다. 북문은 북쪽

에 있는 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겔 8: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북쪽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제사장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울려면 하나님께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려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들이 이방 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했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있습니까? 저들이 제사장입니까? 왜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좋습니까? 성도가 목사님 의자에 앉으면 좋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까? 왜 질서없이 행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겁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들이 세운 '질투의 우상'도 끔찍한데 우상과 각종 가증한 것들을 쌓아놓고 즐기는 제사장들의 추악한 모습과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우상을 위해 향불

을 지피는 장로들의 모습에 이어 이방나라 우상을 위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니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 가셨습니다. 안뜰에서는 제사의식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양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겔 8: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되는 나이가 25세입니다.

"[민 8:24]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 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장 시작 나이는 30세입니다. 하지만 25세부터 시작하여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20세로 그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 23:24]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
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
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25세부터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된다면 25명의 제사장은 가장 왕성
하고 가장 강건한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쪽 태양에
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낮을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지
성소의 반대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우
리의 낮은 서쪽을 향해야 합니다.

저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저들
이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8: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
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
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
느니라”

나뭇가지를 코 위에 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뭇가지는 불을 태우는 원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18절 상).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겔 8: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큰 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두손 싹싹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찬 교회를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가정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각기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겔 9: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저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 위해 성읍의 관할자를 진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섯 사람이 나왔습니다.

"[겔 9: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중의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있었으며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여섯 사람'은 악한 자를 죽이는데 사용된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주를 내리게 했던 천사는 두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천사는 일곱명이었습니다.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
라”

그런데 그들 중의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
버지께서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하셨습니다.

“[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
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은 정직한 사람들이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
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
다.

하나님의 표는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

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짐승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과 함께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파괴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겔 9: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과 온역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짐을 당했을 때에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죽임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파괴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표를 받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렘 15: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
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진노의 솟불을 가진 천사들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남보석과 같았습니다.

*"[겔 10: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남보석'<사피르>는 '사파이어'입니다. 이 남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

에도 박혀 있는 보석입니다. 남보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남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계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남보석'(청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남보석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하나님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겔 10:2]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흘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베옷 입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구절은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숯불을 움켜 쥐고서 성읍 위에 흘었는데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읍 위에 숯불을 흘으는 작업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심판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9장에서는 '가는 베옷입은 천사'가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그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겔 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러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우리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숯불을 이스라엘 성읍에 흘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읍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룹들 사이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불

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룹 밑에 있는 바취 사이에서 숯불을 꺼내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룹의 바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불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불은 인간을 죽이고 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인간을 살리는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고 인간의 불로 하나님의 불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불을 내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셨습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룹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겔 10: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겔 10:4]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

때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니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입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룹은 곧 생물이다

에스겔은 1장에서 보았던 생물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겔 10: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은 곧 ‘생물’입니다. 생물이 그룹입니다. 에스겔은 생물이 그룹

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겔 10:20] 그것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생물과 10장에서 본 생물의 얼굴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다만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0:14]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에스겔 1장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매우 복잡하고 혼선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지만 이들은 함께 나아갔습니다. 몸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룹이 움직이는데로 따라 이동했습니다.

"[겔 10:11]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처럼 함께 일을 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임무가 있지만 혼선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질서적이면서도 협력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질서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욕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원수를 맺습니다. 전혀 천사 같지 않습니다.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어올려 성전 동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겔 11:1] 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에스겔은 그곳에서 백성의 고관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의 고관들은 총 2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총 24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어쩌면 고관들은 각 지역의 고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여있는 백성의 고관들은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11: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의를 품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저들이 태만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겔 11:3]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각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니”

백성의 고관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말로 백성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성읍은 각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관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겔 1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
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으로 사람을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고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 당할 것임을 확증시키기 위해 ‘블라다’를 죽이셨습니다. 블라다는 백성의 고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에스겔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겔 11:13]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
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
노의 잔이 곧 부어짐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도 에스겔처
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 진노는 회개로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회개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
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뤄집
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은 이스라엘 백성을 흠으셨습니다.

“[겔 11: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 이유는 저들이 하
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
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겔 11: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찌 자녀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
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했습니
다. 백성의 고관들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은 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겔 11: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
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실제로 이 일은 이뤄졌습니다. 2천년동안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살
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948년에는 이
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가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고국에서 할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의 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겔 11: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
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란 이스라엘 백성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숭배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멀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하게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짐을 당
하고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만일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행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육신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구절은 영혼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마음' <레브>이 언급된 것은 '영' <르아흐>이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육' <바사르>입니다. '육'은 영과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은 혼이 열려야 비로소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이 우선이요 그 다음은 마음이요 마지막으로는 육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과 혼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이 먼저요 육이 다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이 육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은 교양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있는 사람입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해서 모두 영혼육 순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의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영혼육의 순서로 살아갑니다. 영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있게 동행을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혼영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자신의 뜻이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딤후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번째 환상

마른뼈가 살아나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비크아>는 ‘골짜기’ 또는 ‘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매우 의미심장한 계시를 받을 때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는 이처럼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더욱 심오한 환상을 통해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 세계 정

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통해 선교사역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히 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대로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그저 순종하며 받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4절 상). '대언' <나바>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예언은 대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뜻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감정

이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역자의 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예언'이 '영감예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영감예언'에는 사역자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묻어 있지만 '대언예언'에는 사역자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뼈에 생기가 들어가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겔 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생기' <루아흐>는 '영'(spirit)입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와는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때의 '생기'는 <네사마>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네사마> 역시 <루아흐>와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루아흐>는 100% 영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네사마>는 인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창세기 2장에서의 '생기'와 뼈들로 사람을 만들었던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다소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른뼈가 군대가 되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주십니다. <네사마>를 불어 넣으실 때는 '생령'<네페쉬>가 되게 하셨지만 <루아흐>를 불어 넣으실 때는 '군대'<하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하일>이라는 말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생령'<네페쉬>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가 되게 하셨지만 골짜기의 마

른 뼈들은 '군대' <하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사마>가 아닌 <루아흐>를 불어 넣으셔서 마른 뼈들로 하여금 능력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와 재산을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군대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아담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강인한 아담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많은 민족입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나약하고 악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군대처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당신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강한 군대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와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17절 상).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겔 37: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약속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며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 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 2:42).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도 속하면서도 동시에 북이스라엘에도 속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귀환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귀

환했다고 봐야 합니다.

*"[라 2: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
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겔 37: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
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화평의 언약’<베리트 살룸>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

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23절 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섯번째 환상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셨다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에스겔이 본 성전'이 '천국

의 성전'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천국의 성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8장에 가면 천국에서의 땅의 배분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천국의 성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40장은 이전의 기록(1-39장)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때는 기원전 573년입니다. 이 때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기원전 593년)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겔 40: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
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영적인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 성을 지칭했으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주님을 뵈었습니다.

"[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늦같이 빛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계 1: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왜 주님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
라 명하셨습니다.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
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주님은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 중이었으나 실제 삶과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스겔이 환상을 잘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생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처럼 매우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같아서 그가 본 환상 내용대로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생각했는데 그의 환상 또한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환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환상을 에스겔처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에스겔처럼 선명하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장

/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겔 12:2]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불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
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메리>은 문자 그대로 '반역', '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반역의 행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반역이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행위로 나타내도록 명하셨습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했습니다.

“[겔 12: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
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리고 성벽을 뚫고 그들을 따라 옮겨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12:5]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땅을 보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겔 12:6]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
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
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
인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행하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겔 12:9]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
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에스겔은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겔 12:10]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언급된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겔 12:12]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뽕힘을 당하여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두 눈이 뽕힘을 당한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의 몇 사람을 남겨 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남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자백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겔 12:16]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중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
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12:18]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임을 증표
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이유를 설명해 주셨
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겔 12: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

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 관계에 있는 조직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들은 이름의 의미답게 이스라엘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서 유행되고 있는 속담을 없애겠다고 선언 하셨습니다. 그 속담은 ‘날이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선지자의 예언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비꼬는 투로 말하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담이 그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겔 12: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목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 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속히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겔 12: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뤄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뤄집니다.

재앙의 소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겔 21: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소리내어’<나타프>라는 단어는 ‘물방울이 떨어지다’, ‘뚝뚝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

지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선명한 소리로 또박또박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듣고 알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집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겔 21: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빼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까요? 혹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죽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일 때까지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입니다.

"[겔 21:5]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21:6]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
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끊어지듯’<쉬브론>이라는 말은 ‘산산이 부서짐’, ‘분쇄’, ‘파괴’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리가 산산이 부서진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다’<아나흐>는 말은 ‘신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슬퍼하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와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물을 때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하라 명하셨습니다.

*"[겔 21:7]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
라"*

하나님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손이 약하여지고 영이 쇠하여져서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손, 무릎’과 ‘영’은 인간을 구성하

는 세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이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소문은 귀로 들립니다. 귀는 육적인 것이지만 귀에 전달되는 재앙의 소문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린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귀로 전해들은 재앙의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녹이다' <마사스>라는 말은 '녹다'라는 뜻 외에도 '사라지다', '약해지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번영과 축복이 가득찬 환경입니다. 잘 살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녹아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리는 소리를 막으십시오. 재앙의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잘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쓸데 없는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이간질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귀를 막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마음이 녹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졌을 때 두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손'이 약해졌습니다. 손이 약해졌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면 손을 멈추게 됩니다. 열심히 설것이 하는 주부도 마음이 약해질 때 설것이를 하지 않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때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누구나 게을러집니다. 손이 멈추게 됩니다.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세번째 반응은 각 영이 쇠하여 지는 것입니다. '쇠하다' <카하>라는 말은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밝아야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영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촛불이 곧 꺼질려고 할 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이 희미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밝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밝아집니다.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네번째 단계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현상은 병든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병든 사람은 무릎부터 아픕니다. 영과 혼과 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릎부터 약해집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재앙의 소문 때문에 생깁니다. 사고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재앙의 소문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의 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앙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소문' <세무야>이라는 단어는 '소식', '소문', '보고', '메시지'입니다. 좋지 못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도 재앙의 소문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안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타락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곧 전쟁이 터질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모든 소리가 재앙의

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영혼육의 상처를 받고 질병걸린 사람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영혼육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된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달리셨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산 자의 희망이 되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거할거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극에 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칼집에서 뽑혔으며 결국 이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히 죽일 것입니다.

*"[겔 21:12]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
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 그들과 내 백성이 함
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

관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21:13]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다면 어찌
할까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시험하다’<바한>라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질 것을 입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시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다면 어찌할까..."(13절 중). ‘규’라는 말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업신여기는 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교만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교만해졌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로 멸망 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21: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한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이나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칼을 휘두르셔도 지리멸절할 것인데 두세 번씩이나 칼을 휘두르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실로 참혹스럽고 끔찍한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걱정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겔 21:16]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어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칼을 모으실까요? 선민으로 택한 민족을 쓸어 없애려고 어찌하여 칼을 모으시는 것일까요?

“[겔 21:17]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휘둘러진 하나님의 칼

결국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쥐어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칼을 받아 마음껏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길은 두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곧장 북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동편쪽으로 우회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겔 21:20]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은 갈랏길에서 점을 쳤습니다. 그는 화살을 흔들며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간의 상태를 보고서 어느 길로 공격할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겔 21:21] 바벨론 왕이 갈랏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
살들을 흔들며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전쟁할 때 화살들을 흔들며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희생제물을 죽여 간을 꺼내어 간 색깔을 보고서 공격할 때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우상숭배를 행하는 바벨론 왕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의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리필처럼 계속해서 형벌이 가해집니다.

"[겔 21:27]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맞은 데를 또 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 뜨리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길 때까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스라엘에 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당신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에 이스라엘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진노가 임한 이유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한번 이스라엘을 심판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겔 22:2]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
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크면 클수록 가증스러운 일

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당신은 스스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겔 22:3]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2.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겔 22:7]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3.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4.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5. 성물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겔 22:8]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6.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7.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겔 22:9]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8.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 위에서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9.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음행에 대한 내용 중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음행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겔 22:10]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2)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생리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사항입니다(레 18:19, 레 20:18).

3) 이웃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겔 22:11]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4) 며느리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5) 형제 자매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10. 뇌물을 받았습니다.

*"[겔 22:12]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1. 변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변돈'〈네쉐크〉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타르비트〉는 원금에다 더한 이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변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25:36-37, 신 23:19-20).

12.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혹 당신의 삶에 이러한 가증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찌꺼기로 전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22:18]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
무 불 가운데에 있는 쏜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우리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같은 존재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있어서 찌꺼기는 아
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찌꺼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해야 했
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증한 일을 일삼는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
상을 섬기는 일에만 정신을 팔았습니다.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취
미 삼았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꺼기'라고 여기시지 않
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찌꺼기를 한데 모으십니다.

*"[겔 22:1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한데 모은 찌꺼기를 풀무 속에 넣어 녹이십니다.

"[겔 22:20] 사람이 은이나 쏜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

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
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많이 뜨거울 것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뜨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뜨겁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풀무에 던져진 찌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찌꺼기로 만든 주범들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가 된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론
원초적인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
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첫번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
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모습
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행위를 반역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겔 22:25]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
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되어 예언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규칙과 제사장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겔 22: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 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마치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세번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겔 22:27]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리’<제에브>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육식 동물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잡아 먹는 이리가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혹 당신은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역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혹 당신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도의 것을 빼앗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뜻에 맞추도록 성도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주받은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겔 23:2]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겔 23:4]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
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사마리아입니다. 오홀리바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의 자녀가 사마리아인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오홀리바의 자녀가 예루살렘인 것은 남유다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홀라가 행음하여 앗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23:5]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앓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결국 오홀라는 행음으로 인해 우상으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겔 23:7] 그가 앓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
며”

결국 오홀라는 행음으로 인해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녀가 빼
앗기며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겔 23:10]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
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런데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 형보다 더욱 간음을 행했습니
다.

“[겔 23: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람과 행음을 행했습니다.

“[겔 23:17]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모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외간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젊었을 때부터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겔 23:19]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잘 하는 것은 행음입니다. 행음을 저지르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최고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게 그 능력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세상의 품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홀리바에게 질투하셨습니다.

"[겔 23:25]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엮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오홀리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연애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오홀리바의 코와 귀를 깎으셨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자녀를 빼앗고 집을 불살랐습니다. 오홀리바가 연애했던 바벨론에 의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 오홀리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최후는 아픔 뿐입니다.

심판받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님은 에스겔더러 저들을 심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23:36]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선지자는 마땅히 백성의 악행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은 영영 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악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우상과 행음한 일입니다.

"[겔 23:37]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남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또한 사람을 학대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들은 우상과 행음하여 낳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화제로 바쳤습니다. 어찌하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녀를 불 속에 던질 수 있습니까? 완전히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외에 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행음한 후에 당일날 버젓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겔 23:39]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어찌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간음을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을 언제까지 저질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23:4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저들이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음행의 형벌은 음행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에게 의해 일어납니다. 음행의 현장에 함께 뒹굴렀던 사람에게 의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겔 23:47]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녀도 죽게 될 것입니다. 재산도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는 건 죄뿐입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ash)가 아니라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죄'(sin)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이스라엘 산을 향한 축복의 선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35장에서는 '세일 산'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본 장 36장에서는 회복의 말

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였던 에돔과 주변 국가들을 향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겔 36: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 거리와 백성의 비방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훼방하고 미워하며 조롱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겔 36: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맹세하다' <아니 나샤티 에트 야데>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계약을 할 때에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평생에 걸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이 귀한 존재이기 때

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 더러움으로 가득차 있다면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36: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겔 36: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의해 침략을 받아 각국에 흩어짐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겔 36: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란 조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겔 36: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못난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빛을 갉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아버지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못난 자녀의 빛을 갉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못난 자녀입니다. 아주 심하게 못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못난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가지

하나님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원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결'이었습니다. 그 정결은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해 맑은 물을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행위는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 만든 물을 뿌려 백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민 19:9]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러한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번도 멍에를 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 19:2]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한번도 세상 일에 가담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암송아지는 진영 바깥에서 볼로 태워졌습니다.

"[민 19: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불로 태워졌는데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어 태웠습니다.

"[민 19: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에 사용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의식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더러움은 시체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민수기 19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젖물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셨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생명은 천국의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과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오직 생명

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적으로도 죽어선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 영도 살고 혼도 살며 육도 삽니다.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26절 상). 이미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네사마〉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과 혼으로만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결의식을 통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결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실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데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때에 황폐한 것이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

"[겔 36:3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새롭게 변화시켜 에덴동산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겔 36: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4 장

/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의 측량

주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다

에스겔서 40장은 이전의 기록(1-39장)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겔 40: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는 기원전 573년입니다. 이 때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기원전 593년)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겔 40: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영적인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 성을 지칭했으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늦같이 빛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계 1: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왜 주님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셨습니다. ‘삼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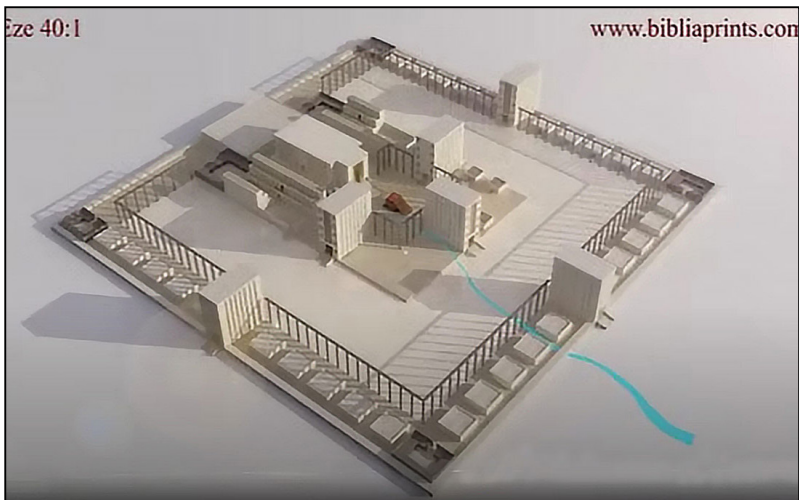
주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
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주님은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 중이었으나 실제 삶과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스겔이 환상을 잘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생각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환상이라 할 지라도 실제처럼 매우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같아서 그가 본 환상 내용대로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생각했는데 그의 환상 또한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환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환상을 에스겔처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에스겔처럼 선명하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문에 대한 설명



6-16절은 성전 바깥 뜰의 동쪽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쪽 문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것은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 무입니다. 모세의 성막 역시 동쪽에 문을 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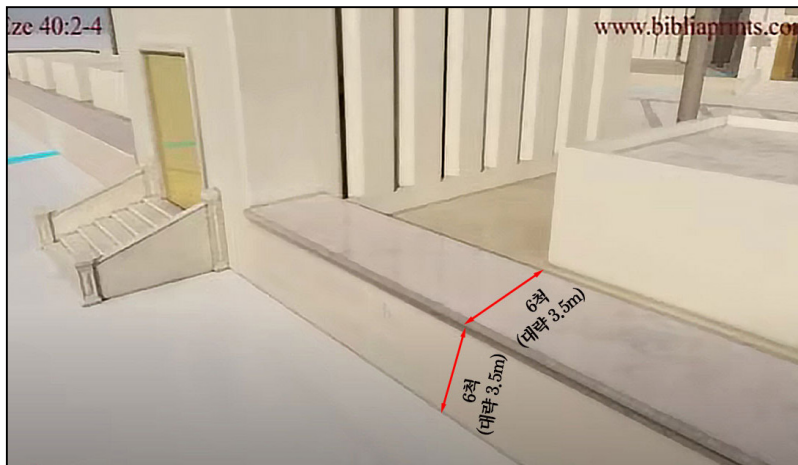
"[출 27:13]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십 규빗이 될지며

*[출 27:14]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에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
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에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27: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
로 수 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

침이 넷이며”



주님께서 동쪽 성벽을 측량했더니 그 두께와 높이가 모두 6규빗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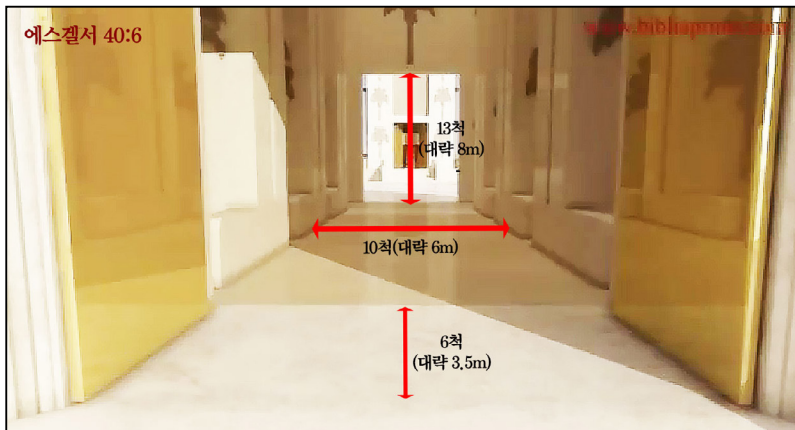
“[겔 40: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한 장대’는 왕실규빗으로 6규빗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장대가 여섯척이었습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것은 ‘규빗’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치수가 50cm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

에다가 한 손바닥 너비를 더했으니 대략 60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장대는 왕실규빗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 규빗보다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 왕실규빗입니다. 왕실규빗 크기로 여섯척 정도되는 장대의 길이는 대략 $6 \times 60\text{cm} = 3.6\text{m}$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담의 두께와 높이는 대략 3.5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매우 높지만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성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층계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통로가 있었습니다.

“[겔 40: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통로의 길이는 한 장대의 길이였습니다(대략 3.5미터 정도). 이것은 성벽 두께와 높이와 같은 길이였습니다.

동쪽 문의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의 길이와 넓이 또한 모두 한 장대 길이였습니다.

*"[겔 40: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문간의 문지기 방들이 오른쪽과 왼쪽 모두 세 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방들의 크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문의 현관도 한 장대였습니다.

"[겔 40:8] 그가 또 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동쪽 문과 연관된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한 장대(왕실규빗으로 6척)의 길이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은 장광고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광고(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길이를 같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성품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방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전에 방이 많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이 모두 기도하는 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에서 세상의 정욕을 위한 일을 합니다. 참된 성도는 살고 있는 방을 기도의 방으로 삼을 것입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동쪽 문에는 양쪽으로 방들이 세 개씩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 방끝과 오른쪽 방 끝은 모두 25규빗이었습니다.

“[겔 40: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이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동쪽문의 건물은 가로가 25척이고(13절) 세로는 50척입니다(15절).



"[겔 40:15]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50척이 되는 이유는 바깥 문통이 6척이고 세 개의 문지기 방이 18척 이고(하나에 6척씩) 두 개의 문지기 방과 방 사이의 벽이 10척이고(각 5척씩) 안문통이 6척이고 현관이 8척이고 문설주가 2척이므로 전체 숫자를 계산하면 정확히 50척이 됩니다.

그 방들에는 모두 창이 달려 있습니다.

"[겔 40: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반대로 그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4개의 겹으로 덮었습니다(출 26장). 세마포 양장과 염소털로 짠 양장과 숫양 가죽 덮개와 물개 가죽 덮개로 덮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천국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바깥뜰과 안뜰

에스겔 성전에는 바깥 뜰과 안 뜰이 있습니다.

"[겔 40: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곳에는 방이 30개나 있습니다. 동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안뜰 문간까지의 거리가 100규빗이었습니다.

"[겔 40: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 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동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나 북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가 모두 100척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도 100척으로 모두 같습니다.

“[겔 40:27]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동쪽문에 설치된 방들과 창들처럼 북쪽문과 남쪽문 모두 동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겔 40:22]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그런데 거룩한 성에는 모두 12개의 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이니

[계 21: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성의 문이 12개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세 개의 문이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과는 달리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문이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은 천국의 성전과 거룩한 성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 성전이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은 에스겔 성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뜰에는 바깥뜰에 배치된 각각의 문과 똑같은 형식의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겔 40:29]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모두 동일한 건물이 두개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모도 같고 딸린 방도 같고 문 위에 새긴 종려나무 무늬까지 모두 같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제작된 이유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깥쪽보다는 안뜰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지는게 성전입니다. 모세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성전도 바깥쪽과 안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문간과 안뜰의 문간이 모두 동일하게 제작된 것은 초 신자나 오래된 신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안뜰에 세워진 것은 바깥쪽에 세워진 것에 비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겔 40:31] 현관이 바깥쪽으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들 때는 석재로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 20:26]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석재로 쌓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층계로 만들 때 하체가 드러날까 염려함입니다. 석제는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것이지만 층계는 나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통으로 짠 세마포를 걸쳐 입

었기 때문에 속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단을 쌓을 때 석재로 층계를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도 안뜰 문간은 층계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깥뜰 문간에는 7개의 층계가 만들어졌지만 안뜰 문간에는 8개의 층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뜰 층계가 바깥뜰 층계보다 한개가 더 높습니다. 바깥뜰 층계 7개와 안뜰 층계 8개를 더하면 총 15개 층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사장들은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시편 120편-134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안뜰에 있는 방들

안뜰 문간 옆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용도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습니다.

"[겔 40: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깨끗이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

니다.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야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출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모세 성막에는 물두멍이 한 개가 놓여져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자그마치 10개의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7:38] 또 물두멍 열 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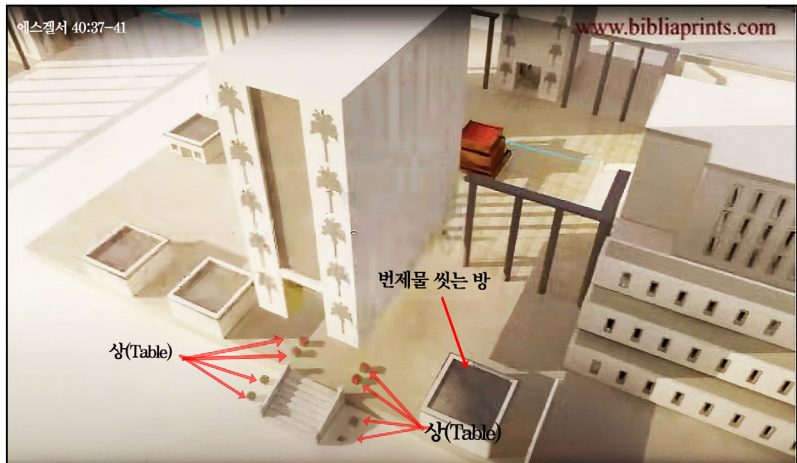
각 사십 발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사를 위해 바쳐진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방이 있을 뿐입니다. 왜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서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 13: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요 1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
시니”

바로 이런 이유로 에스겔 성전에는 물두멍이 필요치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희생 제물은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었기에 희생제물 씻는 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북문에만 있는



에스겔 성전에 총 8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간 바깥에 4개가 있고 문간 안쪽에 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39-40절). 이 8개의 상에서는 희생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겔 40: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미 천국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제가 빠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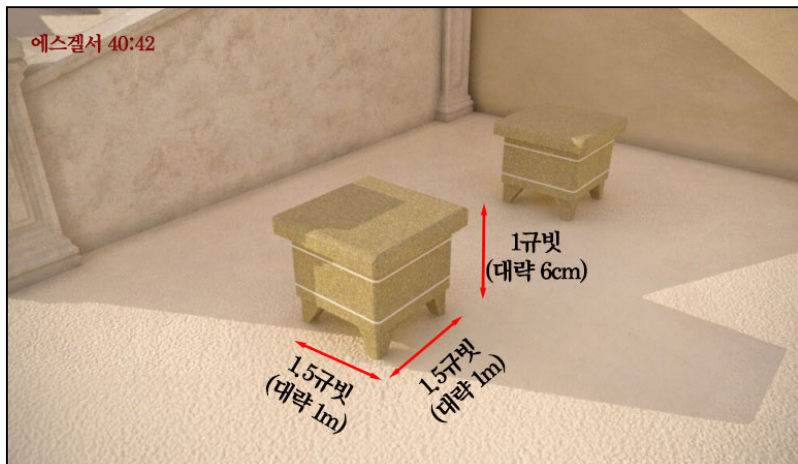
그럼 화목제는 왜 빠진 것일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천국에 거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를 살펴보면,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제사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중요한 성품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천국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도 죄입니다. 예배를 등한시 하거나 소홀리 하는 것도 죄각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필요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며 이웃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천국에서도 성물은 중요합니다. 성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천국에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 곁에는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층계 양 쪽으로 두개씩 배치돼 있습니다.

"[겔 40:42]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그 길이는 가로 1.5규빗 x 세로 1.5규빗 x 높이 1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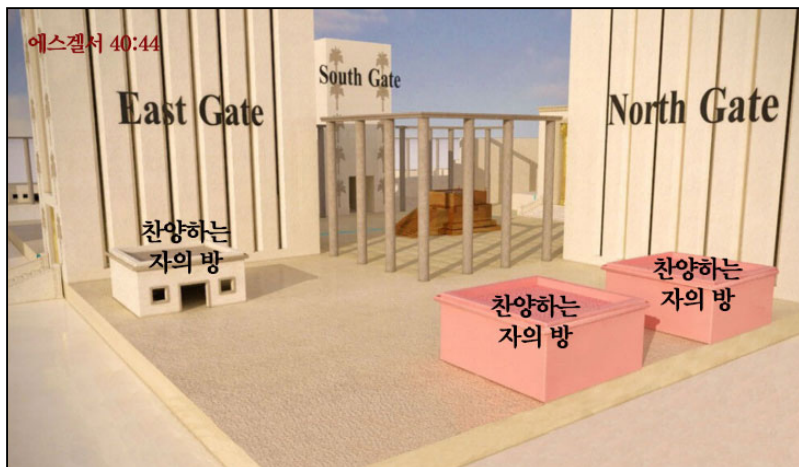
찬양하는 자의 방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었습니다.

“[겔 40: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없으면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의 방은 서로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서로 바라보며 드려야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독창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가대의 합창만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동쪽문에 있는 '찬양하는 자의 방'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겔 40:44] 안쪽 문의 밖에는 안뜰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문 옆에 있고 그것들의 정면은 남쪽을 바라보더라. 하나는 정면이 북쪽을 바라보며 동문 옆에 있더라."(킹제임스흠정역)

'찬양하는 자의 방'은 곧 '제사장의 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뜰 문간 옆의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겔 40: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이들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겔 40: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남쪽을 향한 방이나 북쪽을 향한 방 모두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이지만 남쪽을 향한 방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사용했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과 제단을 지키는 일은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찬양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교회도 지켜야 합니다. 예배도 인도해야 합니다. 찬양도 불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는 자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수종드는 자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주차를 위한 주차위원도 필요하고 친교를 위해 친교위원도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위원도 필요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필요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필요합니다. 심방하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경조사를 주관하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내전의 안뜰

내전이 있는 안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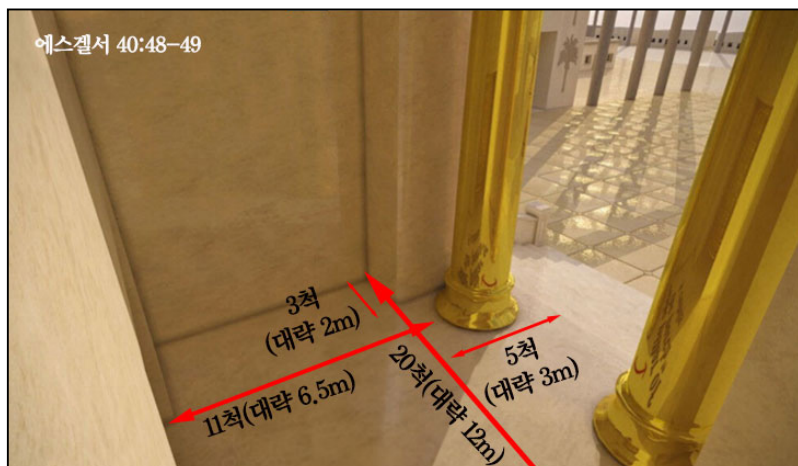
"[겔 40: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문의 좌우

벽을 측량했더니 벽의 넓이가 5규빗이고 두께는 3규빗이었습니다. 현관의 넓이는 20규빗이고 길이는 11규빗이었습니다.

“[겔 40:4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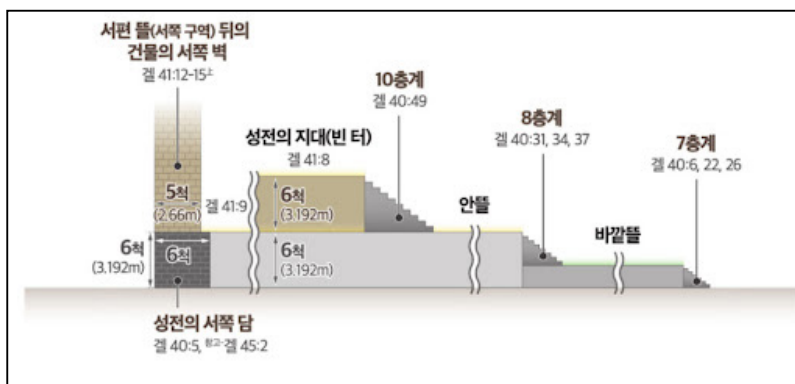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성전 문 앞의 현관은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돌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개역성경은 '밀고 들어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역한글의 표현이 더 좋을듯 합니다.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
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까 하노라” (개역한글)

성전문으로 올라가기 위해 마련된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는 10개의 계단으로 이뤄졌습니다.

“[겔 40:49]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
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현대어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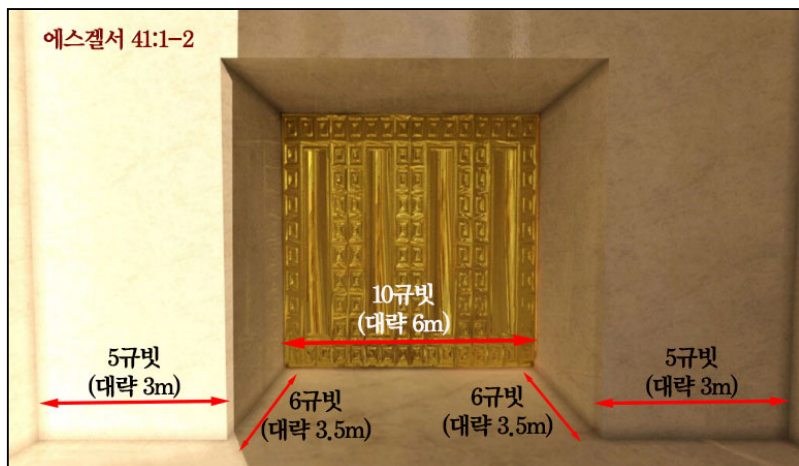


이렇듯 바깥문에는 7개의 층계, 안뜰에는 8개의 층계, 성막문에는 10

개의 층계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이라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안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이라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의 층계가 10개로 이뤄진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내전

드디어 에스겔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문 벽을 측량하니 모두 6규빗이나 되었습니다. 6규빗이면 대략 3.5미터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이는 바깥문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두께와 같은 것입니다.



“[겔 41: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
며”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면 통로가 나오는데 그 넓이는 10규빗이었습
니다. 문 통로 좌우 벽의 넓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성소로
들어갔더니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고 넓이는 20규빗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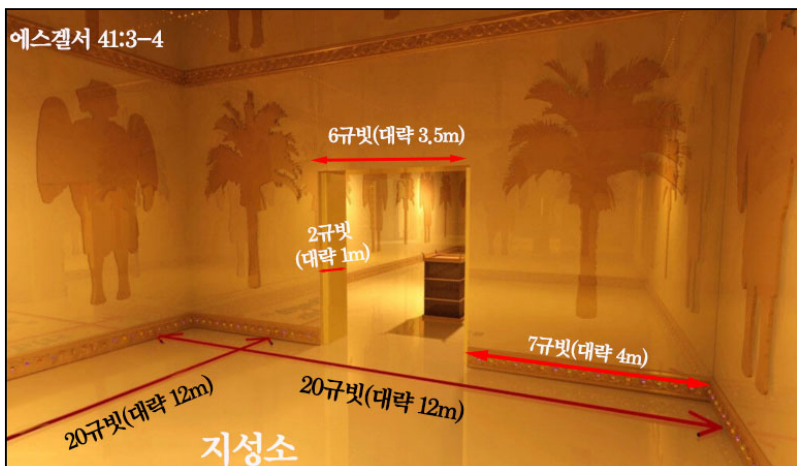
“[겔 41: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
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주님께서 지성소의 길이를 측량하셨는데 길이와 넓이가 모두 20규빗이었습니다.

“[겔 41: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 같았습니다. 모든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는 정육면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 장광고 모두 10규빗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였습니다(출 26:15-30). 솔로몬성전의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솔로몬성전의 지성소는 모세성막의 지성소보다 2배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6:20]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
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
더라”

이는 거룩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 역시 정육면체로 만들
어졌습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
이가 같더라”

이처럼 모든 성전의 지성소가 장광고가 같은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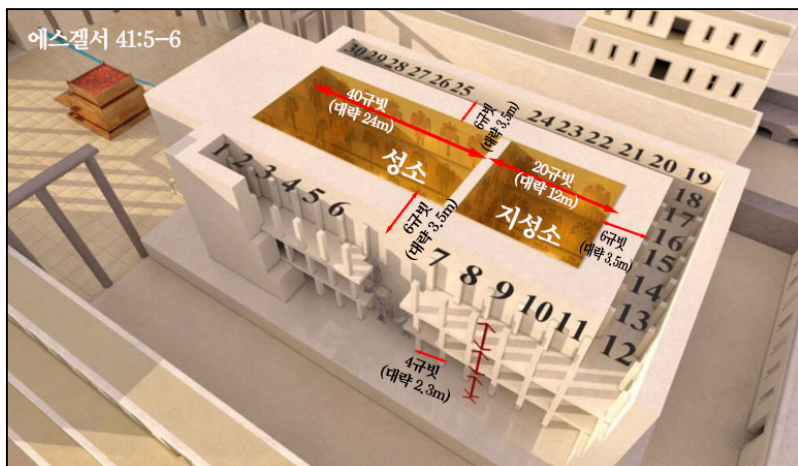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규빗이었고 성전 동편을 제외한 나머
지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두루 돌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방의 크기는
4규빗(대략 2.2미터)정도였습니다.

“[겔 41:5]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그렇게 큰 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방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는 이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방이 크면 여러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세상의 물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작으면 아주 필수적인 물건만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으로 아주 적절할 것입니다.

성전 삼면을 두루 돌아 30개의 방이 30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층마다 30개이니 전체 합치면 90개의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

“[겔 41: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골방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거하는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들은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나 기타 성물 보관용 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방들이 필요합니다. 방이 많으면 집이 없는 분들의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기도방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친교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층마다 점점 벽이 좁아집니다. 이는 성소와 지성소와 맞닿는 벽면은 그대로 똑같으면서 다만 바깥쪽 모습에서 각 층마다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게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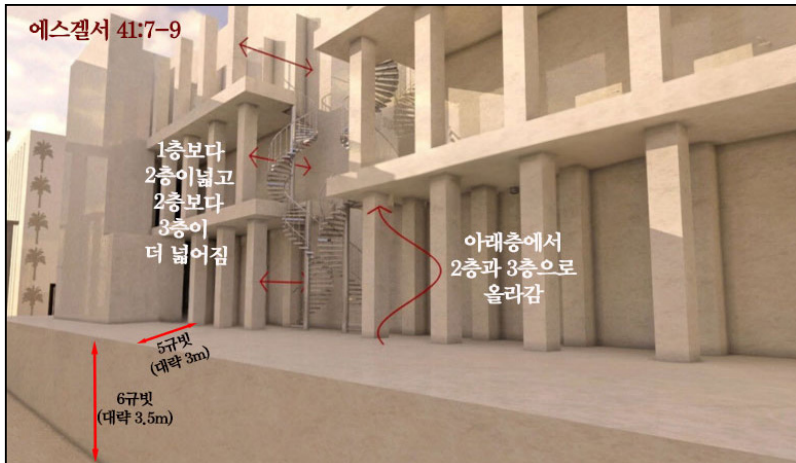
"[왕상 6:6]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솔로몬성전의 경우, 1층은 5규빗이고 2층은 6규빗이며 3층은 7규빗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에스겔 성전과 똑 같습니다. 1층의 벽은 3층의 벽보다 2규빗이나 더 두꺼웠습니다. 2층과 3층으로 올라갈수록 1규빗씩 벽 두께는 얇아졌으며 방의 넓이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경우엔 2층과 3층으로 올라갈지라도 방 넓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1층을 지지하는 바닥의 두께가 5규빗이었기 때

문입니다. 2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닥의 두께는 4규빗으로 좁아지고 3층은 3규빗으로 좁아지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 모두 1층과 2층과 3층을 나선모양의 층계로 오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겔 41:7]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왕상 6:8]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

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올라갈수록 방이 더 넓어지도록 제작한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강하다는 의미일겁니다. 1층에 거한 사람보다는 2층에 거한 사람의 영광이 크고 2층에 거한 사람보다는 3층에 거한 사람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골방은 성전에 마련된 골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안뜰과 내전의 길이

에스겔 성전에는 특이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쪽 뜰 뒤에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무엇에 쓰여지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쓰레기나 오물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생각인듯 싶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곳을 넓이 60미터 x 길이 60미터나 되는 건물을 사용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건물은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전의 전체 길이는 100규빗이었습니다.

"[겔 41: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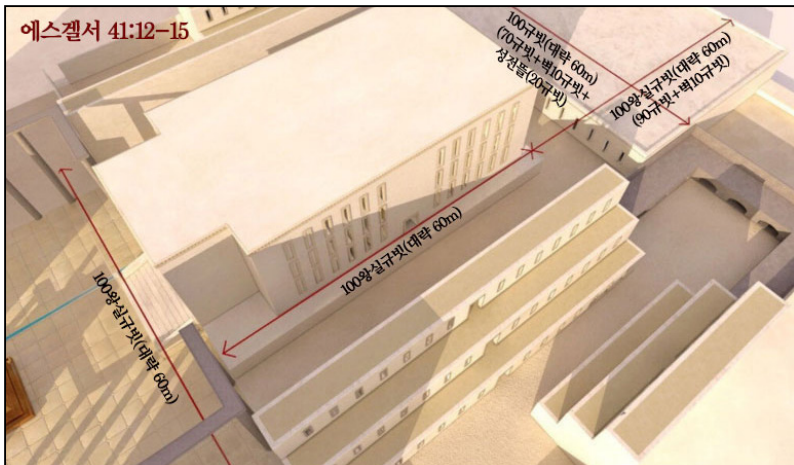
이것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관 벽 5척(40장 48절) + 현관 12척(40장 49절) + 성소의 문벽 6척(41장 1절) + 성소 40척(41장 2절) + 내전 문 통로 벽 2척(41장 3절) + 지성소 20척(41장 4절) + 성전 벽 6척(41장 5절) + 골방 4척(41장 5절) + 바깥 벽 5척(41장 9절) = 100척. 이것은 성전의 동서간의 길이입니다.

또한 서쪽의 건물에 대한 길이도 똑같이 100규빗입니다.

"[겔 41: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이것은 이렇게 계산 됩니다. 서쪽 성전 뜰 20척(41장 10절) + 서쪽 건물의 동쪽 벽 5척(41장 12절) + 서쪽 건물 70척(41장 12절) + 서쪽 건물의 서쪽 벽 5척(41장 12절) = 100척.

또한 성전 앞쪽의 넓이도 100규빗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남북쪽 성전 뜰을 포함한 폭이 100규빗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 됩니다. 남쪽 성전 뜰 20척(41장 10절) + 남쪽 빈 터 5척(41장 11절) + 남쪽 바깥 벽 5척(41장 9절) + 남쪽 골방 4척(41장 5절) + 남쪽 성전 벽 6척(41장 5절) + 성소 20척(41장 2절과 4절) + 북쪽 성전 벽 6척



(41장 5절) + 북쪽 골방 4척(41장 5절) + 북쪽 바깥 벽 5척(41장 9절)
 + 북쪽 빈 터 5척(41장 11절) + 북쪽 성전 뜰 20척(41장 10절) = 100
 척이다.

또한 동쪽을 향한 뜰의 넓이도 100규빗입니다. 이것은 성전 동쪽에
 마련된 안뜰을 말합니다. 이곳에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뜰
 에 있는 서쪽 건물을 측량했더니 그것 역시 100규빗입니다. 이것은 이
 렇게 계산됩니다. 서쪽 건물의 벽 5척(41장 12절) + 서쪽 건물의 동서
 거리 90척(41장 12절) + 서쪽 건물의 벽 5척(41장 12절) = 100척.

내전 내부장식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장식에 대한 기록입니
 다. 내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겔 41:18]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
 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것과 흡사합니다.

"[왕상 6:29]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

상을 아로새겼고”

그룹의 얼굴은 두개의 얼굴로 나뉘져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사자의 얼굴로 새겨졌습니다.

“[겔 41: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이것은 에스겔이 처음에 보았던 네 모습을 가진 그룹의 형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룹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사람과 사자의 형상만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참경배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참경배자가 나옵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어린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두 얼굴이 모두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참경배자에게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같은 자에게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겔 41: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솔로몬 성전의 문기둥도 네모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7: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네모지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네모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하나

님의 임재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존재하며 온 우주에 가득차 있습니다.

성소의 맨 끝자락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겔 41: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 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이것은 분향단과 의미가 같은 제단입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제단입니다. 길이가 2규빗(1.2미터)이며 높이가 3규빗(1.8미터)입니다. 넓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향단의 경우와 같다고 볼 때 넓이 또한 2규빗일 것입니다. 분향단의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다 높고 영적인 기도인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있는 나무제단 역시 영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언급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무 제단은 '여호와와 그의 앞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앞의 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차려놓은 영적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설병이 '양식되는 주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인 것과 같습니다. 진설병은 '얼굴떡'입니다. '진설'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설병은 얼굴떡입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호와와 그의 앞의 상'은 '진설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소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소에 거하기 위해서는 참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바깥뜰의 층계를 올라야 합니다. 바깥뜰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뜰의 층계를 올라야 합니다. 안뜰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 뜰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뜰에는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 그런 다음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전 통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제단에서 하나님의 보다 깊은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문에는 모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은 성전의 현관문입니다. 두번째 문은 성소문입니다. 세번째 문은 지성소문입니다.

"[겔 41: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모두 두 짝으로 된 여닫이 문입니다.

"[겔 41: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접다’<사바브>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회전문처럼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을 회전문으로 만드셨을까요? 이는 그만큼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회전문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전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전문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년에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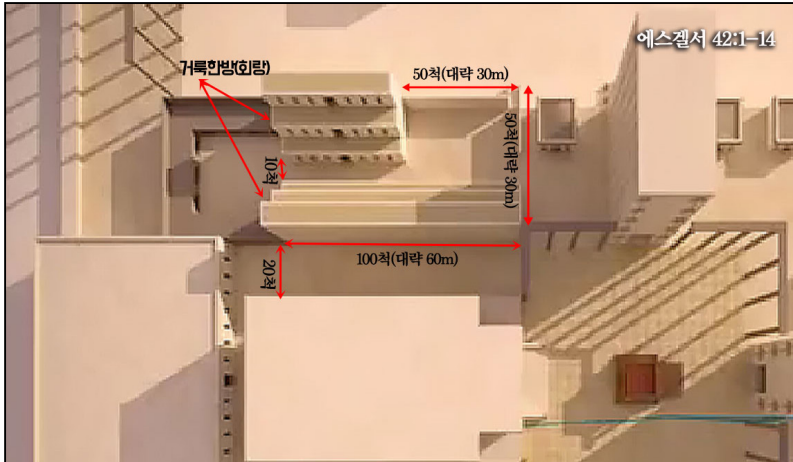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솔로몬의 성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회전문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히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방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거룩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겔 42: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뜰’<기즈라>라는 단어가 ‘따로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과는 구별하여 따로 떨어진 장소에 세워진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의 문은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한 건물의 문은 북쪽 건물을 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두 건물 중 하나는 길이가 100규빗인 반

면에 보다 북쪽에 세워진 건물은 50규빗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두 건물을 합하여 넓이가 50규빗입니다.

*"[겔 42:2]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십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각 건물은 '회랑'형식으로 건축되었는데 '회랑'은 뒷마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발코니입니다. 두 건물에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 건물은 그 발코니가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건물의 발코니는 바깥뜰과 마주 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겔 42:3] 그 방 삼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각 층마다 회랑(발코니)이 있어서 삼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겔 42:5]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좁어짐이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데 그 통로의 길이는 100규빗이

고 넓이는 10규빗입니다.

“[겔 42: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성전과 가까이 붙어있는 거룩한 방은 길이가 10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인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이에 반해 북쪽으로 세워진 또 다른 거룩한 방은 길이가 5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입니다.

“[겔 42:7]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십 척이니

[겔 42:8]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십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쪽에 세워진 거룩한 방은 담벼락에서 50규빗을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공간은 ‘거룩한 방’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겔 42:9]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거룩한 방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겔 42:10]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거룩한 방은 두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의 북쪽 맞은 편과 남쪽 맞은 편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겔 42: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 방들은 두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그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만 언급이 되고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번제의 경우 가족을 제외한 짐승 전체를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올 고기가 없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엔 제사장 뿐 아니라 전가족이 함께 제물을 취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물로는 소제와 속죄제

와 속건제 제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용도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걸어두는 곳입니다.

"[겔 42: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많은 방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깥 문에도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동쪽문과 남쪽문과 북쪽문에 각각 6개의 방이 있었으니 전체 18개의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 방은 문지기들을 위한 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안 뜰에도 바깥문과 똑같은 구조와 형식으로 방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문지기를 위해 마련된 방은 총 36개입니다. 문지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성전에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모두 90개의 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방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조는 에스겔 성전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방의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환상을 볼 때에 그런 선입견이 개입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환상이나 사도요한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처한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소 그가 처한 환경이 묻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환상에는 다소 그가 처한 환경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높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눈높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차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다. 그것은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는 말 씀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인데 영어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학생인데 대학생들만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것입니다.

성전 측량이 마무리되다

성전 측량이 모두 마친 후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셔서 사방 담을 측량하셨습니다.

“[겔 42: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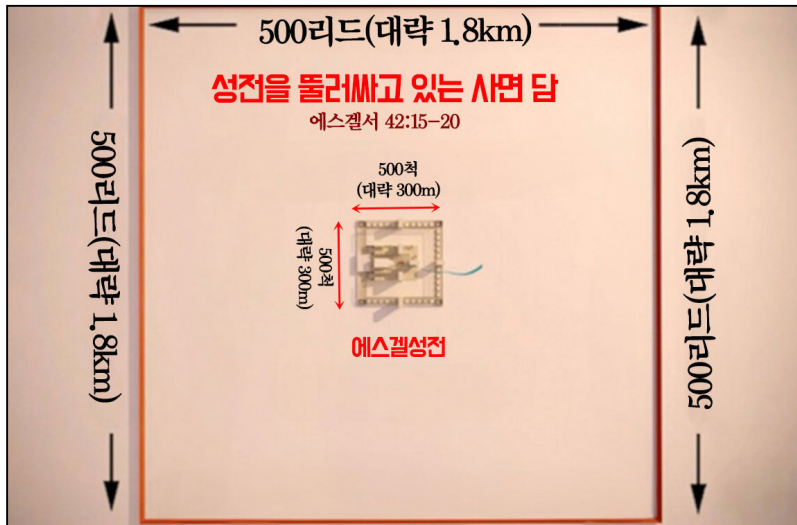
측량했더니 동쪽 담이 오백 척이었습니다.

“[겔 42: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이 부분은 너무나 황당한 오역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척’<암마>는 ‘리드’<카네>의 오역입니다. 원문에는 모두 ‘리드(갈대)’로 나옵니다. 왜 리드를 척으로 오역을 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만 원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의 크기가 이상해집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500리드라면 그 길이는 대략 1.8km 정도가 됩니다 (500 x 6 x 60cm = 1,800m). 참고로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500척(규빗)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모든 측량 수치는 왕실규빗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왕실규빗으로 6척 되는 장대를 말합니다. 일반 규빗은 대략 50cm 이지만 여기에 손바닥 넓이만큼 더해진 것이 왕실 규빗이니 대략 60cm 정도되는데 이것이 500규빗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략 300미터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것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두 같은 길이로 500규빗입니다.



이 500규빗이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남북으로 계산하면, 북쪽 바깥문 50척 + 북쪽 바깥문에서 안문까지 100척 + 북쪽 안문 50척 + 안뜰 100척(성전) + 남쪽 안문 50척 + 남쪽 안문에서 바깥문까지 100척 + 남쪽 바깥문 50척 = 500척입니다. 동서로 계산하면, 동쪽 바깥문 50척 + 동쪽 바깥문에서 안문까지 100척 + 동쪽 안문 50척 + 안뜰 100척 + 성전 100척 + 서쪽 건물과 뜰 100척 = 500척입니다.

언약의 파기

왕이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함

주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바깥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측량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번째 동쪽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처음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쪽문으로 들어가셨으며(겔 40:6) 두번째 성전 제단을 소개하기 위해 동쪽문으로 들어가셨는데(겔 43:1) 이번에는 동쪽문으로 들어가시고는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겔 44: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
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는 동쪽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4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지니라”

그러면서 왜 아무도 동쪽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쪽문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쪽문을 닫는다는 말씀을 세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1절에 ‘그 문이 닫혔더라’에서 한번, 2절에 ‘이 문은 닫고’, 2절 후반절에 ‘닫아 돌지니라’ 이렇게 세번 반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동쪽문을 닫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이렇게 세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 동쪽 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출 27:13]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내전의 성소 문과 지성소문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성전에 동쪽문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아마도 솔로몬 성전 역시 동쪽문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쪽광장에 사람들을 모은 내용이 담긴 구절(대하 29:4)을 통해 아마도 솔로몬성전의 문은 동쪽에 설치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대하 29: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문이 여러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세세하게 레위 족속들에게 성전 업무를 지시할 때 동쪽문과 북쪽문과 남쪽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상 26:17]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동쪽문은 모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쪽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경우엔 일체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쪽문 출입을 금지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라기 보다는 천국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동쪽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천국의 성전은 동쪽문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과 남쪽문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동쪽문 사용을 허락되었습니다.

*"[겔 44: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
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안 길’<데레크>는 특정한 길을 의미합니다. ‘안 길’은 아마도 동쪽문 안에 놓여져 있는 현관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동쪽문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 다만 특별히 만들어진 쪽문을 사용하여 동쪽문 현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
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
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왕과 식사를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된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됨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겔 44: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스스로 잘난체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44: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숨레브>라는 말은 '두다', '정하다', '확립하다'라는 의미의 <숨>과 마음이라는 뜻의 <레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다',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확립하다'란 뜻입니다. 을 두다, '마음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목하다' <라아아인>이라는 말은 '보다', '조사하다'라는 말의 <라아>와 '눈'이라는 뜻의 <아인>의 합성어으로써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번 '전심으로 주목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목하다'란 말을 두차례나 언급하셨을까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에 안 미치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반역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겔 44: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반역하는 자' <메리>는 말 그대로 '반역하는 자', '반란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6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가증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로 하여금 성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7절 상).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된 것입니다.

"[출 12:48]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

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
할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할례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받
아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미크다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
니다. 넓게는 성막을 의미하지만 좁게는 ‘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스케네>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케네>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
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서서”

이방인이 성소를 더럽힌 것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
습니다.

“[겔 44: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
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위반하게 하는 것’<파라르>는 ‘깨뜨리다’, ‘쳐부수다’, ‘무효화시키다’, ‘헛되게 하다’, ‘실패시키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부유함의 언약이고 건강의 언약입니다. 행복의 언약이며 기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되고 깨어진다 것은 모든 좋은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명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겔 44: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의 행위에 따른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

기셨습니다. 죄악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 하리라"

‘담당하다’<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에게 임하는 형벌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힘든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나라없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그마치 2천년동안이나 방랑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독바로 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도 걱정입니다. 제사장들이 독바로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본인 스스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너도나도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전에는 우상을 위해 수종을 들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수종 들게 하십니다.

"[겔 44: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다른 레위지파 자손들이 악한 길을 걸었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겔 44: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

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독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겔 44: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독의 자손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독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 때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한 데 반해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리아의 안티쿠스4세 왕이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까지(기원전 171년)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970년이니까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기간은 무려 8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독 가문이 무려 80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모든 제사장 일을 사독 자손에게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에스겔 성전의 제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함

하나님께서 성전 측량을 마치신 후에 에스겔을 다시 처음 장소로 되돌리셨습니다.

"[겔 43: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가득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으면 모세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
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
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솔로몬 성전 낙헌식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서서 의식을 집행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
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구름으로 가득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천사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들립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름이든 소리가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면 당신의 얼굴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당신 얼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접하게 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겔 43:3]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압제된 것입니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컸던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겔 43: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겔 43: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영’<루아흐>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음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심

에스겔은 어떤 천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겔 43:6]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 천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겔 43: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표현은 모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시 132:7]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앞드려 예배하리로다

[시 132:8]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겔 43:10]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

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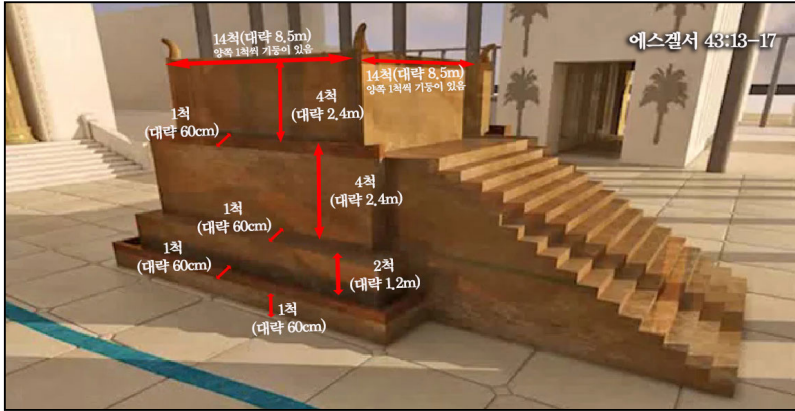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형상을 측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형상'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형을 보고서 회개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제단

하나님은 제단을 측량하셨습니다. 제단은 안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뜰은 성소 바로 앞입니다. 전체 4개의 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번째 단은 1규빗이고 두번째 단은 2규빗이고 세번째와 네번째 단은 4규빗입니다(14-15절).

"[겔 43: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겔 43:15] 그 번째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째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가장 위에 있는 단에는 4개의 뿔이 각 모퉁이에 있습니다. 가장 위의 단은 가로와 넓이가 14규빗입니다. 제단의 층계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겔 43:17]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러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양쪽 기둥을 제하면 12규빗입니다.

“[겔 43:16]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에스겔의 제단은 모세 성막의 제단과 솔로몬의 제단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대하 4:1]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솔로몬 성전의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x 20규빗 x 10규빗 것에 반해 에스겔 성전은 대략 14왕실규빗 x 14왕실규빗 x 11척이니 솔로몬 성전이 더 큼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모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타인의 아픔보다 나의 아픔을 더 크게 공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나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도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형벌을 받을지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제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와 피를 뿌리는 규례를 알려 주셨습니다.

"[겔 43: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먼저 제단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사독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겔 43:19]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레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합당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수종을 들면 안 됩니다. 아무나 예배를 수종 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다 인정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수종들 수 있습니다.

제단에는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겔 43: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뿔’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뿔에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혈을 발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혈은 곧 속죄입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케 됩니다.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피를 바른 후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겔 43:21]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불사르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도 똑
같이 행해졌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송
아지를 잡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먼저 태웠습니다.

"[레 16:25]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나머지 가축과 고기와 기타 내용물은 모두 성막 바깥에서 태웠습니
다.

"[레 16: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
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축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
요"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 위에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렸습니
다.

"[겔 43:24]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금은 정결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부패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썩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7일간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 때에도 속죄 제사는 7일간 드려졌습니다.

“[출 29:37] 너는 이제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솔로몬 성전에서도 속죄 제사가 7일간 드려졌습니다.

“[대하 7:9]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그런데 이 구절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봉헌’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한글개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겔 43:26] 이와 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
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개역한글)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봉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봉헌이 빠져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7일간 제사를 드린 후에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번제와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겔 43: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 제사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섬길 것을 서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감사제는 소제와 화목제를 뜻합니다. 소제는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제와 화목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미움이 가득차서 원망스럽거나 원망받을만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도 화목해 질 수 있습니다.

*"[마 5: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마 5: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받으실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겔 43: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

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제사의 양의 변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양만큼
드리게 하셨습니다. 곡식의 경우엔 수확한 양의 1/60을 드려야 했습니
다.

“[겔 45:13]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
며”

기름의 경우엔 1/100의 양만큼 드려야 했습니다.

“[겔 45: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
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 (십 밧
은 한 호멜이라)”

양의 경우엔 1/200 마리였습니다.

“[겔 45:15]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때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
 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제물의 양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양이 200마리 중 1마리를 바치라는 것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통적으로 1년에 3-4마리 양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를 보면 유월절제사, 오순절제사, 나팔절제사, 속죄일제사, 초막절제사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양 한마리씩은 바쳐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제사 외에 상번제, 안식제, 월삭제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이나 소를 드렸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고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지어서 회개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고 사람에게 죄지어서 용서하는 의미 제물을 드렸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과 소를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양 200마리 중 1마리만 바치라고 하니 이건 너무 적은 양입니다. 보통 한 집에 양이 5-20마리가 있고 소는 1-2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 200마리 당 1마리 바치라고 하면 10년에 한번꼴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왕에게 드리는 세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겔 45: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듯이 이 예물을 군주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군주에게 본문에 제시한 양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면 군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겔 45:17]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하지만 이 말은 백성들은 왕에게만 세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금은 나라에 바치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겔 45: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겔 45: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겔 45: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겔 45: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겔 45:22]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겔 45:23] 또 명절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겔 45:24]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며

[겔 45: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각종 절기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교력 1월 1일날에는 '나팔절'입니다. 이때는 신년 제사를 드립니다.

“[겔 45: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나팔절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1월 7일에 범죄한 자들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겔 45: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성경학자들은 7월 10일 속죄일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구약시대의 규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속죄일의 오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제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력 7월 14일에는 유월절을 7일동안 지냈습니다. 누룩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겔 45: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유월절에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한마리를 제물로 올려 드렸습니다.

"[겔 45:23] 또 명절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한 소제도 드렸는데 수 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와 숫양 한 마리에 한 에바를 함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한 힌 싹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겔 45: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식일 제사의 제물 양이 모세시대 때 드린 제물의 양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모세시대 때는 수양 2마리와 가루 1/10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땅의 성전에서는 어린양 6마리와 수양 1마리와 가루 1에바를 드렸습니

다.

*"[겔 46:4]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매우 파격적으로 제물 양이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안식일보다 새 땅에서 드리는 안식일은 훨씬 그 소중함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하루(월삭)제사 때 드리는 예물의 양은 모세시대 때에 비해 줄었습니다.

*"[민 28:11]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제
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섞은 소제
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시대 때는 수송아지 2마리에다가 가루 3/10을 함께 드렸고 수양 1마리에다가 가루 2/10을 함께 드렸으며 1년짜리 어린 양 7마리에다가 가루 1/10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땅에서의 월삭 제사의

예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다가 가루 1에바를 함께 드렸고 수양 1마리에다가 가루 1에바를 함께 드렸으며 1년짜리 어린양 1마리에다가 힘당은대로 가루를 더해 드렸습니다.

"[겔 46:6]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대체적으로 새 땅에서는 육식 제물은 그 양이 줄어든 반면에 곡식 제물은 그 양이 늘었습니다. 가루 1/10은 에바의 1/10을 의미합니다. 가루 1/10은 2.2리터이고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곡식 제물은 10배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짐승 제물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새 땅에서의 제물의 양이 이 땅에서의 제물의 양과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새 땅에서는 곡식이 훨씬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식을 즐겨 먹지만 새 땅에서는 곡식을 즐겨 먹는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제에 대한 의무는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 준비는 백성이 했지만 제사 집행은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상번제를 하루에 두차례 드려졌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두번 드렸습니다.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드려졌습니다.

“[겔 46: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바보케르 바보케르>라는 말은 아침에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새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저녁 제사가 폐지되는 것을 의
미합니다. 왜 저녁 제사가 폐지되는 것일까요? 새 땅에서 상번제가 아
침에만 드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매일 새롭게 시작됨
을 상징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빛과 평강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
다. 저녁 제사가 생략된 것은 새 땅에서 더 이상 죄와 어두움이 없고, 완
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신학적 의미를 반영합니다.

안뜰은 오직 레위지파만 드나들 수 있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월삭 제사에 대한 규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안뜰 문은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월삭)에도 열라고 명하셨습니
다.

*"[겔 46: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
한 문은 일하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
고"*

하지만 6일동안은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다만 안식일과 초하루 날에
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제사에 참여 해야만 했기 때문입
니다.

이미 44장에서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동쪽 안뜰문
을 사용토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식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백성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겔 44: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
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우리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
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가 주축이 되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

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왕은 바깥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은 동쪽 바깥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 누구도 동쪽 바깥문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겔 4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동쪽 바깥문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북쪽 바깥문이나 남쪽 바깥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갔습니다. 오직 문 통로에서만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감사제는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모름지기 왕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왕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왕은 동쪽 안뜰 문 통로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성전 때와는 약간 다른 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왕이 안뜰까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왕하 23:3]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새 땅에서의 제사는 레위 지파 외에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안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백성들이 번제단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번제단이 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안뜰이 구분되어 있어서 백성은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왕이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밖으로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겔 46: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예배’<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란 뜻입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께 몸을 구부려서 절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도 왕처럼 동쪽 안뜰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왕처럼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북문과 남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겔 46: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눅 9: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
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는데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사장의 거룩한 삶

제사장의 복장과 결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양털옷<체메르>는 '털이 많다'란 뜻의 어근에서 파생한 말로서 '털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땀이 많이 나게 하는 옷입니다.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베옷'은 목화를 원료로 하여 만든 삼베(byssus)로 만든 옷으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베옷'을 세마포 옷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국에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천국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제사장은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머리에 '베 관'을 썼으며 '베 바지'를 입었습니다.

"[겔 44:18]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땀이 나지 않는 삼베로 만든 베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땀이 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수종들 때 입는 옷을 갈아입게 하셨습니다. 수종 들 때 입는 옷은 거룩한 방에서 갈아 입어야 했습니다.

“[겔 44:19]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처럼 수종들 때 입는 옷과 일반 옷을 구분하신 것은 그만큼 제사 때 입는 옷이 훨씬 거룩한 옷이어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종 들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게 했던 것은 혹시라도 백성들이 수종들 때 입는 베옷을 만짐으로써 자신들도 거룩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삼가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입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일상복을 입고서 단에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자를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거룩한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일상복으로 대체한 이유는 뭘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일반 사람과 같은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스럽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성스러운 목회자로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런 불결한 목회자를 반역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라 하셨습니다.

*"[겔 44: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길게 자라게’<예실레후>라는 단어는 ‘느슨하게 하다’, ‘풀어 헤치다’란 뜻입니다.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당시 이방인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머리를 제멋대로 길게 자라게 놔두는 행위는 제사장으로서 옳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이 죽은 자의 신을 섬길 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길게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거룩한 모습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제사장은 안뜰에 나아갈 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21절). 안뜰에 들어갈 때라는 전제조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실인처럼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

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평신도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나실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라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적잖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술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술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번째 기적이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을까요?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술을 즐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술을 즐기셨고 죄인들과도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마 11: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또한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겔 44: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과부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하는 걸까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면 더없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결혼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부가 성경 때의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한 사람과 성경 때의 이혼한 사람도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 때의 과부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지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호 대상 1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부를 그렇게 대하면 큰 일 납니다. 과부 중 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결혼하길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아쉬울게 하나도 없는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사회의 죄악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꼭 믿는 집안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입

니다. 결혼관계에서도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옷 문제도 그러하며 머리 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에도 해당됩니다. 이 옷은 맞고 저 옷은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옷이 거룩한 옷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머리 모양이 중요합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잘못하게 되거나 잘못 유지하게 될 경우 성직자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이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믿는 집안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삶

제사장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합니다.

*"[겔 44: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가르치다’<아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

확하게 지적하고 세심히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이 혼미해지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최악된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분별입니다. 목회자만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나의 죄도 보이고 남의 죄도 보이게 됩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구분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재판할 잘 해야만 했습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합니다.

*"[겔 44: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

룩하게 하며”

오늘날 재판은 세상의 법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 것이 세상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바르게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을 부적절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런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모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는 '상번제'(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 제사(매주마다 드리는 제사)와 월삭제(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7월 14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월절제사(1월 14일)와 무교절 제사(유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간)와 장막절 제사(유월절 제사 후 50일째)와 초막절 제사(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실절 제사가 있고(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날) 나팔절 제사(새해 첫날에 드리는 제사, 7월 1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와 절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와 절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와 절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시체로부터 정결해야 합니다.

*"[겔 44: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
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 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
으며"*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신을 더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님 시신이라서 가까이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라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시체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체를 통해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신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
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신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람의 정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신과 붙어있게 만듭니다. 부모님 시신이니까 귀하게 여기게 하고 배우자 시신이니까

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형제자매의 시신이니까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면 안 됩니다. 비록 부모님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떠난 빈 껍질과 같은 육신은 불에 태워질 요소입니다. 남은 껍질과 같은 시신으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슬픔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 부정결해진 제사장으로 하여금 칠 일동안 정결할 기회를 주십니다.

"[겔 44: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

칠 일동안 회개하며 보내다가 마지막 날에 성전에 나아와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겔 44:27]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라야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하게 제사장의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겔 44: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
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업' <나할라>는 분배받은 토지를 의미하고 '산업' <아후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분배 받은 토지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아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계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산업이 됨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겔 44: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
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제사장의 가족들

도 함께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구별하여’<헤렘>은 원어상 ‘격리하다’, ‘성별하다’란 뜻의 <하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산 중에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모든 물건을 제사장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제 제물’을 주었습니다.

“[겔 44: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거제 제물’은 제단 위에서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거제 제물은 하나님께 높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첫 밀가루’는 생산된 처음 곡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신 18:3]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신 18:4]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

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소산물을 엄두에 두고 제사에 참여케 하신 것은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 제물로 제사장을 먹이시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사장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겔 44:31]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저절로 죽은 것은 자연사한 시체를 말합니다. 찢긴 것은 동물들에 의해 물려 찢겨진 시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부정한 짐승의 시체로 간주되어서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은 결코 제사장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부엌

제사장의 부엌은 제사장의 거룩한 방 서쪽 뒤편에 있었습니다.

“[겔 46: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
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여기서 언급된 제사장의 거룩한 방은 북쪽에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그 부엌에서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구웠습니다.

“[겔 46: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
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바깥뜰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 음식을 백성들과 나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
장이 그 음식을 백성과 나눠 먹게 되면 행여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자신들
도 먹었다는 자부심이 생겨서 행여 그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그런데 바깥뜰에는 네 개의 부엌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퉁이마다
뜰이 있고 그곳에 부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겔 46:21]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
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카타르>는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합니다. 바깥
뜰 네 모퉁이에 길이 40규빗과 넓이 30규빗 규모의 뜰이 있습니다.

“[겔 46:22]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길이가 24미터이고 넓이가 18미터 정도 되는 것이니 상당히 큰 규모
의 부엌인 셈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부엌이 왜 있을까요? 왜 한 개도
아닌 4개씩이나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도 새 땅에서는 부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가 봅니다. 이 부엌 안
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겔 46:23]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삶는 기구’<메바셀라> 요리용 화덕이나 가마솥을 가리킵니다. 오늘
날로 말하자면 최신식 부엌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고기를 삶을 수 있는 가마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겔 46: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역시 고기는 삶아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엌은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부엌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는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 거룩한 방을 지으셨고 제사장들을 위해 부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 수종드는 일반 레위인들을 위한 집과 부엌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집'이 어떤 모양의 집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규모로만 보면 24미터x18미터는 대략 130평 정도되는 넓은 집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 건축물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반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저들을 위한 부엌도 마련해 주셔서 백성들이 제사로 바친 제물을 삶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으리으리한 큰 집은 아닐지라도 가족이 함께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부엌이 있어서 그 곳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서의 땅의 배치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땅을 배정 받는다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땅을 배치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45장과 48장에서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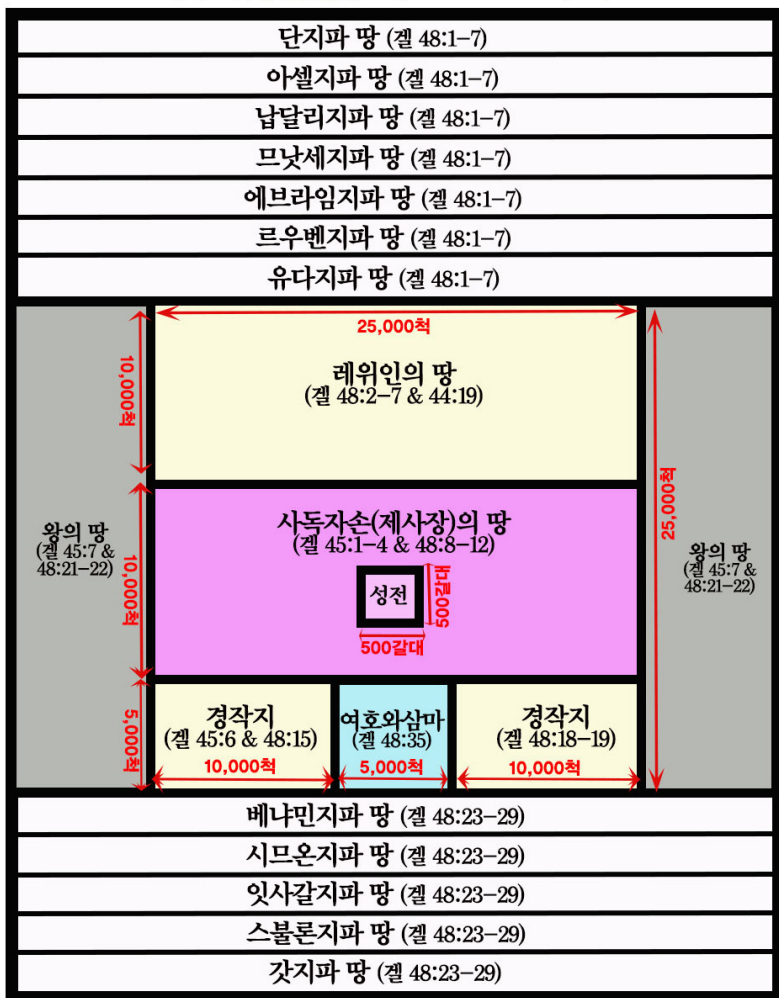
하나님은 새 땅에서의 땅의 배치를 가나안 정복 당시의 땅을 분배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겔 45: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 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제비를 뽑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있는 사람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돈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재수가 좋아야 좋은 땅을 구

천국에서의 땅의 배치 [겔 45장 & 48장]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하겠다 싶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 땅이 분배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땅이 뽑힐지 모르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예물' <테루마>는 '집어들리다', '높이다'란 뜻을 가진 <룸>이란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것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 놓는 방식의 제사인 '거제'나 제물을 오른쪽 왼쪽으로 흔드는 제사인 '요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겔 45:3]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돌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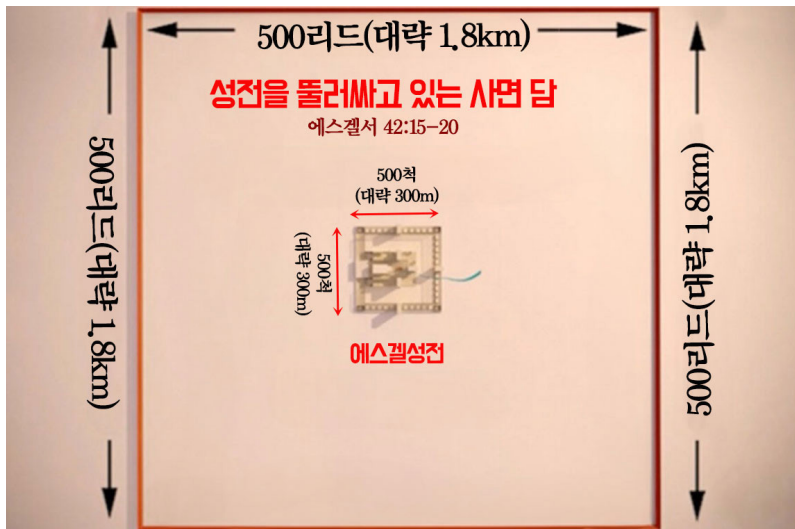
거룩한 땅의 길이는 25,000척이고 넓이는 10,000척이었습니다.

"[겔 45: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यो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와 넓이를 500척으로 삼으셨습니다.

“[겔 45:2]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 되”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것인데 ‘갈대’(reeds)를 ‘척’으로 사용한 오역입니다. 성소는 길이 500갈대와 넓이 500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의 성전이 길이와 넓이 500척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겔 45:2] 이것 중에서 성소를 세울 땅은 길이가 오백 갈대, 너비가 오백 갈대로 돌아가며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주변 지역은 돌아가며 오십 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킹제임스흠정역)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관리케 하셨습니다.

“[겔 45:4]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룩한 땅'은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 땅 한 가운데 성전이 있다

이는 성전이 천국의 중심임을 뜻합니다.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을 둘러 싸고 있는 거룩한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 계급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모세 시대 때에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잠시 멈출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백성이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했는데

그때에도 성막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장 먼저 이동한 것입니다.

"[수 3: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새 땅의 가장 중앙에 성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둘러서 제사장의 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 x 10,000 척입니다.

"[겔 48:9]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땅은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겔 48: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와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은 유독 사독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겔 48:11]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에게 돌릴지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독 대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독 가문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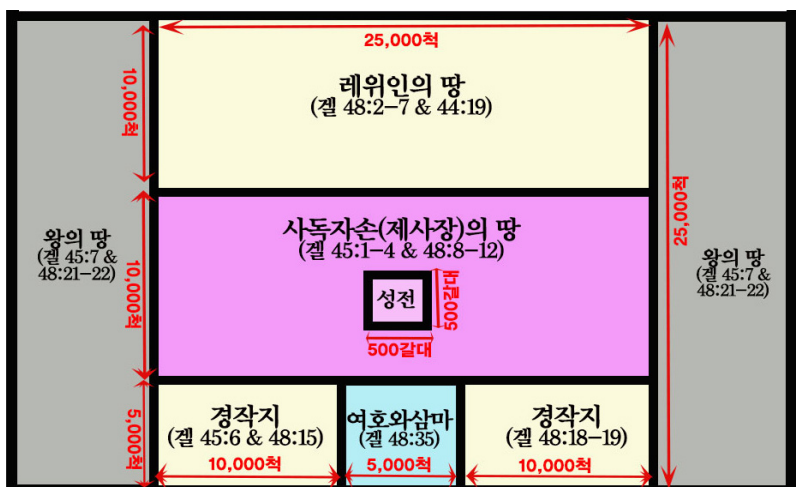
사독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 때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한 데 반해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리아의 안티쿠스 4세 왕이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까지(기원전 171년)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970년이니까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기간은 무려 8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독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새 땅에서도 사독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충성된 자는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위한 땅이 예비 되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도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겔 45:5]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레위 사람을 위한 땅은 제사장을 위한 땅과 연하여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준 땅의 길이와도 같으며 넓이도 같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땅은 제사장 땅 옆쪽에 준비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도 제사장 땅의 면적과 같았습니다.

“[겔 48:13]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이만 오
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레위 자손들에게 준 땅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합니다.

“[겔 48:14]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
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을 좋아하지 말
라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은 저들에게 처음 수확한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
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왕도 천국에서 땅을 배정 받는다

하나님은 왕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각각 왕의 땅을 주셨습니다.

"[겔 45: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에스겔서 48장에도 왕의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군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왕'과 같습니다.

"[겔 48:21]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몫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왕(군주)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겔 45: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왕이 백성을 돌보아야 하건만 세상의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강요합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압제하며 탄압합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피를 빨아 먹으며 백성의 것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겔 45: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공정히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겔 45: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밧을 쓰지
나”

통치자들은 말로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

해서 공정하지 않는 저울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공정한 저울과 저울추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손해는 백성이라면 늘상 겪는 일입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수천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저울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로 인해 손해를 보는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나라의 왕과 통치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들의 할 일입니다.

의례적으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업을 마음껏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주어진 땅만 왕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기업은 왕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한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 그 땅은 그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겔 46: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그런데 만일 왕이 어느 한 종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는 희년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왕의 기업은 왕의 후손에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결코 백성의 기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왕에게 주어진 기업만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뿐입니다.

*"[겔 46: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
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백성의 기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배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겔 47: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
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
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 <에레츠>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땅입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임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프라위스>는 말 그대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두배의 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두 배의 땅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뛰어났다는 말일까요? 요셉의 온유함이 뛰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두 배의 몫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유치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몫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분배하심을 놓고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겔 47:14]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공평하게?’ 요셉이 두 배를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엇이 공평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공평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 공평합니다. 우리는 적게 가진 것으로 불만을 갖지만 적게 가진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적절하게 배분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떡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자신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몫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 삶에 두 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북쪽에는 7지파가 땅을 차지한다

에스겔서 47장 13-23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4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2지파에게 분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은 동과 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땅의 분배는 남과 북으로 구분됩니다. 모세의 땅도 성막 중심의 땅인 것처럼 새 땅에서도 성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12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유다지파가 성소와 가장 가까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매우 귀한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새 땅에서의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유다지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준 땅에서 유다지파를 기준으로 북쪽에 배분된 지파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잇사갈, 스블론, 납달리, 아셀, 단.

이 두 배열을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게 배열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아래와 위쪽 두 군데 모두 있었으니 북쪽에 있는 단지파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서의 땅 배분도 모세 때의 땅 배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남쪽에 배분된 땅을 보면, 베냐민지파를 선두로 해서 시므온, 잇사갈, 스블론, 갓 순서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선두에 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북쪽에선 요셉의 아들 에브라힘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신 것입니다. 남쪽의 선두엔 베냐민 지파를 두신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

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지파에게 두 몫을 주시고 사랑하는 지파를 선두에 세우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다른 아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남쪽의 다섯 지파에게 땅이 배분 되었다

새 땅에서의 남쪽은 다섯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남쪽과 북쪽을 6대 6으로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북쪽에 7지파를 두시고 남쪽에 5지파를 두셨던 것일까요? 새 땅에서는 지형적인 문제도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7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의 영적의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며 천국 숫자이지만 5라는 숫자는 7의 보충적인 숫자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쪽에 분배받은 지파가 남쪽의 지파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뛰어난 지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지파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북쪽에 더 많은 지파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북쪽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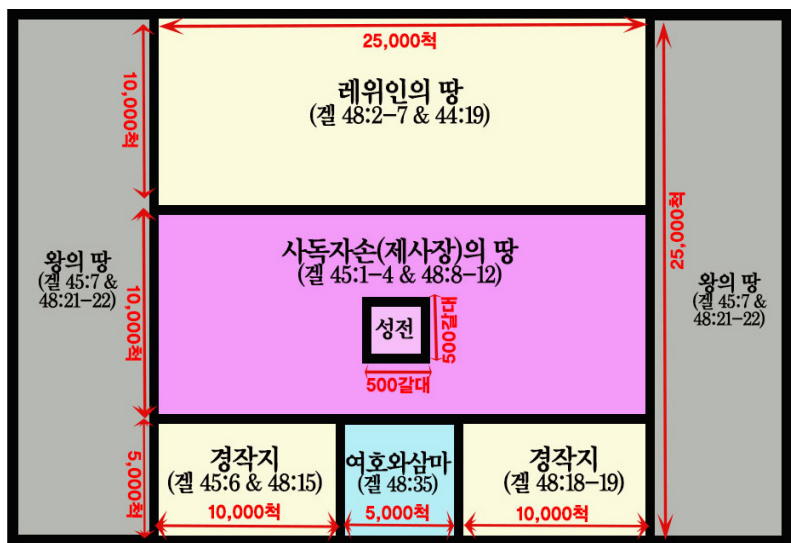
“[겔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악의 세력 또한 북쪽에서 몰려옵니다. 물론 남쪽에서도 몰려오고 동쪽에서도 몰려오지만 북쪽에서 악의 세력이 많이 몰려옵니다. 앗수르도 그러했고 바벨론도 그러했으며 시리아도 그러했고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을 파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북쪽에 더 많은 지파를 두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속된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겔 48: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
에 있게 할지니"

'속된'<홀>이라는 말은 불경스럽다는 말보다는 '보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된 땅'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땅에 비해 속되다는 것이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속된 땅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전원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마을주민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백성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 땅에서는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먹을만한 식물을 경작하게 됩니다.

"[겔 48:19]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거룩한 땅 옆에는 넓이 5,000척의 땅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렸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히 언

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계의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정가운데에 '여호와삼마'의 땅이 있습니다. '여호와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란 뜻입니다. 이 땅은 12지파가 모두 공용으로 사용되는 땅입니다.

"[겔 48: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사방 합계가 18,000척인 것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이기 때문입니다. (500척 X 4(동서남북) = 18,000척).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인 이유는 500척은 구별된 뜰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경계선인 셈입니다.

여호와삼마 성의 출입구는 동서남북 네군데 있습니다. 북쪽의 출입구는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 있습니다.

"[겔 48: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문은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이 있습니다.

"[겔 48: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

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문은 시므온 문, 잇사갈 문, 스블론 문이 있습니다.

“[겔 48: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의 문은 갓 문, 아셀 문, 납달리 문이 있습니다.

“[겔 48: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삼마' 성읍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삼마에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책상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직장인이 일하는 장소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설것이 하는 싱크대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화장실도 하나님의 삼마입니다. 침대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로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3지파씩 4차례 언급됨

성경에는 이렇게 3지파씩 묶어서 언급된 부분이 4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한 후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 때 나옵니다. 이 때의 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단, 아셀, 납달리

동쪽: 유다, 잇사갈, 스블론

남쪽: 갓, 시므온, 르우벤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지파별 배치입니다. 여기서는 동서남북 구분없이 세 지파씩 묶어서 나열되었습니다.

1. 유다, 르우벤, 갓
2. 아셀, 납달리, 므낫세
3. 시므온, 레위, 잇사갈
4. 스블론, 요셉, 베냐민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석, 황옥, 녹주옥

2.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3. 호박, 백마노, 자수정
4.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니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르우벤, 시므온, 레위
2. 유다, 단, 납달리
3. 갓, 아셀, 잇사갈
4. 스블론, 요셉, 베냐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 벽옥, 남보석, 옥수
2.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3. 황옥, 녹옥, 담황옥
4.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것을 출애굽기 28장의 대제사장 흉배에 있는 보석과 지파를 연결해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파가 분류됩니다.

1. 아셀(벽옥), 단(남보석), 베냐민(옥수)
2. 르우벤(녹보석), 시므온(홍마노), 유다(홍보석)
3. 잇사갈(황옥), 스블론(녹옥), 요셉(담황옥)

4. 레위(비취옥), 납달리(청옥), 갓(자수정)

결론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4개의 팀으로 구별되는 형식으로 언급된 것이 성경에 모두 5번 나오지만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그리고 레위지파가 항상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유다지파는 예수님의 혈통이라서 중요하고 요셉지파는 이스라엘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서 중요하고 레위지파는 성전과 연관되어서 중요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장남 르우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유다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시대에는 요셉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5 장

/

천국의 생명수

에스겔성전의 생명수

성소에서 생명수가 흐르다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가 충만했습니다. 물이 동쪽에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 바깥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파카>라는 말은 단순히 물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에스겔과 연결된 줄을 잡고서 동쪽으로 나아가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에스겔 발목까지 찼습니다.

"[겔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1,000척’은 일반 규빗으로 계산할 때 대략 500미터 정도됩니다. 성전 길이가 500규빗이니 이 길이는 대략 성전의 두배 되는 길이를 측량한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 성전의 물을 네차례 측량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물이 점점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1,000척을 측량했더니 그 물은 무릎에 올랐고 세번째 측량했을 때는 에스겔의 허리까지 찼습니다.

"[겔 47: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번째 1,000척을 측량했을 때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겔 47: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 물이 가득하여 해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
할 강이더라”

에스겔이 강 좌우편을 바라보았더니 나무가 심히 많았습니다.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많더라’<리브>는 ‘풍성한’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가 많
다는 의미보다는 열매까지 풍성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생명수
가 흐르는 곳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습
니다.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
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소성케 되다

‘아라바’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해수면보다 430미터나 낮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흘렀더니 죽은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해'는 말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생명수를 통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면 살아납니다.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해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
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바다에 어부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겔 47: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예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예

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했습니다.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비차>는 '진흙 수렁'을 의미하고 '개펄'<게베>는 '물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진펄과 개펄이 되어 고인 물들은 계속해서 물이 증발됨으로써 소금층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 결국은 못쓰는 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진펄처럼 진흙 수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받지 못합니다. 개펄처럼 웅덩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새롭게 변화받지 못합니다. 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펄과 같습니다. 항상 척척하고 항상 습한 사람은 질병이 많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사람은 개펄과도 같습니다. 태평양처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색하고 교회에 인색한 사람들은 개펄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 뿐이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
 십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와야 생활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매달 우리에게 월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
 는 월급이 세상에서 주는 월급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은 참으로 먹을만 하고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먹음직스러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모두 먹음직스럽습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
 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약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열매는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항상 약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약
 이 됩니다.

오직 생명수가 흘러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수는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소' <미크다쉬>는 거룩하다란 뜻의 <카다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 땅에 가장 거룩한 장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으로 여기십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여기십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가정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천국의 생명수

오직 만국 백성만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만국'으로 표현됩니다.

만국'은 바로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나라'가 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성은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마치 집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십니

다. 그 모습을 사도요한은 보았습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에 흐르는 생명수

거룩한 성에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립니다.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강을 이룹니다. 그 생명수 강물은 흘러내려서 천국에까지 이룹니다. 천국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그 생명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열매가 있으며 생명나무 잎사귀도 풍성합니다. 그 열매와 잎사귀는 천국 백성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취하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하게 하는 물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마실 수 있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배에서는 세상의 정욕이 흘러나오고 탐욕의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배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가득차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은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덴동산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
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
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생수의 강
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강이 흐를 때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생수가 흘러야 합
니다. 생수가 흐를 때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6 장

/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두 나라를 다시금 하나로 하시고 하나된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간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첫번째 귀환은 기원전 538년이었으니 거의 70년 만에 귀국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기원후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이후 2천년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예언된 말씀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눅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천년동안 세계에 흩어짐을 당한 후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겔 37: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

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 37: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곡과 마곡을 들어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십니다

하지만 말세 때에 곡과 마곡을 들어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십니다.

“[겔 38: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마곡 땅을 의미합니다.

“[겔 38: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2절). 이를 통해 우리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마곡이며 곡은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국의 통치자 곡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서 38장에 언급된 나라들의 이름과 오늘날의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국=러시아, 메섹=조지아와 터기북동부, 도갈마=아르메니아, 바사=이란, 두발=터키, 고멜=유럽지역, 붓=리비아, 구스=에티오피아와 수단.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이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부분의 나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 때에 곡 왕과 마곡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연합국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곳에 언급된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과 심각하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 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제3차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말세에 얼마나 많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 주십니다.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 20: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전쟁 모두 사탄에 의해 일어난 것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이 무저갱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오직 화평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에는 오직 평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곳엔 언제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배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성도도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겔 38: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
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
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
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곡 왕을 선동케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입니다.

*"[겔 38: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겔 38: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적군의 침입이 턱 끝까지 차 올랐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일부터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내신 것입니다. 적군을 땅 속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한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 지진을 일으
키시고 저들을 땅 속에 떨어지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 16: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민 16: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민 16:33]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 16: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민 16:35]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
살았더라”

고라는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서있는 땅에 지진이 있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저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무리들을 칼로 치셨습니다.

“[겔 38:2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대적자들끼리 싸워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서로의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적군끼리 서로 죽이게 한 사건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작은 군대로 미디안

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향아리와 나팔, 횃불을 사용해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삿 7: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뱀 싯대에 이르고 또 답뱃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상 14:20]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할 때, 모압군은 혼란에 빠져 서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왕하 3:23]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적군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대하 20: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
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
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대하 20: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또한 하나님은 전염병과 피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겔 38: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
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만
일 누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폭우
가 임할 것이고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릴 것
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

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
든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
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최후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곡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겔 39: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이뤄졌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곡 왕을 따르는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곡 왕과 함께 연합국을 이뤄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들 지역 이름은 대략적으로 러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곡 왕은 여러 연합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되었습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은 마귀로부터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

에 마귀는 그 옥에서 풀려납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날 때에 사람을 미혹하고 모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서 38-39장에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단지 러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나라들의 연합국과의 전쟁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지고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 인간이 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겔돈 전쟁' 역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역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 뿐입니다. 마귀가 하늘에 있을 때에 하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땅에 있으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앗수르 제국과도 전쟁을 치렀고 바벨론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마와도 전쟁을 치렀으며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모든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 왕의 연합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겔 39:5] 네가 빈 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곡 왕의 연합국을 패배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이실 것입니다.

*"[겔 39: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마귀와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겔 39:8]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 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수거하여 불태울 때에 그 기간이 7년이나 될 것입니다.

“[겔 39: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얼마나 그들의 무기가 많으면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7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고 엄청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데에는 7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겔 39: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면 매장하는데만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무기가 태워지는데 7년이 걸리고 시체가 매장되는데 7개월이 걸렸다는 말은 정결케 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민 19: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무기가 정결해지는데 7년이 소요되고 시체가 정결해지기 위해 7개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해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7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죄는 7개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저주는 7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결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식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피를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 약속 하셨습니다.

"[겔 39: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겔 39:23]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엮드리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면 곤란합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굴’<파님>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성막의 진설병은 ‘얼굴 떡’입니다. ‘진설’<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얼굴 떡’입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거부하다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 <루아흐>를 쏟아 부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겔 39: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쏟아 붓다' <샤파크>는 '쏟다'라는 뜻 외에도 '붓다', '따르다', '흘리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쏟아붓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더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나요? 더럽게 느껴지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몸에 뿌려본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집에 뿌려본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가족들에게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단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을 것입니다.



7 장

/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치셨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겔 13: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 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까닭은 저들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겔 13:3]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 치셨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저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

기 때문입니다.

*"[겔 13: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
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허탄한 묵시를 봅니다. '허탄한 묵시'는 헛되고 공허한 환상을 말합니다. 사실적이지 않는 환상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환상입니다. 저들이 보는 환상은 자기 뜻대로 보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런 허탄한 묵시를 보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역은 거짓된 말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 것을점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음성입니다.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음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험’<하야>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취함’<보>은 ‘받아드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이의 심령 깊숙히 말씀이 스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성취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는 그 어떠한 증험이나 성취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선지자는 거짓된 담벼락을 세우는 자이다

거짓 선지자는 회칠한 담벼락과 같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겔 13:10]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
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담벼락에 회칠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들이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주로 바벨론에 끌려온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유수기간이 곧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

론의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칠한 사람에 대해 질책하셨습니다.

"[마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척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거짓된 담벼락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담벼락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데 그 저주가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십니다.

"[겔 13: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펴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멸절 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양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감추려고 담벼락에 회칠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당장에 임할 것인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목회자는 자신도 망하게 만들지만 백성들도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선지자

하나님은 거짓된 여선지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선지자들입니다.

"[겔 13: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부적’<케세트>은 ‘띠’입니다. 이들은 손목에 띠를 묶고서 예언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신령해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마치 목회자가 신방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목에 걸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자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수건’<미스파하>은 머리에 쓰는 베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케 하기 위해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예언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수건을 올려놓는 행위나 손목에 차는 띠같은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옷을 입고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모습을 취하지 않아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령해 보이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여선지자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겔 13:19]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선지자는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선 안 됩니다.

**유혹받는
지도자와 선지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겔 14:1]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와 내 앞에 앉으니"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 중의 대표자입니다.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가 하나님의 대표자인 선지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장로가 선지자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목회자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무슨 일로 저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게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겔 14: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
납하랴"*

'들이다' <알라>라는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뭔가를 바치기 위해 우상 제단에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저들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걸림돌' <

미크솔>은 '넘어지게 하는 것', '장애물'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여 죄를 짓는 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그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백성은 누구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자녀가 어찌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성도가 어찌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벌을 가하실텐데 저들이 섬긴 우상의 수효대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겔 14: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겔 14: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 거리
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아진다는 말
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저들이 왜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걸림돌
에 넘어지는 자들이 어찌하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겔 14: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
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
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하지만 하나
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찾지만
하나님을 위해 오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는 우상을 위하는 자입니다. 우상이 필요한 까닭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우상입니다. 열심히 배우자를 섬기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남편에게 찾아와 그 남자를 위해 돈을 달라고 하면 남편이 기분 좋게 돈을 주겠습니까?

"[사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마귀의 유혹을 받은 선지자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을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겔 14:9]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유혹을 받다’<파타>라는 말은 ‘넓다’(wide)라는 말입니다. 너무 넓어서 들어올게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넓어서 죄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선지자의 마음이 넓어 죄가 그리 쉽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마음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문단속을 잘 해야 도둑이 안 들어오듯이 마음 단속을 잘해야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큰 유혹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죄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재물을 주고 사람이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9절 중). 이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선지자가 죄를 범했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다는 말은 성도 입장에서는 사뭇 기분 나쁜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의인이라는 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돈

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식의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전할 때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여전히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여전히 성도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할지라도 성도의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훼방하는 심각한 죄를 지을 경우는 성도의 자리도 박탈당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죄는 성도의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계산했다면 어느 누구도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목자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함으로써 거짓된 목자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는 "자기만 먹는" 목자입니다.

"[겔 34: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

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
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먹다’<하우 로임>라는 말은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다’란 말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매우 이기적
이고 정욕적으로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먹어 치우는 돼지같은 모
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단 이스라엘 왕에게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지도자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
자가 이 단어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부류
의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도 총체적인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정치 지
도자들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독교 목사들 때문입니다.
저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합니다.

“[겔 34: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기름’<헬리브>는 ‘살찌다’란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 제사드
릴 때 드려진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고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 좋은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선지자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파는 여인과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추하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더럽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구별된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겔 34: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상석에 있고 백성들은 밑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상석보다 말석에 앉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말석보다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눅 14: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눅 14:9]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옆

자리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양과 양을 구분하시고 숫양과 숫염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겔 34: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
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차적으로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면서도 좋지 않는 양이 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을 구분하십니다.

*"[겔 34: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파

리한 양은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살진 양은 살진 양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파리한 양들은 누구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진 양같은 사람이 있고 파리한 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진 양들이 파리한 양들을 돌봐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 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돈을 꺾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배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기본 원리입니다.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진 양'과 같은 자들의 만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겔 34:18]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남은 꿀’은 남은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추수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곡식 일부를 남겨 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곡식을 가져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진 양’과 같은 사람들이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남은 곡식을 먹지 못하게 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진 양’과 같은 사람들은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을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밟았습니다.

“[겔 34: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다 하셨을까요?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다윗왕과 같은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살진 양’과 같은 사람을 심판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보좌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그때에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 구분될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에스겔서의
장별 해석



1 장

/

소명과 환상

[겔 1: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겔 1: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겔 1: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이 예언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1차 공격 때(기원전 605년)는 다니엘이 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 갔습니다. 3차 침공 때에는 거의 대부분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1절 상). ‘서른째 해’는 그의 나이 30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 30세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30세 때에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결혼을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내가 있었습니다.

“[겔 24: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결국 에스겔의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일찍 헤어졌습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1-3장: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은 내용, 둘째 4-24장: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셋째 25-32장: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넷째 33-39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선언, 다섯째 40-48장: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겔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겔 1: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겔 1:6]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겔 1:7]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넉 구리 같이 빛나며

[겔 1:8]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겔 1:9]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11]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겔 1: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겔 1: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서는 번개가 나며

[겔 1:14]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4절 하). '단 쇠' <하쉬말>은 금과 은의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

이 나타나는데...”(5절 상). ‘네 생물’은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그룹에 대한 내용이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그룹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에덴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막의 지성소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인 속죄에는 두 그룹 모양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언약궤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속죄소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속죄소와 하나로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룹과 속죄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같은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각각 한 생물에 네 개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의 얼굴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10절).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물은 곧 천사인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다른 얼굴은 사자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용맹함입니다. 천사는 용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맹스럽습니다. 작은 짐승같지 아니하고 사자같이 용맹스럽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송아지 모습입니다. 송아지는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천사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얼굴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고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고귀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고귀합니다.

각각의 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얼굴은 모두 우리가 지녀야 할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해야 합니다. 소처럼 충성돼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고귀해야 합니다.

생물의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한 생물마다 네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여섯 날개인데 에스겔서의 생물은 네개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습니다(11절).

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갑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12절 상). '영' <르아흐>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이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천사는 성령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천사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나아갑니다. "...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12절 하). 우리도 돌이키지 않아야 합니다. 곧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돌이키다' <사바브>는 '돌다', '둘러싸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턴을 말합니다. 곧바로 가야 하는데 유턴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유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큰일납니다. 즉시로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에스겔이 본 생물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이었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13절 상). 천사는 불꽃처럼 타 오릅니다. 천사는 불꽃처럼 일을 합니다.

“[히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우리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번개와도 같습니다. “...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13절 하). 번개는 빠릅니다. 천사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빠르게 일을 해야 합니다. 느리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생물들은 서로 번개같이 왕래합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14절).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번개처럼 서로 왕래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왕래합니다. 이는 저들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네 생물’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단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그룹을 상징합니다.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 4: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겔 1: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겔 1:16]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겔 1:17]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지 아니하고 가며

[겔 1: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겔 1:19]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겔 1: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겔 1:21]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에스겔이 생물들을 자세히 보니 그 생물들 옆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15절 상). 그런데 그 바퀴들이 매우 높고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18절 상).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16절 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는 동서남북 어디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천사가 아주 밀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즉시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합니다. 느리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천사는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종입니다.

“[히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천사는 즉시로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에 즉각적으로 일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바퀴는 직진으로만 갑니다. 유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지 아니하고 가며”(17절). 천사는 한번 받은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뒤돌지도 않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돌진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퀴에 수많은 눈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18절 하). ‘눈’은 곧 하나님의 눈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켜보는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지켜보는 눈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졸지 않고 지킬 때의 눈입니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퀴는 생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19절 상). 생물과 바퀴는 일심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위해 바퀴를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일을 잘 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자가용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용으로 세상의 정욕을 위한 곳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갑니다. “영이 어떤 쪼공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20절 상). 그런데 바퀴들도 그와 같습니다. “...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20절 중). 바퀴는 오직 생물을 따라 갑니다. 바퀴는 생물이 서면 서고 가면 갑니다. 바퀴가 생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면 우리도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면 우리도 가야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갔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정박했고 다시 구름기둥이 발행하면 백성들도 속히 함께 떠났습니다.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출 40: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겔 1: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겔 1: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겔 1: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22절 상). 그런데 보기에 두려웠습니다. ‘수정 같은 궁창’은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생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습니다. “...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23절 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외함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두렵고 떨린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24절 상).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많은 물 소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웅장합니다. 장엄합니다. 매우 권위적이며 큰 권세가 느껴지는 음성입니다.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겔 1: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궁창 위에 보좌를 보았는데 보좌에 사람의 형상을 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26절 하).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그 허리가 '단 쇠' 같아보였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아 보였습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27절 하). 그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28절 중).

여호와의 영광은 이처럼 광채가 납니다. 이처럼 장엄합니다. 이처럼 뜨겁습니다. 때로는 불과 같으며 때로는 바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웅장하며 때로는 장엄합니다. 때로는 깊이가 있으며 때로는 넓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들어감이 있고 때로는 내비치는 빛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환하고 때로는 은은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28절 하).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런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 복된 사람입니다.



2 장

/

부르심과 사명

[겔 2: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겔 2:2]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겔 2: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겔 2:4] 이 자손은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겔 2: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겔 2: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겔 2:7]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다’ <아마드>는 말은 ‘서 있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이 됐든지 차 안이 됐든지 특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침시간이 저녁보다 좋은 장소가 됩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2절 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을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몸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의식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뚜렷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이 없는 듯하고 몸이 없는 듯 합니다. 몸이 땅에 있는지 공중에 있는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힘이 빠졌습니다.

“[단 10: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
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르아흐>이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 온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그에게 임할 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쉽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환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입신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3절 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패역한 백성'이요 '배반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패역한 자야, 너는 나를 배반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자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패역한 자',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뻔뻔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4절 상). ‘뻘뻘하다’<케쉬>는 말은 ‘굳은’, ‘완고한’의 뜻입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고 완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하지만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철면피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거역과 반역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겔 2: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겔 2:9]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

루마리 책이 있더라

[겔 2: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처럼 패역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8절 상). '패역하다' <마라드>는 '반역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거나 반항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음성을 듣는 자녀는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의 음성을 듣는 자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음성을 듣는 자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충고를 거절한 사람은 패역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8절 하). 그것은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보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 책에는 각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각 족속

과 민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적힌 책의 내용은 재앙 뿐이었습니다. 애곡과 통곡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3 장

/

파수군의 역할

[겔 3: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겔 3: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겔 3: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1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발견하다' <마차>는 말은 '발견하다'란 뜻 외에 '찾아', '얻다', '이르다'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찾으로 떠나고 그곳에 이르러서 마침내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차>는 히브리어 칼형 동사로 쓰여졌는데 칼형은 능동태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로는 말씀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사모할 때 비로소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1절 하).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었더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3절 하).

얼마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겠습니까? 당신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시고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먹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사람은 백 번을 읽어도 성경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을 먹은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글로 써진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뱃속까지 내려가고 뱃속까지 심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가리켜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고스> 말씀을 볼 때에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겔 3:4]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겔 3:5]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

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겔 3:6]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겔 3: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외국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저들이 에스겔의 전한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6절 하). 실제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7절 상). '이마'라는 단어는 사람의 결심이나 어떤 결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까지 강인한 자세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7절 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비록 저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겔 3:8]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겔 3:9]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겔 3:10]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겔 3: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연약했습니다. 그는 언변력이 부족했으며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거절했습니다(출 3장). 이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도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했습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사처럼 강한 사람도 있

었지만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시키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하셨습니다.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9절 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마가 돌처럼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겔 3:12]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힘

을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12절 상). '주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는 달리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성령의 운행하심을 받을 때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끌림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신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매우 깊은 교재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입신의 체험을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대략 1주일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이 산을 가리켜 '변형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형의 산에 오르셨는데 영광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성경에는 딱 한 차례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를 같이 했던 흔적이 남은 곳은 변형의 산에서의 기도 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도 기도만큼은 늘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이번 만큼은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형의 산에서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9: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

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막 9: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러한 변형의 산에서의 기도는 '입신의 기도'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크고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경지의 기도가 바로 입신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입신기도는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입신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행 10: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행 10: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 역시 이러한 입신기도를 드렸습니다.

”[행 22: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

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행 22: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
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나오는 ‘황홀한 중에’<엑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영
어 성경에서 ‘입신’(trance)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
한 입신기도 흔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베드로의 입신기도와 바
울의 입신기도를 통해서 그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입신기도가 널리
알려져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이러한 입신기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을 받
으면 이러한 입신기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입
신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입신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
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입신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입신기도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성품이 일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입신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이뤄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입신기도를 ‘골방기도’로 표현하셨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
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할 때 입신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입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과 만날 때 입신하지 않습니다. 입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신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드리셨습니다. 매일 드리셨습니다. 홀로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입신의 경지를 체험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에게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12절 중).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입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 '많은 물소리'같습니다. 에스겔은 많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사도요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계 1: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우리도 ‘많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도 ‘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허다한 무리들
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계 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
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많은 물소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하나
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집니다. 때로는 고요
한 소리로 들려지지만 이렇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물소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
니다. 입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드리셨던 골방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겔 3:13]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결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겔 3:14]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
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겔 3:15] 이에 내가 델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물과 함께 하는 바퀴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13절 상). 에스겔은 이들의 소리가 매우 큰 소리였으며 울리는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13절 하). 바로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생물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들에게서 '많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칠 때 소리가 났습니다. '부딪치다' <나샤크>는 말은 원래 '입맞추다', '포옹하다'라는 말입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질서없이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조화로우며 질서있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하염없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곤충의 날개에서 소리가 나듯이 생물들의 날개가 열심히 움직일 때 이러한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14절 상). 도대체 왜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근심’<마르>이라는 단어는 ‘쓰’, ‘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분한 마음’<하마트 루하>은 ‘영의 열기’라는 말로 ‘진노’,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을까요? 왜 에스겔의 마음이 ‘분노’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괴로움과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근심’과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평범한 성도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선지자에게서 일어납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근심’과 ‘분노심’을 가지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고 말았습니다. “...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15절 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마음

에 견딜 수 없는 '근심'과 '분노심'이 차올랐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혹 당신도 에스겔처럼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겔 3:16] 칠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칠 일 후에 여호와 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16일). '칠 일'은 에스겔이 숨어 지낸 날들입니다. '칠 일'은 그가 두려움에 가득차있는 날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부담되어 숨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 숨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 그는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칠 일'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의 두려움이 떠나는 숫자입니다. 두려움의 인간에서 강력한 선지자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숫자입니다.

[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겔 3: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겔 3:19]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겔 3:20]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21]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숨어 지내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17절 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1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으로 협박(?)하셨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협박(?)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의 죄값이 너에게 임할 것이지만 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백성의 죄값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되리라"고 협박의 말을 하셨습니다.

에스겔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백성이 죄값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때에 모든 피값이 에스겔의 몫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이상 에스겔로 하여금 숨을 곳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임직을 받았지만 평신도처럼 지내는 목사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입니다. 목숨이 여러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의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혹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당장에 나오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당신도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겔 3: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겔 3:23]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겔 3:24]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겔 3:25]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겔 3:26]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겔 3: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22절 중).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22절 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로 나가야 합니다. 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들은 고요한 곳입니다. 들은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의 방해는 있을 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람의 방해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나 많이 먹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에스겔은 들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에스겔이 들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들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은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숨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있게 체험했던 것처럼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 내

가 전에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23절 중). 에스겔이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체험의 느낌을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 내가 곧 엎드리니"(23절 하). 그가 땅에 엎드린 것은 다시금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확립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24절 하). 왜 성령님은 에스겔에게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고 명하셨을까요? 혹 당신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교회개척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신실한 권사님과 함께 교회개척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지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한달도 채 안 되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곳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교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

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미국 생활인데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시니 참으로 납득할 수 없었으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나 대신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매우 힘든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략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일 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다음 날 바로 만났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집으로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선택 받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무수히 많이 겪습니다. 이런 체험을 겪지 않고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2주 정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이지만 그 외에도 성경을 가르쳐야 했곡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 밖에 나가 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지냈더니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려왔습니다. 가계에 손님이 많이 몰린 느낌보다는 빗쟁이들이 돈값으라고 물려오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집을 나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집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집 안에만 갇혀서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집 안에만 갇혀 생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25절 상).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에스겔은 빠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습니다.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26절 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병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병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백성을 꾸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26절 중).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선 병어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중에는 자신의 뜻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전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자신이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목사들은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병어리가 되듯 이들도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들려집니다.

에스겔은 선불리 선지자역을 행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어리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병어리가 되면 어떻게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27절 상).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눌 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될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눌 때에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자신의 음성을 더하지도 말고 자신의 뜻을 더하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때 입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예수님께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에스겔과 같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전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에스겔의 교훈을 배

우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을 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4 장

/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예언

[겔 4:1]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겔 4:2]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겔 4:3]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독특한 일을 명하셨습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모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토판' <레베나>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했던 벽돌이나 점토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찰흙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든 것처럼 에스겔로 하여금 뭔가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 함락되는 모습의 모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철벽을 세워 포위하는 모습의 모형은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포로된 삶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에스겔이 만든 모형은 참으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했을 때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런 행동은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겔 4: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겔 4:5]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겔 4: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겔 4:7]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겔 4:8]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정하셨는데 총 390일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5절 상).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날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일년으로 삼으셨습니다. "... 하루가 일 년이니라"(6절 하).

그렇다면 39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솔로몬

왕국이 둘로 나뉘는 때부터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때까지가 정확히 390년입니다. 왕국이 분열될 때가 기원전 930년이고 포로 귀환 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930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의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년수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짊어져야 할 년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년 수가 짧겠으나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의 년 수가 길 것입니다. 당신의 날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혹 당신은 지금 죄값을 치르는 날 수를 채우고 있는 중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눕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 수는 유다 족속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6절 상).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죄값의 날 수를 40일로 정하셨습니다. "...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6절 중). 40일은 40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40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부터 포로에서 귀환했던 때를 계산할 때 4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가 기원전 586년이고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7년이니 그 기간이 대략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던 기간은 430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할당된 죄값의 날들의 년수를 합칠 때 430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7절 하). 아마도 에스겔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열심히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복음 선포는 상인들에 의해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의 노력이 무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레를 줄로 묶으셨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아리니...”(8절 상).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묶으셨을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묶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에스겔의 수고와 노력에도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줄로 묶임을 당하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겔 4: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먹되

[겔 4:10]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겔 4:11] 물도 육분의 일 힌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겔 4:12]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겔 4:13]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겔 4:14]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겔 4: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뿔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겔 4:16]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겔 4:17]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떡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떡은 여러 식물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 떡을 만들어..."(9절 상). 밀, 콩, 팥

은 귀한 것이나 보리, 조, 귀리는 질이 낮은 거친 곡식입니다. 이것을 섞어 만든 떡은 매우 거칠고 좋지 않은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칠고 질이 좋지 않은 떡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대기근을 상징합니다. 대기근이 임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 아무 것이나 섞어서 떡을 만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떡을 하루에 20세겔씩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10절 하). 한 세겔이 대략 11g 이므로 20 세겔은 대략 220입니다. 이 분량은 한 사람이 하루에 먹기에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하나님은 물도 1/6힌씩 때를 따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힌은 대략 3.7리터입니다. 1/6 힌은 대략 0.6리터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마신다니 너무나 적은 양의 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인분'은 사람의 똥입니다. 사람의 똥으로 불을 지핀다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변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쳐다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람의 똥으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불결한 것입니다.

"[신 23:12]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신 23:13]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불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다행히 하나님은 에스겔의 항의에 못이겨 ‘쇠뿔’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 보라 쇠뿔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15절)

예루살렘의 상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대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대기근이 임합니다. 이미 그런 대기근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앞으로 대기근을 겪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근이 있을 때 우리 맘에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애걸해야 합니다. 대기근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5 장

/

예루살렘 멸망 예언

[겔 5:1]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겔 5:2]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겔 5:3]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겔 5:4]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독특한 행동을 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단 후에 이것을 삼등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등분된 머리카락과 수염을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곤욕입니다. 아주 비참한 재앙입니다.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재앙은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1/3을 불에 태우셨습니다. "... 너는 터럭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2절 중).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읍에 화재가 일어나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1/3이 칼에 의해 치임을 당한다는 표현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

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의 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2절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
엘에게 임한 재앙이 끝이 없을 것이며 무자비한 재앙이 될 것임을 예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참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기
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에도 이 예언이 성취되었
습니다. 기원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세계2차대전으로 인해 600만 유대인인 학살을 당할
때에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의 민족입니
다. 재앙이 끊이지 않는 민족입니다.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입니
다.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스
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당신에게는 재
앙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재앙의 예고를 하도록 명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자 위함
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건져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머리카락과 수염 중 일부를 옷자락으로 싸라

고 명하셨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3절). '조금'이라는 의미는 '남은 자'(remnant)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 두십니다. 이는 나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남은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대가 끊어짐을 막기 위함입니다. 어떻게하든지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일부는 불에 던져지고 태워짐을 당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4절 상).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자' 중에서도 일부가 태워짐을 당한다니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더욱 끔직한 것은 "...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4절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에다가 사람의 재앙까지 덧입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에게 실컷 맞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에게 또 맞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도 모자라 이제는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불로 죽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끝나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 값이 가족들에게까지 번질 수는 없습니다.

[겔 5:5]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겔 5:6]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
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겔 5:7]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돌
려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
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란함'이 이방인의 '요란함'보다 더 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하여..."(7절 상). '요란함' <하몬>이라는 말은 '외침소리', '소동', '혼란'이
라는 뜻이지만 그 외에도 '풍부'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함으로 인해 요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요란스러워집니다. 오히려 굶주릴 때 잠잠해집니다. 부유해질 때 세상
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굶주릴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의 소리를 시끄럽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고
요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
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지키는 규례조차
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

하지 아니하였으니라”(7절 하). 참으로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겔 5: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겔 5:9]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 지라

[겔 5:10]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겔 5:1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겔 5:12] 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겔 5:13]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겔 5:14]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 거리가 되게 하리니

[겔 5:15]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 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겔 5:16]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겔 5:17]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보다 더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칼을 높이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9절 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 먹는 벌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10절 상).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사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겠고 1/3은 칼로 죽겠으며 1/3은 흠어짐을 당함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러면서 "...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12절 하)고 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또한 칼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기까지 악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기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다 죽임을 당하고 모두 죽임을 당한 후에 몇몇 남은 자 모두 죽임을 당할텐데 언제까지 악을 행하여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15절 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2천년동안이나 세상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살아 남은 자들이 흠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 구걸을 하게 될 것입니다.



6 장

/

예루살렘 멸망 예언

[겔 6: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6: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겔 6:3]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겔 6:4]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겔 6:5]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겔 6:6]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찌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겔 6:7]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산당을 멸할 것을 예언하라 명하셨습니다. "...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3절 하). '산당'<바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산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높은 산에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산당을 헐도록 명하셨습니다.

“[민 33: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
 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 33:52]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민 33:53]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런데 산당을 헐기는 커녕 오히려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일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겠습니까? 이런 악한 행동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그 지역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을의 전통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그 마을의 분위기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규범을 따르면서 교회 모임도 빠지고 심지어 주일예배도 빠지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칼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6절 상). ‘사막’<하라브>이라는 말은 ‘황폐함’, ‘파멸’, ‘죽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읍

이 사막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집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파멸되고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 행하시는줄로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도 함께 주십니다. 축복과 함께 형벌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주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우상이 붙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우상이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7절 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겔 6: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겔 6:9]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겔 6:10]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 남게 하십니다. "...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8절 하). 그래서 그 '남은 자'로 하여금 지난 날 저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9절 중).

우리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해야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겔 6: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겔 6:12]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론즉

[겔 6:13] 그 죽음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

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6:14]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
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
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되풀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내가 여호
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14절 하)는 말씀입니다. 7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서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강조하려
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해야합니다. 그것이 사람된 우리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입니다.



7 장

/

임박한 심판

[겔 7: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7:2]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
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겔 7:3]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겔 7: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7: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
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겔 7:6]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
이 왔도다

[겔 7:7]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겔 7:8]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겔 7:9]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겔 7:10] 불지어다 그 날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
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겔 7:11]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

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겔 7:12]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겔 7:13]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목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으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한번 유다왕국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2절 하). 하나님은 연거푸 '끝났다'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6절 상)고 반복하셨습니다. 유다왕국의 끝이 왔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다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을 알면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끝을 내리려는 것일까요?

[겔 7:14]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겔 7: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겔 7:16]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겔 7:17]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겔 7:18] 그들이 굶은 베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겔 7:19]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겔 7:20]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겔 7:21]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겔 7:22]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겔 7:23]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겔 7:24]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겔 7:25]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겔 7: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겔 7:27]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을 선포하신 까닭은 저들이 교만하였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20절 상). '교만을 품다' <레가온 사마우>라는 말은 '그 마음에 교만을 쌓아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교만을 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교만을 참지 못하신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 <차레미 투아모탐>이라는 말은 '구역질 날 만큼 더럽고 헛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 구역질 날만큼 더러운 행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미운 물건' <쉬쿠츠>은 '정 떨어지는 더러운 물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미운 짓만 골라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며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악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21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래로 거의 2천년 동안 세상의 악인에 의해 온갖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1948년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나라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세의 나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나..."(22절 상).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성소의 진설병은 진설된 떡입니다. 이 '병'(떡)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파님>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얼굴'입니다. 따라서 진설된 떡은 곧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8 장

/

임박한 심판

[겔 8:1]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 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와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겔 8:2]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겔 8: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 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겔 8: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의 환상이 1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서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3절 상).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한 형상을 보았는데 그는 허리 위에는 불과 같고 허리 아래는 단 쇠와 같았습니다. "내가 보닌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2절 상). 칠십인역에는 '불'대신 '사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사람 형상을 보았습니다.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예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처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환상 체험은 그가 포로로 붙잡혀온지 육 년 유 월 오 일에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1절 상). 날짜를 계산해보면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을 때가 기원전 597년이고 6년 6월 5일째를 계산해보니 기원전 592년 8-9월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북향한 문으로 가셨습니다. ‘북향한 문’은 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에스겔을 북쪽의 문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이 악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세력이 북쪽을 통해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북향한 문에서 우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이름은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3절 하).

‘질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의 이름이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 일으킬만한 우상이 성전 북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대표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러한 우상들 외에 이방 나라로부터 가져온 우상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예 우상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 버리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앗수스를 방문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제단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의 모습을 그려서 그걸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만들라 명했습니다.

“[왕하 16:10] 아하스 왕이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하 16: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하 16: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왕하 16:13]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벗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왕하 16:14]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
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
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성전이었다가 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부 왕을 제외한 대
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우상을 더 잘 숭배하기 위해 성전의
일부분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우
상을 위한 제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들이
세운 우상은 하나님께 '질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
시키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께서 그 대적자를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나 1:2]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
시며”

[겔 8:5]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겔 8: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6절 중).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길 원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어쩔 수없이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까? 짐승을 내 쫓듯이 그렇게 쫓을 것입니까? 월세를 못낸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낼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겔 8:7]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겔 8: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겔 8:9]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겔 8:10]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겔 8: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겔 8: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겔 8:13]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뜰 문'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7절 상). 이 '뜰 문'은 성전의 바깥 쪽에 있는 뜰입니다. 그 뜰의 좌우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감추고자 담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쌓은 담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7절 하). 무슨 구멍일까요? 왜 담에 구멍이 나 있을까요?

그 구멍은 사람들을 살피는 구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설치한 구멍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악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보려고 만든 구멍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이런 구멍을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저들의 심령에 구멍을 뚫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심령에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구멍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 명하셨습니다. "... 너는 이 담을 헐라..."(8절 상). 그 담을 헐었더니 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8절 하). 제사장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문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참으로 추악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10절).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사장들의 숙소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혹 당신의 심령에도 이런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는지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방을 열면 혹시 우상들이 가득하지는 않을까요?

에스겔이 그 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곳에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11절 하). 우상을 위해 향로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피운 향로의 연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찬 '담배방'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을 위해 향로 불을 지폈을까요? 저들이 지퍼야 할 향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12절 상). 여기에 사용된 말 중에 '각각'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칠십인 각자를 의미

합니다. 그들은 각자 사용하는 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은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과 함께 하는 방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을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12절 하).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저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들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때 우리 입에서도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겔 8:1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겔 8:15]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가증스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왕들이 세운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숙소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비밀의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보다 더욱 가증스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14절 하). '애곡' <바카>은 단순히 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애절하게 우는 눈물입니다. 도대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저들은 '담무스'(Tammuz)를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담무스'란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 숭배되어온 우상입니다. 담무스의 누이 '이쉬타르'(Ishtar)에 의해 지하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지

상의 식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풍성한 결실을 보장한다는 미신을 믿고서 바벨론 사람들이 담무스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 우상숭배가 이슬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담무스'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보다 더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의 신이었지만 '담무스' 우상은 바벨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사대주의에 의해 비롯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것이면 뭐든지 좋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것이라면 뭐든지 좋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들이 어디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북문'입니다. 북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겔 8: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북쪽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제사장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울려면 하나님께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려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들이 이방 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었

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했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있습니까? 저들이 제사장입니까? 왜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좋습니까? 성도가 목사님 의자에 앉으면 좋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까? 왜 질서없이 행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겁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겔 8: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와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와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와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겔 8: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겔 8: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들이 세운 '질투의 우상'도 끔찍한데 우상과 각종 가증한 것들을 쌓아놓고 즐기는 제사장들의 추악한 모습과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우상을 위해 향불을 지피는 장로들의 모습에 이어 이방나라 우상을 위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끔찍

스러운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니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 가셨습니다. 안뜰에서는 제사의식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양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와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16절 하). 25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되는 나이가 25세입니다.

"[민 8:24]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 세 이상으로
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장 시작 나이는 30세입니다. 하지만 25세부터 시작하여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20세로 그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상 23:24]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 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25세부터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된다면 25명의 제사장은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건한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낮을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지성소의 반대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서쪽을 향해야 합니다.

저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저들이 "...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1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코 위에 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뭇가지는 불을 태우는 원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18절 상).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18절 하).

큰 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두손 싹싹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찬 교회를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

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가정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9 장

/

임박한 심판

[겔 9: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겔 9: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늦 제단 곁에 서더라

[겔 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각기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1절).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저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 위해 성읍의 관할자를 진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섯 사람이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2절 상).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중의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있었으며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여섯 사람'은 악한 자를 죽이는데 사용된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주를 내리게 했던 천사는 두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천사는 일곱명이었습니다.

“[계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런데 그들 중의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하셨습니다. "...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4절 하).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표는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짐

승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과 함께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
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겔 9:5]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겔 9: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
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
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겔 9: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
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
라

[겔 9: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
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겔 9: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
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
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겔 9: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갇으리라 하시더라
[겔 9:11] 보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파괴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6절 상).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과 온역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짐을 당했을 때에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계 2차대전 때에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죽임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죽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6절 중). 파괴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표를 받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렘 15: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
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10 장

/

여호와의 영광 떠남

[겔 10: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겔 10:2]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홀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남보석과 같았습니다. "...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 데..."(1절 상). '남보석'<사피르>는 '사파이어'입니다. 이 남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도 박혀 있는 보석입니다.

"[출 28:17]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출 28:18]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출 28:19]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출 28:20]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 테에 물릴지니"

남보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남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계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남보석’(청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남보석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하나님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2절 상).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베옷 입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구절은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숯불을 움켜 쥐고서 성읍 위에 흘었는데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흘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2절 하). 성읍 위에 숯불을 흘리는 작업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심판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9장에서는 ‘가는 베옷입은 천사’가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그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겔 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러한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통해 우리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숯불을 이스라엘 성읍에 흘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읍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룹들 사이에서' 가져왔습니다. "...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2절 중).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꺼내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룹의 바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불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불은 인간을 죽이고 맵니다. 하나님

의 불은 인간을 살리는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고 인간의 불로 하나님의 불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불을 내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셨습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겔 10: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겔 10:4] 여호와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겔 10: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겔 10:6]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겔 10:7]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3절 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니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입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겔 10:8]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겔 10:9]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겔 10:10]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겔 10:11]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겔 10:12]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겔 10:13]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겔 10:14]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
리의 얼굴이더라

[겔 10: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생물
이라

[겔 10:16]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
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
니하며

[겔 10:17]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
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에스겔은 1장에서 보았던 생물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룹들이 올라
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15절). '그룹'은 곧 '생
물'입니다. 생물이 그룹입니다. 에스겔은 생물이 그룹이라는 사실을 이
렇게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20절 하).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생물과 10장에서 본 생물의 얼굴은 거의 흡사했
습니다. 다만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넋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넋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넋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0:14]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
리의 얼굴이더라”

에스겔 1장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넋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10절).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매우 복잡하고 혼선이 발
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지만 이들
은 함께 나아갔습니다. 몸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룹이 움직이는데
로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11절 상).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처럼 함께 일을 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임무가
있지만 혼선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질서적이면서도 협력적입니
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우
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질서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
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미워합니
다. 서로 욕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원수를 맺습니다. 전혀 천사
같지 않습니다.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피
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겔 10:18]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겔 10: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겔 10:20] 그것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니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겔 10:21]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겔 10:22]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18절 하). 이는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바퀴들도 그룹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마차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습니다. "...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19절 하).

그룹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당

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거죠?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덮고 있지 않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있지 않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 이민생활을 해도 불쌍하고 처량한데 원수들에 의해 붙잡혀 강제적으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전혀 불쌍해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덮을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1 장

/

심판과 회복의 약속

[겔 11:1] 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겔 11: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겔 11:3]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겔 1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겔 11:5]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겔 11:6]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겔 11: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겔 11: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겔 11:9]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겔 11:10] 너희가 칼에 얹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겔 11:11]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겔 11:12]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
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겔 11:13]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
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어올려 성전 동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와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
로..."(1절 상). 에스겔은 그곳에서 백성의 고관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
습니다. "...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1절 하). 백성의 고관들은 총 25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총 24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어
찌면 고관들은 각 지역의 고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 에스겔에게 모여있는 백성의 고관들은 악한 죄를 꾸미는 자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죄를 꾸
미는 자니라"(2절).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의를 품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태만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
니"(3절). 백성의 고관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말로 백성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성읍은 각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관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4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으로 사람을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고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 당할 것임을 확증시키기 위해 '블라다'를 죽이셨습니다. 블라다는 백성의 고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에스겔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에스겔은 "...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13절 하)라고 외쳤습

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곧 부어짐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로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회개없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겔 11:1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1: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겔 11: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겔 11: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흠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뤄집

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흠으셨습니다. "...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흠었으나..."(16절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흠으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15절 중)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찌 자녀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했습니다. 백성의 고관들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은 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이방 나라에 흠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 너희를 흠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17절 하). 실제로 이 일은 이뤄졌습니다. 2천년동안 세계 각 나라에 흠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948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가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겔 11: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겔 11:20]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21]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갇으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의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18절).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란 이스라엘 백성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숭배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멀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하게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만일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행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육신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19절). 이 구절은 영혼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마음’<레브>이 언급된 것은 ‘영’<르아흐>이 마

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육'<바사르>입니다. '육'은 영과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은 혼이 열려야 비로소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이 우선이요 그 다음은 마음이요 마지막으로는 육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과 혼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이 먼저요 육이 다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이 육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은 교양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있는 사람입니다. 있어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해서 모두 영혼육 순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의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영혼육의 순서로 살아갑니다. 영이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있게 동행을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혼영육으

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자신의 뜻이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딤후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겔 11:22] 그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겔 11:23]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겔 11:24]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겔 11:25]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환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곳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로 에스겔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했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선지자.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12 장

/

포로의 표징

[겔 12: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2:2]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겔 12: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겔 12:4]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겔 12:5]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겔 12:6]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겔 12:7]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겔 12:8]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2:9]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겔 12:10]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

고

[겔 12:11]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겔 12:12]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겔 12:13]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겔 12:14]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겔 12:15]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겔 12:16]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2절 하). '반역'<메리>은 문자 그대로 '반역', '반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반역의 행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우상 숭

배가 하나님께 반역이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행위로 나타내도록 명하셨습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3절 상). 그리고 성벽을 뚫고 그들을 따라 옮겨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5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땅을 보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6절 중).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6절 하).

에스겔이 이렇게 행하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9절 하). 에스겔은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10절 하). 여기서 언급된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12절 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힘을 당하여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두 눈이

뽑힘을 당한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의 몇 사람을 남겨 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남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자백하게 하고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16절 하)

[겔 12:17]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2:18]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겔 12: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겔 12:20]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12:2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2: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나

[겔 12: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

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겔 12:24]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겔 12: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 루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겔 12:26]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2:2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겔 12: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1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떨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임을 증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 때문이었습니다. "...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19

절 하).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관계에 있는 조직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들은 이름의 의미답게 이스라엘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서 유행되고 있는 속담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속담은 '날이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선지자의 예언을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비꼬는 투로 말하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담이 그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23절 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속히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28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뤄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뤄집니다.



13 장

/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겔 13: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3: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겔 13:3] 주 여호와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겔 13: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겔 13:5]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와 날에 전쟁에서 건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겔 13: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겔 13:7]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겔 13:8]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13: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2절 상).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2절 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까닭은 저들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3절).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 치셨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저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9절 상).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허탄한 묵시를 봅니다. ‘허탄한 묵시’는 헛되고 공허한 환상을 말합니다. 사실적이지 않는 환상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환상입니다. 저들이 보는 환상은 자기 뜻대로 보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런 허탄한 묵시를 보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역은 거짓된 말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 것을 점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음성입니다.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음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험’<하야>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취함’<보>은 ‘받아드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이의 심령 깊숙히 말씀이 스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성취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는 그 어떠한 증험이나 성취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겔 13:10]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겔 13:11]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겔 13:12]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3: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겔 13:14]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겔 13:15]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겔 13:16]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회칠한 담벼락과 같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10절 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담벼락에 회칠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들이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10절 상).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주로 바벨론에 끌려온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유수기간이 곧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

입니다.

예수님도 회칠한 사람에 대해 질책하셨습니다.

“[마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척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거짓된 담벼락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진 담벼락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데 그 저주가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십니다. “...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13절).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멸절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양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

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감추려고 담벼락에 회칠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당장에 임할 것인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목회자는 자신도 망하게 만들지만 백성들도 망하게 만듭니다.

[겔 13:17]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겔 13: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겔 13:19]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겔 13:20]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며

[겔 13:21]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13: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겔 13: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거짓된 여선지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18절) 여선지자들입니다. '부적'<케세트>은 '띠'입니다. 이들은 손목에 띠를 묶고서 예언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신령해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마치 목회자가 신방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목에 걸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자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수건' <미스파하>은 머리에 쓰는 베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케 하기 위해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예언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수건을 올려놓는 행위나 손목에 차는 띠같은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옷을 입고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모습을 취하지 않아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령해 보이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여선지자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 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19절). 선지자는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선 안 됩니다.



14 장

/

우상숭배자들의 심판

[겔 14:1]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겔 14: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4: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겔 14: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겔 14:5]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겔 14: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겔 14: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겔 14: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 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1절).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 중의 대표자입니다.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가 하나님의 대표자인 선지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장로가 선지자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목회자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무슨 일로 저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게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3절 상). ‘들이다’<알라>라는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뭔가를 바치기 위해 우상 제단에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저들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3절 중). ‘걸림돌’<미크솔>은 ‘넘어지게 하는 것’, ‘장애물’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여 죄를 짓는 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그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백성은 누구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자녀가 어찌 잘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성

도가 어찌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3절 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벌을 가하실텐데 저들이 섬긴 우상의 수효대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4절 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8절 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저들이 왜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어찌하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7절 하).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찾지만 하나님을 위해 오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는 우상을 위하는 자입니다. 우상이 필요한 까닭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

자가 우상입니다. 열심히 배우자를 섬기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남편에게 찾아와 그 남자를 위해 돈을 달라고 하면 남편이 기분 좋게 돈을 주겠습니까?

“[사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겔 14:9]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겔 14:10]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겔 14:11]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을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만일 선지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9절). '유혹을 받다' <파타>라는 말은 '넓다'(wide)라는 말입니다. 너무 넓어서 들어올게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넓어서 죄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선지자의 마음이 넓어 죄가 그리 쉽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마음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문단속을 잘해야 도둑이 안 들어오듯이 마음 단속을 잘해야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큰 유혹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죄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재물을 주고 사람이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 나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9절 중). 이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선지자가 죄를 범했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다는 말은 성도 입장에서는 사뭇 기분 나쁜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의인이라는 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돈

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식의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전할 때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여전히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여전히 성도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할지라도 성도의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훼방하는 심각한 죄를 지을 경우는 성도의 자리도 박탈당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죄는 성도의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계산했다면 어느 누구도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겔 14:12]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4:13]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겔 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4:15]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겔 14:16]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14:17]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겔 14:18]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겔 14:19]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겔 14: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14:2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4:22]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겔 14:23]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

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연거푸 반복하십니다(14절, 16절, 18절, 20절). 네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네가지 중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입니다. "...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21절 상). 오늘날에도 이러한 형벌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망하고 기근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에 망하고 전염병에 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 세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들입니다. 그 당시 에스겔 시대에도 이미 다니엘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매우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환란 중에 저들의 생명만 부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14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신앙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없고 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까지 구원 받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없는 자녀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시어 자녀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자녀가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22절 상).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가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자녀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들의 자녀들 중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들은 '남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남은 자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 장

/

포도나무의 비유

[겔 15: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5:2]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겔 15:3]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겔 15:4]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겔 15:5]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겔 15: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겔 15:7]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겔 15: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2절 상)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기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야말로 풍성함과 기쁨 그 자체

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빼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3절 상) 말씀하시면서 열매없는 포도나무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땀감으로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땀감이 되게 한것 같이...”(6절 중). 열매없는 포도나무가 땀감용으로 사용된 것처럼 열매없는 예루살렘 백성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6절 하).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적하셔서 그들을 불로 사르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7절 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백성을 불로 사르시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7절 하).

사람들은 불에 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땀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열매없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16 장

/

예루살렘의 배신

[겔 16: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6:2]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겔 16: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겔 16:4]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낳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겔 16:5]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폭로케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아직 포로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오히려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폭로케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꺼려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3절 하). '아모리 사람'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 중 한 무리들로서 일찍이 가나안에 거주해서 살았던 가나안의 토착민입니다. 이들은 헷 족속과 더불어 가나안 원주민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러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 중에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이방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 네가 낳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로 태줄을 끊습니다. 산파는 그 아

이에게 소금과 물과 기름을 뿌려 문지르고 7일동안 강포로 쌓아둡니다. 그 이후 다시 기름을 바르고 7일동안 강포로 쌓아둡니다. 이것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태줄을 자르지 않고서 그냥 문 밖에 내버려 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자 아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신 까닭은 버려진 여자 아이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버려짐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5절 하).

어쩌면 우리 중에는 여자 아이처럼 태줄도 자르지 않은채 길바닥에 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수로 먹이시고 기름으로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포가 되셔서 저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겔 16:6]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겔 16:7]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이 하였던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겔 16:8]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겔 16:9]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겔 16:10]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
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겔 16:11]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겔 16:12]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
리에 씌웠나니

[겔 16:13]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겔 16:14]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
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부터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 네가 피
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6절 상). 누군가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피투성이 갓난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스라엘
을 아름답게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

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덮어준 것입니다. "...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8절 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덮으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후의 지위까지 올리셨습니다. "...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13절 하). '왕후의 지위'는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왕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 실상은 '왕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까지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명성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14절 상). 우리의 명성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당신의 명성이 믿지 않는 자에게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왕의 자녀이고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명성이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소리와 당신의 얼굴색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왕의 신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겔 16:15]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겔 16:16]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겔 16:17]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겔 16:18] 또 네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겔 16:19]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16:20]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겔 16:21]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겔 16:22]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겔 16:2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겔 16:24]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겔 16:25]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겔 16:26]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겔 16:27]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겔 16:28]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겔 16:29]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겔 16:30]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겔 16:31]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겔 16:32]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겔 16:33]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

니

[겔 16:34]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음을 행한 것입니다. "...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15절 하).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했으면 이스라엘의 몸이 지나가는 사람의 몸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과 행음을 행했던 이유는 저들의 화려했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했음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15절 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랑으로 섬기며 최선의 삶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들은 저들의 화려했음과 명성으로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음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것은 간음을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은 "...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16절 중).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산당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잠을 자야하는 침대에서 다

른 남자와 더불어 잠을 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는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저들 스스로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자녀까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20절 상).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22절 하).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30절 하).

[겔 16:35]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겔 16:3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겔 16:37]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겔 16:38]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겔 16:39]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겔 16:40]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겔 16:41]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겔 16:42]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겔 16:43]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39절 상).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집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목전에서 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과 앗수르에 의해 서로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도 고난을 당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의 숨통이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1948년에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였지만 지금도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행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행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수천년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겔 16:44]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겔 16:45]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헛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겔 16:46]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겔 16:47]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겔 16:48]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겔 16:49]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겔 16:50]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겔 16: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겔 16:52]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겔 16:53]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어

[겔 16:54]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겔 16:55]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

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겔 16:56]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겔 16:57]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겔 16:58]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 의 말이니라

[겔 16:59]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며"(45절 하). 우상을 섬기는 부모입니다. 좋지 못한 혈통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은 사마리아요 동생은 소돔입니다. "네 형은...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소돔이라"(46절). 사마리아와 소돔은 악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이 두 지역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만연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 두 지역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47절 하).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부패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을 낱알히 밝히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
 지 않았으며 거만하였습니다. 이들은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
 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49-50절). 그런데 사마리
 아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51절 상). 이 말씀은 이스
 라엘의 죄악이 사마리아보다 곱절로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스
 라엘의 행위가 악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 것일까요? 아예 하나
 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걸까요?

[겔 16: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겔 16:61]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
 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
 이 아니니라

[겔 16: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
 니

[겔 16: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
 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60절 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사랑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맘 같아선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 이뤄질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 언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유대인의 수는 대체로 약 30,000명에서 40,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약 900만 명) 중에서 0.3%에서 0.5% 사이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전쟁의 문제만이 저들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삽니다. 그래야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스라엘의 딸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61절 중).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은 아닙니다. "...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61절 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

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내가 여호와인줄 메가 알게 하리니"(62절 하).

이스라엘은 참으로 못된 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지극히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형제들도 사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만 일삼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사악한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17 장

/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겔 17: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7: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겔 17: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술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겔 17:4]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겔 17:5]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겔 17:6]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겔 17:7]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겔 17:8]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겔 17:9]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겔 17:10]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겔 17:1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7:12] 너는 번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 가고

[겔 17:13]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겔 17:14]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겔 17:15]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겔 17:16]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겔 17:17]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 주지 못하리라

[겔 17:18]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겔 17:19]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겔 17:20]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겔 17:21]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냈습니다.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2절). 그 수수께끼와 비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리시기 위해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진리를 오래도록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 13:10-11]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역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리의 독수리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첫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솟은 큰 독수리였습니다. “...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솟은 큰 독수리가...”(3절 중).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용한 독수리의 의미를 밝혀 주셨습니다. “...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12절 하).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과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믿기 어려운 절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나라에 똑같이 전해진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이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첫 독수리를 언급하신 후에 두번째 독수리를 언급하셨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7절 상).

이 두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첫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그 연한 가지 끝을 옥토에 심었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5절 상). 옥토에 심기운 가지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심기운 나무가 잘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6절 상). 바벨론의 보호를 받은 시드기야 왕은 어느 정도 예루살렘을 부강한 나라로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7절 하). 이 독수리는 바로 애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과 손을 잡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임을 예레미야는 목이 터지라고 선포했습니다.

"[렘 37:7]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

아가겠고

[렘 37:8]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으며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16절 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도무지 정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도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합니다.

"[잠 29:18]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하존>라는 말은 ‘환상’이나 ‘예언’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뜻합니다.

[겔 17:2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

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겔 17: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겔 17: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로 주려니와...(61절 중).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은 아닙니다. "...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61절 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내가 여호와인줄 메가 알게 하리니"(62절 하).

이스라엘은 참으로 못된 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지극히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형제들도 사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만 일삼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사악한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18 장

/

개인의 책임

[겔 18: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8: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나

[겔 18: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겔 18: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겔 18:5]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겔 18:6]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겔 18:7]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겔 18:8]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겔 18:9]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개인의 형벌은 개인의 죄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 때문에 내게 형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부

모의 죄값으로 인해 받는 형벌이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2절).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속담처럼 유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남유다 왕국의 말기 때에 형성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속담으로 사용된 것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생 문제들을 자신의 조상들의 죄값으로 돌리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쓰라린 고통은 조상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자식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된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까닭입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
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의 지은 죄가 자손 삼사 대까지 전해진다는 십계명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로 인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음행을 저질렀다면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창조된 우리 역시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손들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계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저주아래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러한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3절 하). 이 말씀은 모든 형벌은 개인의 죄값에 의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를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죄를 범하였으면 어머니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4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겔 18:10]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겔 18:11]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겔 18: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겔 18:13]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겔 18:14]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겔 18:15]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겔 18:16]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겔 18:17]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겔 18:18]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겔 18: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겔 18: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

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형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18절 하).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19절 하).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의 죄값에 대한 형벌이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20절 상). 오직 범죄한 사람이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20절 중)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 형벌을 치르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20절 하). 내가 의인이 될 때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 될 때 악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는 상과 형벌은 그 누구 때문에 받거나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겔 18:21]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겔 18:22]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겔 18:23]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8:24]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겔 18:25]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겔 18:26]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겔 18:27]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겔 18:28]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겔 18:29]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

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나 너
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범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리..."(22절 상). 그
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의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
다. "...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23절 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지 않게 되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이라 할
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이었다가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히 행하는 가증
한 일들을 행하면 이 사람은 그 지은 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의
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26절). 이전에 의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떤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현재 악인의 삶을 산다면 반
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합
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29절 상). 하나님의 질서가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업적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파도에 쓸려가버린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착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것이 지금 당신의 형벌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겔 18:30]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겔 18:3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겔 18:3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30절 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30절 중).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회개가 지금의 용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회개 했을지라도 그 회개는 과거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31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31절 하)며 걱정스러운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전해져야 합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열심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의 회개가 오늘의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회개가 없으면 오늘 당신은 죽습니다.



19 장

/

이스라엘 왕들의 애가

[겔 19:1]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겔 19:2]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나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겔 19:3]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겔 19:4]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겔 19:5]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
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겔 19:6]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
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겔 19:7]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
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겔 19:8]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겔 19:9] 우리에게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절망스러운 나라의 처한
상태를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짓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1절). 이스라엘 고관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가를 비유적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애가의 시작은 ‘암사자’가 나옵니다. “...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2절 상).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사자입니다.

“[창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키웠는데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3절 상). 그 새끼는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그는 동족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살해를 자행한 왕이었습니다. “...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3절 하). 그는 이방 나라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끌려 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여호아하스 왕의 아버지인 요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요시아를 죽인 이유는 그가 바로느고가 앗수를 치러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느고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 바로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4절).

암사자는 또 다른 새끼 하나를 골랐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5절).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여호야김 왕'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당시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패퇴시키고 근동 지역의 패권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여호야김 왕은 여러 이방 나라들과 좋은 교류를 가졌습니다. "...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여..."(6절 중).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학대하며 악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6절 하). 그는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셨습니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7절 상). 결국 이방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의 힘을 입어 유다 왕국을 공격하였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하 24:1]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왕하 24:2]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역시 아

버지 뒤를 이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하 24:9]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의 힘을 입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18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겨우 3개월만에 포로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겔 19:10] 네 피의 어머니는 물 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겔 19:11]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겔 19:12]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겔 19:13]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겔 19:14]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어 유다 왕국이 처참하게 이방 나라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을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10절 상). 언뜻 보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게 보여서 그 중의 제법 규모 있고 뛰어나 보이는 굵은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가지가 뽑힘을 받아 던짐을 당하고 말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키가 굵은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의 모양새가 제법 있어보이는 왕이어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동풍에 열매가 말라지고 강한 가지들이 꺾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12절 하).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 왕국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남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14절 상).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을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로 인해 당신의 가정이 태워질 수 있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은 한 나라를 송두리채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 장

/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

[겔 20:1]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겔 20:2]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0:3]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20:4]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1절 상)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온 날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할 때 이 날은 기원전 591년 7-8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이 날에 “...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1절 중) 에스겔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3절 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장로들이라면 이스라엘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장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로들에게 그 어떠한 말씀을 말할 수 없으

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어느 때라도 돈만 주면 점을 쳐 줄 것입니다. 무당도 돈만 주면 굿을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신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대언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4절 상). '심판하다' <하티쉐포트>라는 말은 '판결을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찾아온 장로들에게 저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강력한 경고의 음성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못된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꾸녕을 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저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런 속마음을 알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걸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

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비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마 7: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यो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
을 것이니라”

[겔 20:5]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
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
님이라 하였노라

[겔 20:6]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
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겔 20:7]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
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
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겔 20:8]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
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겔 20:9]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 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5절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을 택하여 배우자로 삼고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결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스라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6절 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혼부부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달콤함과 행복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6절 중반 부분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6절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위해 살만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7절 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취하여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 (8절). '반역하다' <아메루>는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행위를 '반역행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8절 하).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9절 중).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

하였음이라”(9절 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
을 수 없으리라”

[겔 20: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겔 20: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겔 20:12]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겔 20: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겔 20:14]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

[겔 20:15]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겔 20:16]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겔 20:17]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겔 20:18]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겔 20: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겔 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겔 20:21]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

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
라 하였으나

[겔 20:22]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

[겔 20:23]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흠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헤치리라 하였나니

[겔 20:24]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
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
함이며

[겔 20:25]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
례를 주었고

[겔 20:26]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
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
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
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 내 안식일을 주어 그
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12절 하).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키
다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번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신부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13절 중). 결국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15절 하).

두번째 신부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21절 중). 결국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 흠으셨습니다. “...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흠으며...”(23절 중). 두번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은 2천년 동안 이방인에 의해 흠어짐을 당했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침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번째 신부입니다. 1948년에 독립하여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중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민

죽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죄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우상 숭배 중 가장 끔찍한 행위는 인신제사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26절 상). 몰렉 숭배는 자녀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몰렉 신상은 불이 타오를 때에 그곳에 자녀를 던져 죽이는 제사의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녀를 바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몰렉 숭배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 나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행 7:42]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행 7:43]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벌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 있을 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몰렉 숭배를 행해왔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를 받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몰렉 숭배를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몰렉 숭배의 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도 계속해서 몰렉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던 것입니다.

”[왕상 11: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상 11: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러한 몰렉 숭배 행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몰렉 숭배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나라의 법이 인신제사를 강하게 금하고 있어서 드러내놓고 인신제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숨어서 인신제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겔 20:27]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겔 20:28]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였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겔 20: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겔 20:30]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겔 20:31]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겔 20:32]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을 사랑하

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방인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애
걸했습니다. "...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32절 상).

남편된 하나님을 놔두고 외간 남자인 이방인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하
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간구를 허락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철부지 못된 행동을 그냥 놔두
지 않았습니다. "...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32절
하).

혹 당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
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가요? 우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
나님이 그렇게 싫습니까?

[겔 20:3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겔 20:34]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
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겔 20:35]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겔 20: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
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20:37]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

려니와

[겔 20:38]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겔 20:3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겔 20:4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겔 20:41]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흠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겔 20:42]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겔 20:43]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겔 20: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보아내고"(34절 하). 죄악으로 인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고국 땅에 돌아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37절).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의 숫자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기십니다.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언약의 줄로 묶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의 줄입니다. 그 줄을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줄을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겔 20:45]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0:46]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겔 20:47]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겔 20:48]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겔 20:49]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46절 상). '남쪽'은 유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만 남아 있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앗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멸망 당했습니다. 남은 것은 유다 왕국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46절 하).

하나님은 유다 왕국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태운다 하셨습니다. "...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47절 중). 하나님의 불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그슬리게 할 것입니다. "...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47절 하).

실제로 유다 왕국에 불이 임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임한 불이 모든 백성의 얼굴을 그슬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48절 하).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48절 상).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불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물을 인식했습니다. 물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물이 온 세상을 덮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의 모습만 보더라도 물이 세상을 덮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물이 세상을 덮을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불이 이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태워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땅이 불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불에 그슬러지고 있습니다.



21 장

/

여호와의 칼

[겔 21: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1: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겔 21: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겔 21: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겔 21:5]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겔 21:6]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겔 21:7]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2절 하). '소리내어' <나타프>라는 단어는 '물방울이 떨어지다', '뚝뚝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선명하

게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선명한 소리로 또 박도박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듣고 알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집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3절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빼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까요? 혹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3절 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죽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일 때까지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입니다. "...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5절 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6절 중). '끊어지듯' <쉬브론>이라는 말은 '산산이 부서짐', '분쇄', '파괴'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리가 산산이 부서진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다' <아나흐>는 말은 '신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슬퍼하고 있는 에

스겔을 찾아와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물을 때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하라 명하셨습니다. "...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7절 중). 하나님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손이 약하여지고 영이 쇠하여져서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7절 중).

'마음'과 '손, 무릎'과 '영'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이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소문은 귀로 들립니다. 귀는 육적인 것이지만 귀에 전달되는 재앙의 소문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린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귀로 전해들은 재앙의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녹이다' <마사스>라는 말은 '녹다'라는 뜻 외에도 '사라지다', '약해지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번영과 축복이 가득찬 환경입니다. 잘 살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녹아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리는 소리를 막으십시오. 재앙의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잘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이간질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귀를 막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지

킬 수 있습니다. 결코 마음이 녹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졌을 때 두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손'이 약해졌습니다. 손이 약해졌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면 손을 멈추게 됩니다. 열심히 설것이 하는 주부도 마음이 약해질 때 설것이를 하지 않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때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누구나 게을러집니다. 손이 멈추게 됩니다.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세번째 반응은 각 영이 쇠하여 지는 것'입니다. '쇠하다'<카하>라는 말은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밝아야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영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촛불이 곧 꺼질려고 할 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이 희미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밝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밝아집니다.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네번째 단계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현상은 병든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병든 사람은 무릎부터 아픕니다. 영과 혼과 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릎부터 약해집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재앙의 소문 때문에 생깁니다. 사고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재앙의 소문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의 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앙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소문'<세무

아>이라는 단어는 '소식', '소문', '보고', '메시지'입니다. 좋지 못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도 재앙의 소문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안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타락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곧 전쟁이 터질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모든 소리가 재앙의 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영혼육의 상처를 받고 질병걸린 사람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영혼육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된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달리셨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의 희망이 되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거할거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겔 21:8]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1:9]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와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겔 21:10]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 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엷신 여기는도다

[겔 21:11] 그 칼을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겔 21:12]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겔 21:13]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21: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겔 21:15]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겔 21:16]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겔 21:17]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칼집에서 뽑혔으며 결국 이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히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12절 중).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관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13절 상). '시험하다' <바한>라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질 것을 입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시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진다면 어찌할까..."(13절 중). '규'라는 말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업신여기는 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교만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교만해졌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로 멸망 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14절 중). 한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이나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칼을 휘두르셔도 지리멸절할 것인데 두세 번씩이나 칼을 휘두르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실로 참혹스럽고 끔찍한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

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걱정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칼아 모이라..."(16절 상). 어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칼을 모으실까요? 선민으로 택한 민족을 쓸어 없애려고 어찌하여 칼을 모으시는 것일까요? "...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17절 중).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가득찼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겔 21:1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1:19]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겔 21:20]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겔 21:21] 바벨론 왕이 갈랫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겔 21:22]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겔 21:23]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겔 21:24]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

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겔 21:25]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겔 21:2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겔 21:27]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쥐어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칼을 받아 마음껏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길은 두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골장 북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동편쪽으로 우회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20절). 바벨론 왕은 갈랏길에서 점을 쳤습니다. 그는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간의 상태를 보고서 어느 길로 공격할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21절 하).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전쟁할 때 화살들을 흔들어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희생제물을 죽여 간을 꺼내어 간 색깔

을 보고서 공격할 때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우상숭배를 행하는 바벨론 왕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의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리필처럼 계속해서 형벌이 가해집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27절 상). 맞은 데를 또 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 뜨리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길 때까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스라엘에 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당신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에 이스라엘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겔 21:28]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 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겔 21:29]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술을 하는 자가 너를 중상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최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겔 21:30]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겔 21:31]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겔 21:32] 네가 불에 쏘고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28절 상).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을 때 사실상 암몬도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암몬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몬은 예루살렘을 능욕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오히려 암몬은 개선가를 불렀습니다. 남의 집에 불이 날 때 기쁨으로 불구경하는 경우와 같았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같이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들은 거

짓 복술로 기뻐했습니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술을 하는 자가 너를 중상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29절 상).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도록 거짓 복술을 행하였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었고 오히려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 번영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결국 암몬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불과 4년만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기원전 582년).

하나님은 암몬의 최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32절 중). 암몬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하에 들어갔습니다. 멸망 이후 암몬 사람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으며, 그들의 정치적 독립은 상실되었습니다. 암몬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비웃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앙을 슬퍼해야 합니다. 재앙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22 장

/

예루살렘의 죄목

[겔 22: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2:2]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겔 22:3]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
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
럽히는 성아

[겔 22:4]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
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
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 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겔 22:5]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
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겔 22:6]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
데에 있었도다

[겔 22:7]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겔 22:8]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
며

[겔 22:9]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인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겔 22:10]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겔 22:11]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겔 22:12]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22:13]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겔 22:14]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겔 22:15] 내가 너를 못 나라 가운데에 흘으며 각 나라에 헤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겔 22:16]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한번 이스라엘을 심판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인자야 네게 심판하려느냐...”(2절 상).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2절 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

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크면 클수록 가증스러운 일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당신은 스스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3절 하).
2.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음..."(7절 상).
3.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7절 중).
4.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7절 하).
5. 성물을 업신여겼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8절 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6.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8절 하).

7.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9절 상).
8. 우상을 섬겼습니다. "...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9절 중). 산 위에서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9.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으며"(9절 하). 음행에 대한 내용 중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음행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10절 상). 이것은 부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10절 하). 생리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사항입니다(레 18:19, 레 20:18).
 - 3) 이웃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11절 상).
 - 4) 며느리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11절 중).
 - 5) 형제 자매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11절 하).
10. 뇌물을 받았습니다.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12절 상).

11. 변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12절 중). '변돈' <네쉐크>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 <타르비트>는 원금에다 더한 이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변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25:36-37, 신 23:19-20).
12.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12절 중).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혹 당신의 삶에 이러한 가증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겔 22:17]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2:18]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쉯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겔 22:1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겔 22:20] 사람이 은이나 쉯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겔 22:21]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겔 22:22] 은이 풀무 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18절 상). 우리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같은 존재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있어서 찌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찌꺼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증한 일을 일삼는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정신을 팔았습니다.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취미 삼았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꺼기'라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찌꺼기를 한데 모으십니다. "...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19절 하). 하나님께서 한데 모은 찌꺼기를 풀무 속에 넣어 녹이십니다. "...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20절 하). 많이 뜨거울 것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뜨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뜨겁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풀무에 던져진 찌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겔 22:23]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2:24]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겔 22:25]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
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겔 22: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
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
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
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겔 22:27]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
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겔 22:28]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겔 22:29]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겔 22: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

였으므로

[겔 22:31]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가 된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물론 원초적인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첫번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행위를 반역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도다..."(25절 상).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되어 예언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규칙과 제사장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26절 상). 마치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세번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27절). ‘이리’<제에브>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육식 동물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는 이리가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혹 당신은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역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혹 당신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도의 것을 빼앗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뜻에 맞추도록 성도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3 장

/

오홀라와
오홀리바

[겔 23: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3:2]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겔 23:3]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겔 23:4]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야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겔 23:5]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겔 23:6]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겔 23:7] 그가 앗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겔 23:8]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 때부터 행음함을 마지아니하였느니라

[겔 23:9]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겔 23:10]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2절).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4절 상). 오홀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사마리아입니다. 오홀리바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4절 하). 오홀라의 자녀가 사마리아인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오홀리바의 자녀가 예루살렘인 것은 남유다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홀라가 행음하여 앗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5절). 결국 오홀라는 행음으로 인해 우상으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7절 하).

결국 오홀라는 행음으로 인해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녀가 빼앗기며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10절 상).

[겔 23: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 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겔 23:12]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했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겔 23:13]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겔 23:14]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겔 23:15]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싸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겔 23:16]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겔 23:17]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겔 23:18]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겔 23:19]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겔 23:20]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겔 23:21]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런데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 형보다 더욱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11절 중).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람과 행음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17절 상).

오홀라와 오홀리바 모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외간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젊었을 때부터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19절). 이스라엘이 잘 하는 것은 행음입니다. 행음을 저지르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최고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게 그 능력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좇아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는 저들처럼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세상의 품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겔 23: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겔 23:23]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겔 23:24]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겔 23:25]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겔 23:26]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겔 23:27]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겔 23:2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겔 23:29]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의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겔 23:30]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겔 23:31]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겔 23:3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겔 23:33]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겔 23:34]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23:3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홀리바에게 질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25절 상). 오홀리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연애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오홀리바의 코와 귀를 깎으셨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자녀를 빼앗고 집을 불살랐습니다. “...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엮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25절 하). 오홀리바가 연애했던 바벨론에 의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 오홀리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최후는 아픔 뿐입니다.

[겔 23:36]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겔 23:37]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겔 23:38]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겔 23:39]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겔 23:40]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겔 23:41]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겔 23:42] 그 무리와 편히 지껄이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겔 23:43]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겔 23:44]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겔 23:45]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겔 23:4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겔 23:47]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겔 23:48]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겔 23:49]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더러 저들을 심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36절). 선지자는 마땅히 백성의 악행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은 영영 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악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우상과 행음한 일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37절 상). 또한 사람을 학대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손에 묻혔으며..."(37절 중).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들은 우상과 행음하여 낳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화제로 바쳤습니다. "...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37절 하). 어찌하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녀를 불 속에 던질 수 있습니까? 완전히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외에 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행음한 후에 당일날 버섯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39절 상). 어찌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간음을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을 언제까지 저질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46절). 저들이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음행의 형벌은 음행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에게 의해 일어납니다. 음행의 현장에 함께 뒹굴렀던 사람에게 의해 오홀라

와 오홀리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47절).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녀도 죽게 될 것입니다. 재산도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는 건 죄뿐입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ash)가 아니라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죄’(sin)뿐입니다.



24 장

/

끓는 가마의 비유

[겔 24:1]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4:2]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겔 24:3]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겔 24:4]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겔 24:5]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겔 24: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겔 24:7]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겔 24:8]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겔 24: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겔 24:10]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겔 24:11]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못

을 달궂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겔 24:12]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겔 24:13]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겔 24:14]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년 10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대기입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할 때 그 날은 기원전 589년 12월과 1월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 때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마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마에 물을 붓고 양 떼 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뜯 후에 좋은 덩이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푹 삶으라고 명하셨습니다. "...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5절 하). 뼈가 무르도록 삶는 것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더욱 세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9절 하).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더욱 강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뜨겁게 하여 가마솥을 달구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 그 가마의 솥을 달구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11절 하). 국물을 쪼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멸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국물을 쪼일지라도 가마솥의 녹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12절). ‘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란 뜻은 예루살렘 성읍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이 더럽습니다. 뜻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더러운 성읍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더러워짐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하심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어진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13절 하).

하나님은 더러움을 참지 못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노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힌다면 하

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겔 24:1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4: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겔 24: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생명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16절 상). 설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아래 인도받는 것입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16절 하). 제
사장은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죽을 때 슬퍼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사
람이 죽었을 때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
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
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레 21:4]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
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애곡
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레 21:10]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
을 찢지 말며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
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겔의 직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대제사장보다 더 한 수 위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보
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에스겔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
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가족 외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 가족의 죽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
니다. 만일 당신이 에스겔이라면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하지 않을 것입
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앙을 보여줍
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겔 24: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
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겔 24: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
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겔 24: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르시되

[겔 24: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러지게 할지라

[겔 24:22]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겔 24:23]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겔 24:24]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겔 24:25]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겔 24:26]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 주지 아니하겠느냐

[겔 24:27]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의 아내가 죽자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

라”(17절 하).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그런 태도에 의아해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온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19절).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문상을 온 사람들에게 그 의도하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리지게 할지라”(21절).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으니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더럽힘을 당할 것이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울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알려 주시려고 일부러 에스겔에게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23절). 자녀가 죽임을 당했지만 자녀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멸망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하게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24절 상). 만일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이 부모가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까요?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정결과 거룩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25 장

/

이방 민족 심판

[겔 25: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5:2]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겔 25:3]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종다 하였도다

[겔 25: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겔 25:5]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25: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겔 25:7]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24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 기록되었는데 25-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심판의 경고를 받은 나라는 '암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을 당했을 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종다 하였도다"(33절 하). 암몬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6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해당함을 보고서 그것을 기뻐하는 행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의 고난당함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암몬 족속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족속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5절 상). '랍바'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던 랍바가 황폐해져서 낙타의 먹이가 되는 초목지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바벨론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4절 상). 결국 암몬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암몬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주어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7절 상). 물론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속되어져 왔지만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10절 하). 이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심각한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 그나마 2천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겔 25: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
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겔 25:9]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뻔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겔 25:10]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
려니와

[겔 25:11]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25:1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겔 25:1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
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
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앞드러지리라

[겔 25: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
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압과 세일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유다 족속
을 향하여 안 좋은 말을 발설했기 때문입니다. "... 유다 족속은 모든 이
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8절 하). 유다 족속이 이방나라와 다름이 없
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유다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여느
이방 나라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들의 부정적인 말을 싫어하셨습니다. 만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 내리려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암몬 족속과 같은 혈통입니다. 롯의 첫째 딸이 아버지 롯과 동
침하여 낳은 자녀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암몬’은 둘째 딸이 롯과 동침
하여 낳은 벤암미의 후손입니다.

“[창 19: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창 19: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창 19: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
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세일’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서 차지한 지역 이름입니다.

“[창 36:19]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
러하였더라

[창 36:20]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창 36:21]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 세일(에돔) 족속을 암몬 족속처럼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10절 상). 모압 족속은 한때 암몬 족속처럼 바벨론 군대에 예속되어 유다 왕국을 침공했으나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국가 형태로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 왕국을 정복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보다는 오히려 미운 감정에 의해 보복심리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야곱에 의해 에서의 축복권이 빼앗긴 것을 계속해서 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못된 마음을 가

지고 있던 에돔을 멸망시켰습니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13절).

우리도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품고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겔 25: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겔 25: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겔 25:17]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블레셋'도 심판하셨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17절 상).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형벌을 내리신 까닭은 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했으며 진멸하려고 침략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15절).

우리도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멸시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상대

방을 해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 장

/

두로의 심판 예언

[겔 26:1]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26:2]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겔 26: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겔 26: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겔 26:5]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될 것이요

[겔 26:6]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겔 26: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겔 26:8]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추는 것이며

[겔 26:9] 공성퇴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찢을 것이며

[겔 26:10]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

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겔 26:11]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앞드러뜨릴 것이며

[겔 26:12]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겔 26:13]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겔 26:14]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두로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무려 네 장에 걸쳐 두로의 심판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해변을 따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로(티레, Tyre)는 현재 레바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과 항해 기술로 유명했으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뛰어난 선박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무역하였

고, 두로는 이러한 무역 활동의 핵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무역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1절 상)에 에스겔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기원전 597년부터 11년 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 그 때는 기원전 586년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잘못을 언급하셨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잘못을 행했습니다. 두로가 행한 잘못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기뻐한 것입니다. "...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2절). 두로가 잘못된 것에 대해 성경의 표현은 오직 한 단어입니다. '아하' <헤아흐>.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탄사는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결국 본문에는 달리 언급된 말은 없지만 두로가 예루살렘 멸망 당하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던 까닭은 그것 때문에 저들이 충만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더불어 무역 사업을 함께 해왔는데 동업자인 예루살렘이 빠지게 되니 두로 혼자서 모든 이익을 독차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

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로는 바벨론과 동맹국들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3절 하).

하나님은 두로의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12절 상). 두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로는 기뻐하는 집이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처럼 기뻐하는 집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두로처럼 모든 것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두로처럼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통해 두로가 처참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두로를 13년 동안이나 포위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7개월이나 포위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겔 26: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얹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겔 26:16]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겔 26:17]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향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
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겔 26:18]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
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겔 26:1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
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겔 26:20]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
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
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겔 26:21]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하나님은 두로가 무너지는 소리로 인해 모든 섬이 진동 할 것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
겠느냐..."(15절 상). 얼마나 심하게 멸망을 당했으면 두로의 모든 섬이
진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하면 두로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하나님
의 두렵고 큰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두로가 멸망을 당할 때 모든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과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할 것입니다.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16절 상). '모든 왕'이란 매우 부유한 상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축적한 부를 잃어버리고 가난한 평민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심한 심판이 임했으면 두렵고 떨림의 옷을 입었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두로를 그렇게 심하게 심판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21절 상).
 하나님의 두렵고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당신의 삶이 두로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는지요?



27 장

/

두로의 영화와 멸망

[겔 27: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27:2]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겔 27:3]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겔 27:4]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겔 27:5]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겔 27:6] 바산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음이여 깃딤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겔 27:7]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베로 돛을 만들어 기를 삼았음이여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겔 27:8]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겔 27:9]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겔 27:10] 바사와 룯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겔 27:11]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겔 27:12]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통상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13]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14]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

[겔 27:15]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16] 너의 제조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음이여 남보석과 자색 베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베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17]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민닛 밀과 과자과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18]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음이여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겔 27:19]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음이여 백철과 육계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겔 27:20] 드단은 네 장사가 되었음이여 탈 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겔 27:21]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에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겔 27:22] 스바와 라아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됨이여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23]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앗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겔 27:24]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겔 27:25]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음이어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2절). 하나님께서 두로를 위해 애가를 지으라고 명하신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두로가 멸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소중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후손들이 두로가 왜 멸망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의 잘못된 행위를 기억해야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두로는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4절 하). 두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어...”(4절 상). 지금의 두로(Tyre)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로는 육지 두로와 섬 두로가 두 개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 육지와 섬 사이에 거대한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제방 옆에 침전물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여서 오늘날에는 육지와 같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무역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어서 수많은 나라와 여러 섬들이 두로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15절 중).

[겔 27:26]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겔 27:27]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여

[겔 27:28] 네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겔 27:29]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겔 27:30]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릟쓰
며 재 가운데 굶이여

[겔 27:31]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겔 27:32]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
씀이여 두로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겔 27:33]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
도다

[겔 27:34] 네가 바다 깊은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겔 27:35]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겔 27:36]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던 두로가 하루 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27절 하). 두로의 재물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상품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모든 용사들도 바다에 빠졌습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날에 두로의 모든 것들이 함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로의 멸망은 이웃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음이어..."(36절 상). 다시는 두로가 재건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36절 하).

우리의 삶이 두로와 같아선 안 될 것입니다. 두로는 한 때 잘 나갔습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세상의 복은 두로가 다 가져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가 하루 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두로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볼 때 이웃이 망한 것을 놓고 기뻐한다고해서 그게 감옥갈 정도의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른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28 장

/

두로 왕과 사탄의 심판

[겔 28: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28: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

[겔 28:3]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겔 28:4]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겔 28:5]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겔 28: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하였으니

[겔 28:7]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겔 28:8]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겔 28:9]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겔 28:10]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8장에서는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2절 상). 두로 왕이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2절 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 왕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로 왕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3절). 그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무역사업으로 큰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았음을 지적했습니다. "...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6절 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나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에 빠져 있는 두로 왕을 치셨습니다. 이방 여러 나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7절 상). 하나님은 쓰러져 죽어가는 두로 왕에게 "...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뿐이요 신이 아니라"(8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두로 왕은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겔 28:1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28:12]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
왔도다

[겔 28: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
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
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겔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겔 28: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겔 28:16]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
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겔 28:17]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
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

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18]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19]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12절 상). 하나님은 두로 왕을 가리켜 '완전한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12절 중). '완전한 인'이라는 말은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지혜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듯이 모든 의문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 찍듯이 그의 지혜가 충족했으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12절 하).

하나님은 두로 왕이 에덴동산에 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13절 상). 그가 실제로 에덴동산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로 왕의 상태가 에덴동산에 거한 아담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로 왕이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을 가리켜 '그룹'과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기쁨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14절 상).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룹은 에덴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은 두로 왕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두로 왕은 하나님에 의해 높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 내가 너를 세우매..."(14절 중).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에덴에 거하게 하셨으며 에덴의 그룹처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 그의 불의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15절). 그의 불의함은 강포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그가 멸망했던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면 둘째는 그의 강포함 때문입니다.

두로 왕이 강포해진 까닭은 그가 크게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역업을 통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강포해진 것입니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16절).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기름부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그룹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그는 날개잃은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16절 하). 결국 두로 왕은 하나님의 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곧 에덴동산입니다. 에덴동산에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때는 에덴동산에 거했던 두로 왕이었지만 결국 그의 강포함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 에덴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아담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로 왕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17절 하). 두로 왕은 부유함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각종 좋은 것으로 치장했으나 결국은 더러운 것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사람이었으나 결국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18절 상). 무역업을 통해 재물을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을 일이지만 오히려 두로 왕은 무역업 때문에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소가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두로 왕의 멸망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로 왕의 생명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의 부귀영화도 짧았습니다. "...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19절 하).

[겔 28:20]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28:21] 인자야 너는 낮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겔 28:22]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 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겔 28:23] 내가 그에게 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겔 28:24]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겔 28:25]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겔 28:26]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돈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너는 낮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21절). 시돈은 두로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시돈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이유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시돈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을 심판하실 때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23절 상).



29 장

/

애굽의 심판 예언

[겔 29:1] 제십년 시월 십이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29:2]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낮을 향하고 처서 예언하라

[겔 29:3]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겔 29:4]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겔 29:5]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겔 29:6]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겔 29:7]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29-32장에 걸쳐 언급되었습니다. "제십년 시월 십이일..."(1절 상)은 기원전 687년 1월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십니다. "...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

가 너를 대적하노라..."(3절 상).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대적하신 이유는 애굽 왕이 '큰 악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3절 하). 이러한 애굽 왕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어서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언제든지 교만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애굽 왕이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뽕뽕 쳤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6절 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였으나 속이 비어있는 갈대지팡이여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7절 하).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문제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애굽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겔 29: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겔 29:9]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겔 29:10]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므딤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겔 29:11]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사십 년이 지날지라

[겔 29:12]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 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 같이 사십 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치리라

[겔 29: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겔 29:14]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겔 29:15]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겔 29:16]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8절).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황폐케 되었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9절 상). 원래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 매우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애굽의 전지역이 황폐한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사람과 짐승이 살지 못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8절 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의 땅이 황폐케 되는 기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흠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13절).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바벨론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력하게 되고 황폐케 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영적인 해석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모이겠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강대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15절 상).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애굽은 오늘날까지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강대한 나라는 아닙니다.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은 애굽의 교만함도 있지만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굽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는 총리대신의 가족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총리대신의 집안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애굽을 좋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을 했습니다. 저들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애굽을 전혀 알지 못하던 후손들이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선조들처럼 저들도 애굽의 노예가 되길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요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이 멸망을 당하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때문일 것입니다.

[겔 29:17] 제이십칠년 정월 초 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29:18]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겔 29:1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겔 29:20]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29:21]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이십칠년 정월 초 일일...”(17절 상)은 기원전 570년을 말합니다. 이 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온지 2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16절까지의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에 이어 또 다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언급된 것입니다. 전반부에 걸쳐 다시금 구체적인 애굽의 심판에 대해 예언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 같은 말씀이 거듭 반복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애굽을 치게 하셨습니다. “...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20절 중). 그런데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

을 치게 하신 것은 바벨론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20절 상). 이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수를 주셨을까요? 바벨론도 나쁜 나라인데. 그것은 바벨론도 나쁜 나라지만 애굽도 나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를 치기 위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이미 두로에 있는 부자들은 재물과 가족들을 피신시켰기 때문입니다. 막상 두로를 함락하여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18절 하).

사실상 두로로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시켜서 두로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두로에서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애굽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악인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차라리 의인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악인을 통해 고통을 받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축복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악인을 통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30 장

/

애굽의 멸망

[겔 30: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겔 30:2]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겔 30:3]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겔 30:4]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륙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겔 30:5] 구스와 붓과 롯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밋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겔 30: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므돔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30:7] 황무한 열방 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겔 30:8]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겔 30:9] 그 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겔 30:1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겔 30:11]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륙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겔 30:12]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겔 30: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놉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겔 30:14]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겔 30:15]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겔 30:16]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겔 30:17] 아웬과 비벤펬의 소년들은 칼에 얹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겔 30:18] 내가 애굽 멩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겔 30:19]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본문은 애굽에 대한 세번째 심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이 심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을 당할 때 옆에 있던 구스도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구스와 붓과 룯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밋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엮드러지리라"(5절).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지리적으로 애굽 남단과 붙어 있어서 애굽과 매우 가까운 나라인데 애굽의 속국으로 지냈던 구스는 애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구스는 애굽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와 함께 했던 '붓', '룯', '모든 섞인 백성'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애굽 군대에 소속된 용병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지만 애굽과 함께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돕는 자도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엮드러질 것이요..."(6절 중).

이처럼 멸망을 당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구원 받지 못할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겔 30:20] 제십일년 정월 칠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가라사

대

[겔 30:21]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겔 30:22]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겔 30:23]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흠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칠지라

[겔 30:24]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여려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겔 30:25]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겔 30:26]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흠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20절 상)은 애굽에 대한 첫번째 심판의 경고가 있는 지 3개월 후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로 호프라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했으나 바벨론 군대에게 패

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21절 상).

왜 하나님은 애굽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운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도록 내 버려두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도록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 뿐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흠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칠지라"(23절)는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의 강력한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애굽의 힘과 권력이 약화되고, 그들이 더 이상 독립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후에 애굽은 바사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기원전 525년). 이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는 한동안 바사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하였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원전 30년에는 로마에 의해 정

복을 당하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한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31 장

/

앗수르와 애굽의 멸망

[겔 31:1]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1: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라

[겔 31:3]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겔 31:4]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독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겔 31:5]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겔 31:6]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겔 31:7]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겔 31:8]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겔 31:9]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애굽에 대한 다섯번째 심판 예언입니다. 네번째 심판(겔

30:20-26)이 선포된 때로부터 2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1절 상). 이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 되기 1개월 전쯤입니다.

하나님은 앗수르 제국을 예를 들어서 애굽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말씀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3절).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백향목처럼 키우셨고 하나님의 동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8절 상). 하나님께서 앗수르 제국의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을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9절 상).

하나님께서 앗수르 제국을 다른 모든 나라보다 으뜸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앗수르를 시기했습니다. “...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9절 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 합니다.

[겔 31:1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겔 31:11]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겔 31:12]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겔 31:13]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겔 31:14]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겔 31: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겔 31:16]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겔 31:17]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겔 31:18]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

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라

결국 앗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시기했기 때문에 앗수르를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앗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 마음이 교만하였은즉"(10절 하). 앗수르가 교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10절 중) 였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 제국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11절 상). 앗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13절).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에게 수도 니느웨가 함락을 당함으로써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를 하란으로 옮겨 간신히 나라의 명맥만을 유지하였지만 기원전 605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앗수르는 완전히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앗수르 제국이 무너졌을 때 그동안 앗수르 제국에 빌붙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겼던 주변 나라들이 앗수르의 멸망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서 더욱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새와 짐승이 앗수르를 물어 뜯는 형상이었습니다.

앗수르 제국이 이렇게 심하게 무너진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

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14절 상). 이것은 앓수르가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게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14절 하).

그리하여 앓수르는 스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15절 상).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이는 앓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을 의미합니다. 앓수르의 멸망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음부로 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부에 떨어집니다. 이는 저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또한 앓수르처럼 음부에 떨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18절 상). 여기서 언급된 '너'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또한 앓수르처럼 영광과 위대함이 크지만 다른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음부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덴의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앓수르가 멸망했듯이 애굽도 멸망할 것입니다. 앓수르와 애굽이 멸망했듯이 앗몬과 모압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다. 에돔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바사도 멸망 당할 것이고 로마도 멸망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들은 멸망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도 멸망 당할 것입니다.



32 장

/

애굽 왕의 애가

[겔 32:1]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2:2]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겔 32: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겔 32:4]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겔 32:5]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여

[겔 32:6]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겔 32:7]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겔 32:8]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둡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2:9]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임이여

[겔 32:10]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겔 32: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겔 32:12]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겔 32:13]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 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여

[겔 32:14] 그 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 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32:15]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여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겔 32:16]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본문은 애굽에 대한 여섯번째 심판 내용입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1절 상)는 다섯번째 심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21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때 패망하고 남은 유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애굽이 유대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것은 바로 왕이 실상은 악어이기 때문입니다. "...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을 더럽혔도다"(2절 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다' <야뫼>은 '큰 강'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악어가 하는 일이라고는 강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고 강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더러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을 싫어하시므로 여러 나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교만한 애굽을 치게 하십니다. "...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12절 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것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여..."(15절 상).

누구든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싫어하시니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을 좇아 사는 사람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겔 32:17]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2: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겔 32:19]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겔 32:20]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임이여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는데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겔 32:21]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함이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겔 32:22] 거기에 앓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겔 32:23]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겔 32:24]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겔 32:25]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겔 32:26]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겔 32:27]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겔 32:28]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겔 32:29]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겔 32:30]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겔 32:31]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32:32]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예언은 여섯번째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는 지 14일 뒤에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한 또다른 심판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19절 상).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하여금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눕게 하셨습니다. "...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19절 하). '내려간다'는 것은 스올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스올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앓수르와 앓수르에 속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앓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여..."(22절 상). 또한 거기에 엘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24절 상).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왕 유역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한때는 바벨론을 위성도시로 만들었던 강대국이었지만 기원전 1130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멸망을 당해 그때부터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엘람 역시 할례받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저들도 스올에 떨어진 것입니다.

스올에서 애굽을 기다린 나라는 또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이 애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26절 상). '메섹'은 앗수르와 함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앗수르와 활발한 교역을 벌였으나 기원전 696년 기메르인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두발'은 소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던 나라로 기원전 8-9세기경에 전성기를 이뤘지만 이 나라 역시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할례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스올에는 또 다른 나라가 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곧 에돔입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29절 상). 또한 스올에는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30절 상).

이 모든 나라가 애굽과 함께 스올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는 할례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신약시대의 할례는 예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한채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맺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만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할례의식은 행했지만 신약의 할례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당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롬 2: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3 장

/

파수꾼의 역할 재강조

[겔 33: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3: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겔 33:3]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겔 33:4]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겔 33:5]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겔 33:6]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겔 33: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겔 33: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3:9]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33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총 3부 중 세번째 내용입니다. 1부는 1-24장까지이고 2부는 25-32장까지입니다. 1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설명이 되었고 2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3부는 심판에 의한 멸망의 내용이 언급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3부는 크게 두 단란으로 구분됩니다. 첫 단락은 33-39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두번째 단락은 40-48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새나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본문에서는 파수꾼을 비유로 들어 파수꾼의 막중한 책임과 파수꾼의 경고에 대한 백성의 반응과 이에 따른 형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피가 돌아갈 것입니다. "...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6절 하). 하지만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은 백성에게 피가 돌아갈 것입니다. "...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4절 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7절 상).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에게 피가 돌아갈 것입니다. "...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8절 하).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했지만 백성이 그 심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피는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9절 하).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백성도 살고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모임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의 소식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할 사

람의 모든 피가 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겔 33: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겔 33: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겔 33: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엮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겔 33: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겔 33: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겔 33:15]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겔 33:16]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겔 33:17]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겔 33:18]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겔 33:19]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겔 33: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로 하여금 구원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12절 상). 하지만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날 때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쓰러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쓰러지지 못할 것인즉..."(12절 중).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믿고서 오히려 죄악을 행할 때에 그의 의로움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13절).

하지만 반대로 죽어 마땅할 죄인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때 그는 죽지않고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15절 하).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적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가 빠져 있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겔 33:2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

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겔 33:22]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겔 33:23]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3:24]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겔 33: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돌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겔 33:26]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하고

[겔 33: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앞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겔 33:28]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겔 33:29]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겔 33:30]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 보자 하고

[겔 33:31]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겔 33:32]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겔 33:33]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시드기야 왕 제 11년인 기원전 586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21절 상)이라고 언급된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8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함락 소식을 전해들었을까요? "...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21절 하). 아마도 성경 사본을 기록할 때 11년을 12년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6개월이나 지나도록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모

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바벨론에 오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계산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기간이 맞습니다. 도망자가 바벨론에 오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는 것은 에스라가 동료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여행했을 때 4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성경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라 7: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겔은 도망자를 만나기 전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24절 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잖이 실망스러워 하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25절 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능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29절).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증한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죄악을 멈춰야 합니다.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34 장

/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겔 34: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4: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겔 34: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겔 34: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겔 34: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겔 34:6]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겔 34:7]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겔 34:8]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 떼가 노략 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겔 34:9]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겔 34: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겔 34: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겔 34:12]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겔 34:13]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겔 34:14]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겔 34: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4: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함으로써 거짓된 목자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는 "... 자기만 먹는..."(2절 중) 목자입니다. '먹다' <하우 로 임>라는 말은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다'란 말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매우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먹어 치우는 돼지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단 이스라엘 왕에게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지도자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이 단어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총체적인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정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독교 목사들 때문입니다.

저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3절 상). '기름' <헬리브>는 '살찌다'란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드려진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고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3절 하).

함께 먹고 마시면 좋은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선지자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파는 여인과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추하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더럽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구별된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4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상석에 있고 백성들은 밑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상석보다 말석에 앉을 것을 권하셨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은 말석보다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눅 14: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
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눅 14:9]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
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
으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
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
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옆
자리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겔 34: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겔 34:18]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
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겔 34:19]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
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겔 34: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겔 34: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겔 34:22]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겔 34:24] 나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34:25]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겔 34:26]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겔 34:27]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겔 34:28]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겔 34: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겔 34:30]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겔 34:31]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양과 양을 구분하시고 숫양과 숫염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17절 하). 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차적으로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면 서도 좋지 않는 양이 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을 구분하십니다. “...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20절 하). ‘살진 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파리한 양’은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살진 양은 살진 양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파리한 양들은 누구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진 양같은 사람이 있고 파리한 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진 양들이 파리한 양들을 돌봐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 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돈을 꾸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배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기본 원리입니다.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진 양’과 같은 자들의 만행을 지적하셨습니다. “...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18절 중). ‘남은 꿀’은 남은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추수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곡식 일부를 남겨 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곡식을 가져가게 하기 위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진 양'과 같은 사람들이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남은 곡식을 먹지 못하게 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진 양'과 같은 사람들은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을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21절).

하나님께서서는 한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23절 상). '다윗'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다 하셨을까요?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다윗왕과 같은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살진 양'과 같은 사람을 심판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보좌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그때에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 구분될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35 장

/

세일 산의 심판

[겔 35: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5:2]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겔 35: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겔 35:4]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겔 35:5]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최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겔 35:6]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겔 35:7]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겔 35:8] 내가 그 죽음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음 당한 자를 네 여러 멧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엮드러지게 하고

[겔 35:9]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일 산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예언하라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2절). '세일 산'은 에돔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세일 산은 사해

남동부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산악지대를 가리키는 산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5장에서 에돔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겔 25:1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데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엮으려지리라

[겔 25: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켰으며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들이 이스라엘이 멸망 당했을 때 조롱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유 외에도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돔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에돔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니

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멸망 당하기를 희망합니다. 어쩌다 기독교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우상을 위해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저들을 따라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6절 하).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행위입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을 치는 행위입니다. 다른 나라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 그 나라를 때리고 죽이고 불태우고 노략질하는 행위는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남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남의 나라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는 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부서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돔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들과 통합되었으며, 그 중 유대인, 나바테아인, 로마인 등과의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에돔인의 후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민족이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고고학적 유적지들이 에돔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돔이라는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에돔이 위치했던 지역은 현대의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에돔인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른 민족들과 융합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그들의 후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겔 35:10]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겔 35:11]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겔 35:12]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겔 35:13]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겔 35:1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겔 35:15]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 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10절 상).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에돔 때문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질 때마다 그걸 이용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10절 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에돔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이미 에돔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소유로 차지하기 위해 야욕을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빼앗으려 하는 에돔을 그냥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11절).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서 그 사람을 괴롭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36 장

/

새 마음과 새 영

[겔 36:1]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겔 36: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겔 36: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 거리와 백성의 비방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36:4]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 거리와 조롱 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겔 36: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겔 36: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멧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겔 36: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겔 36: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겔 36:9]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겔 36:10]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이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겔 36: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이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36:12]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겔 36: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겔 36:14]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6:15]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35장에서는 '세일 산'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본 장 36장에서는 회복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였던 에돔과 주변 국가들을 향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 거리와 백성의 비방 거리가 되게 하였도다"(3절).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훼방하고 미워하며 조롱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7절 상). '내가 맹세하다' <아니 나 샤틀리 에트 야데>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계약을 할 때에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아브

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평생에 걸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겔 36:16]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6: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겔 36: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겔 36: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흠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겔 36:20]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겔 36: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겔 36: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
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을 위함이라

[겔 36: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
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6: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
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
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
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매우 중
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 더러움으로 가득차 있
다면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
정함과 같았느니라"(17절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

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18절 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의해 침략을 받아 각국에 흩어짐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19절).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란 조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23절 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못난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빛을 갉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아버지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못난 자녀의 빛을 갉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못난 자녀입니다. 아주 심하게 못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못난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녀 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겔 36: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겔 36:30]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

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겔 36: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겔 36:32]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겔 36:3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겔 36:34]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겔 36: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겔 36:36]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겔 36:3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겔 36:38] 제사 드릴 양 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원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결'이었습니다. 그 정결은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25절 하).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해 맑은 물을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25절 상). 맑은 물을 뿌리는 행위는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 만든 물을 뿌려 백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민 19:9]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러한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번도 멍에를 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 19:2]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한번도 세상 일에 가담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암송아지는 진영 바깥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

“[민 19: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불로 태워졌는데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어 태웠습니다.

“[민 19: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결 의식에 사용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의식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더러움은 시체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민수기 19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잿물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셨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생명은 천국의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조차 모른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적으로도 죽어선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 영도 살고 혼도 살며 육도 삽니다.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26절 상). 이미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네사마>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과 혼으로만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결의식을 통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결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실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이러한 정결의식을 통해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때에 황폐한 것이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 “...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3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새롭게 변화시켜 에덴동산같이 만드실 것

입니다. “..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35절 상).



37 장

/

마른 뼈 환상

[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겔 37: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 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겔 37: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겔 37: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겔 37: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1절 중). '골짜기'<비크아>는 '골짜기' 또는 '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은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매우 의미심장한 계시를 받을 때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는 이처럼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더욱 심오한 환상을 통해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 세계 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통해 선교사역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히 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1절 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3절 상)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3절 하)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그저 순종하며 받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4절 상). '대언' <나바>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예언은 대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뜻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감정

이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역자의 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예언'이 '영감예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영감예언'에는 사역자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묻어 있지만 '대언예언'에는 사역자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뼈에 생기가 들어가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6절 상).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생기' <루아흐>는 '영'(spirit)입니다.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와는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때의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네샤마> 역시 <루아흐>와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루아흐>는 100% 영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네샤마>는 인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흙으로 사람을 만들

었던 창세기 2장에서의 '생기'와 뼈들로 사람을 만들었던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다소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생기'를 붙여주십니다. <네샤마>를 붙여 넣으실 때는 '생령'<네페쉬>가 되게 하셨지만 <루아흐>를 붙여 넣으실 때는 '군대'<하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10절 하). '군대'<하일>이라는 말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생령'<네페쉬>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가 되게 하셨지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군대'<하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샤마>가 아닌 <루아흐>를 붙여 넣으셔서 마른 뼈들로 하여금 능력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와 재산을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군대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아담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강인한 아담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많은 민족입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나약하고 악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군대처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당신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찌면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찌면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강한 군대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겔 37:15]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7:16]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겔 37: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8]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겔 37:19]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겔 37:20]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겔 37: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 37: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리라

[겔 37:24]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겔 37:25]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겔 37: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겔 37:27]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겔 37: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와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17절 상).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16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지라”(22절). 이 약속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며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 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 2:42).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도 속하면서도 동시에 북이스라엘에도 속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귀환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고 봐야 합니다.

“[라 2: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26절). ‘화평의 언약’<베리트 샬롬>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23절 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8 장

/

곡과 마곡의 전쟁

[겔 38: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8: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 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겔 38: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겔 38:4]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겔 38:7]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겔 38:8]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 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 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겔 38:9]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 같이 이르고 구름 같이 땅을 덮으리라

[겔 38:1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겔 38:11]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 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서

[겔 38:12]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겔 38:13]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두 나라를 다시금 하나로 하시고 하나된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간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첫번째 귀환은 기원전 538년이었으니 거의 70년 만에 귀국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기원후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이후 2천년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예언된 말씀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눅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
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
에게 밟히리라”

2천년동안 세계에 흩어짐을 당한 후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시금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겔 37: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
 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 37: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
 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
 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만 말세 때에 곡과 마곡을 들어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십니다. “...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3절 하). ‘로스와 메
 섹과 두발’은 마곡 땅을 의미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2절).
 이를 통해 우리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마곡이며 곡은 그곳을 다스리
 는 통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곡의 통치자 곡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함께 연
 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
 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5-6절).

에스겔서 38장에 언급된 나라들의 이름과 오늘날의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곡=러시아, 메섹=조지아와 터기북동부, 도갈마=아르메니아, 바사=이란, 두발=터키, 고멜=유럽지역, 붓=리비아, 구스=에티오피아와 수단.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부분의 나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 때에 곡 왕과 마곡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연합국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곳에 언급된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과 심각하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 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제3차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말세에 얼마나 많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 주십니다.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 20: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

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전쟁 모두 사탄에 의해 일어난 것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이 무저갱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오직 화평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에는 오직 평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곳엔 언제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배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성도도 있습니
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겔 38: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겔 38:15]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
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겔 38: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
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겔 38: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겔 38: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

에 나타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8: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겔 38: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겔 38:2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겔 38: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겔 38:23]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16절 중). 하나님께서 일부러 곡 왕을 선동케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16절 하).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

입니다.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18절 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19절 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적군의 침입이 턱 끝까지 차 올랐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내신 것입니다. 적군을 땅 속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한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 지진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땅 속에 떨어지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 16: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민 16: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민 16:33]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 16: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민 16:35]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살랐더라"

고라는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서있는 땅에 지진이 있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저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무리들을 칼로 치셨습니다. "...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21절 하).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대적자들끼리 싸워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서로의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적군끼리 서로 죽이게 한 사건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작은 군대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향아리와 나팔, 횃불을 사용해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삿 7: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상 14:20]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할 때, 모압군은 혼란에 빠져 서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왕하 3:23] “그들이 이르되 이는 피라 반드시 왕들이 칼로 서로 쳐 죽인 것이라 이제 모압 사람들이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적군 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대하 20: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대하 20: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었더라”

또한 하나님은 전염병과 피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22절 상). 또한 하나님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22절 하).

만일 누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폭우가 임할 것이고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9 장

/

곡과 마곡의 패망

[겔 39: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겔 39:2]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겔 39:3]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겔 39:4]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겔 39:5]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9:6]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밋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겔 39: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곡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1절 상).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이뤄졌습니다. “...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1절 하).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곡 왕을 따르

는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곡 왕과 함께 연합국을 이뤄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들 지역 이름은 대략적으로 러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곡 왕은 여러 연합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되었습니다.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은 마귀로부터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마귀는 그 옥에서 풀려납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날 때에 사람

을 미혹하고 모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서 38-39장에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단지 러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나라들의 연합국과의 전쟁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지고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 인간이 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겔돈 전쟁' 역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역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 뿐입니다. 마귀가 하늘에 있을 때에 하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땅에 있으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앗수르 제국과도 전쟁을 치렀고 바벨론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마와도 전쟁을 치렀으며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모든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 왕의 연합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빈 들에 엎드려지리라..."(5절 상). 하나님은 곡 왕의 연합국을 패배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이실 것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7절 상).

마귀와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겔 39:8]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겔 39: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겔 39:10]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9:11]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겔 39: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겔 39:13]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9:14]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 보되

[겔 39:15]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툇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겔 39:16]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겔 39: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겔 39:18]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겔 39:19]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겔 39:20]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9:21]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8절 중).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수거하여 불태울 때에 그 기간이 7년이나 될 것입니다. "...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9절 하). 얼마나 그들의 무기가 많으면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7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고 엄청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데에는 7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12절 상).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면 매장하는데만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었을까요?

무기가 태워지는데 7년이 걸리고 시체가 매장되는데 7개월이 걸렸다는 말은 정결케 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민 19: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무기가 정결해지는데 7년이 소요되고 시체가 정결해지기 위해 7개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해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7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죄는 7개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저주는 7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결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식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지불해야 합니다.

[겔 39:22]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

님인 줄을 알겠고

[겔 39:23]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엮드리지게 하였으되

[겔 39:24]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겔 39:25]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겔 39: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겔 39:27]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겔 39:28]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겔 39: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 약속하

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29절 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23절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면 곤란합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굴'<파님>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성막의 진설병은 '얼굴 떡'입니다. '진설'<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얼굴 떡'입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

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거부하다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 <루아흐>를 쏟아 부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29절 하). '쏟아 붓다' <샤파크>는 '쏟다'라는 뜻 외에도 '붓다', '따르다', '흘리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쏟아붓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더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나요? 더럽게 느껴지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몸에 뿌려본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집에 뿌려본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가족들에게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단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을 것입니다.



40 장

/

새 성전 환상(1)

[겔 40: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겔 40: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을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서 40장은 이전의 기록(1-39장)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1절 상)는 기원전 573년입니다. 이 때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기원전 593년)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2절 상).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영적인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 성을 지칭했으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2절 하).

에스겔은 그곳에서 주님을 뵈었습니다. “... 모양이 늦같이 빛난 사람 하 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3절 하). 늦 같이 빛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계 1: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왜 주님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셨습니다. ‘삼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4절 하). 주님은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4절 중).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 중이었으나 실제 삶과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스겔이 환상을 잘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생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처럼 매우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같아서 그가 본 환상 내용대로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생각했는데 그의 환상 또한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환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환상을 에스겔처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에스겔처럼 선명하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겔 40:5]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 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겔 40: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겔 40: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 문이 있으며

[겔 40:8] 그가 또 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겔 40:9] 안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

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겔 40:10]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겔 40:11]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겔 40:12]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겔 40: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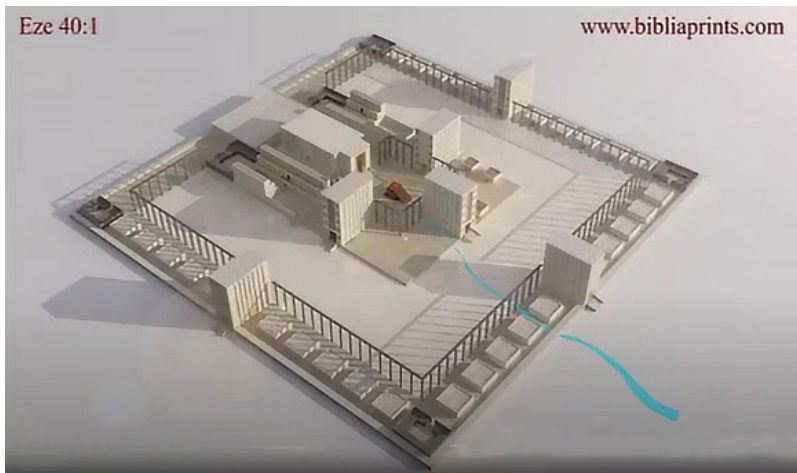
[겔 40:14]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겔 40:15]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겔 40: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6-16절은 성전 바깥 뜰의 동쪽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쪽 문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것은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성막 역시 동쪽에 문을 달았습니다.

“[출 27:13]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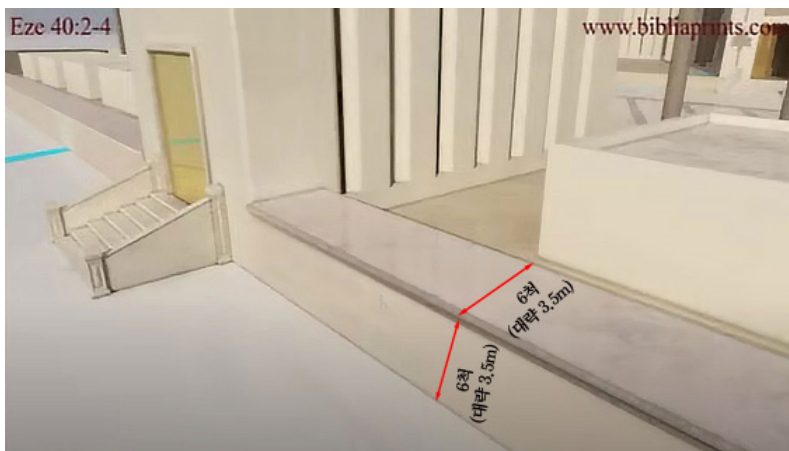
지며

[출 27:14]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27:16]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주님께서 동쪽 성벽을 측량했더니 그 두께와 높이가 모두 6규빗이었습니다. “...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5절 하). ‘한 장대’는 왕실규빗으로 6규빗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측량하



기 위해 사용한 장대가 여섯척이었습니다. "...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척이라..."(5절 중).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것은 '규빗'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치수가 50cm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손바닥 너비를 더했으니 대략 60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장대는 왕실규빗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규빗보다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 왕실규빗입니다. 왕실규빗 크기로 여섯척 정도되는 장대의 길이는 대략 $6 \times 60\text{cm} = 3.6\text{m}$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담의 두께와 높이는 대략 3.5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매우 높지만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성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층계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6

절). 통로의 길이는 한 장대의 길이였습니다(대략 3.5미터 정도). 이것은 성벽 두께와 높이와 같은 길이였습니다.



동쪽 문의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의 길이와 넓이 또 한 모두 한 장대 길이였습니다.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7절 상). 문간의 문지기 방들이 오른쪽과 왼쪽 모두 세 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방들의 크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문의 현관도 한 장대였습니다. "그가 또 안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8절).

동쪽 문과 연관된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한 장대(왕실규빗으로 6척)의 길이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은 장광고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광고(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길이를 같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성품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에는 방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전에 방이 많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
해 필요한 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이 모두 기도하는 방
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에서 세상의 정욕을 위한 일을
합니다. 참된 성도는 살고 있는 방을 기도의 방으로 삼을 것입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
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동쪽 문에는 양쪽으로 방들이 세 개씩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 방
끝과 오른쪽 방 끝은 모두 25규빗이었습니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
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
은 서로 반대되었으며”(13절).

동쪽문의 건물은 가로가 25척이고(13절) 세로는 50척입니다(15절). ”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15절). 50척이 되는 이유는 바깥 문통이 6척이고 세 개의 문지기 방이 18척이고(하나에 6척씩) 두 개의 문지기 방과 방 사이의 벽이 10척이고(각 5척씩) 안문 통이 6척이고 현관이 8척이고 문설주가 2척이므로 전체 숫자를 계산하면 정확히 50척이 됩니다.

그 방들에는 모두 창이 달려 있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곡 그 현관도 그러하고...”(16절 상). 이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반대로 그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4개의 겹으로 덮었습니다(출 26장). 세마포 양장과 염소 털로 짠 양장과 숫양 가죽 덮개와 물개 가죽 덮개로 덮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천국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겔 40: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겔 40:18]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겔 40: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 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겔 40:20]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겔 40:21] 길이는 십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 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겔 40:22]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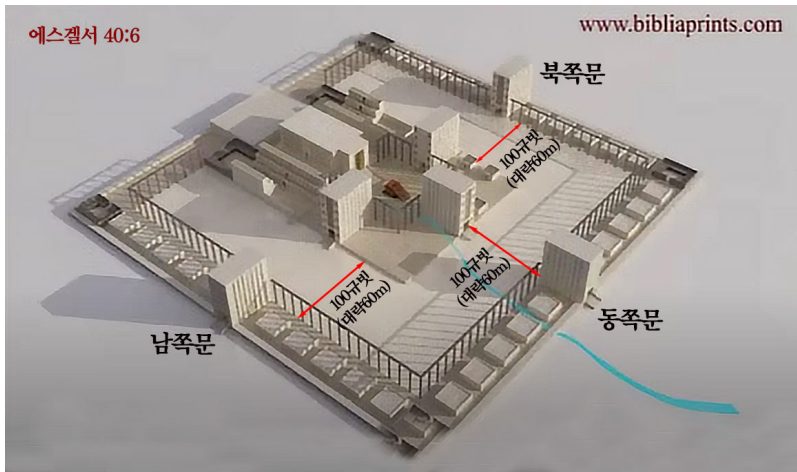
[겔 40:23]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겔 40:24]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겔 40:25]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십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겔 40:26]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

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에스겔 성전에는 바깥 뜰과 안 뜰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17절 상). 그곳에는 방이 30개나 있습니다. “...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17절 하).

동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안뜰 문간까지의 거리가 100규빗이었습니다.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19절). 동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나 북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가 모두 100척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도 100척으로 모두 같습니다. “...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27절 하). 동쪽문에 설치된 방들과 창들처럼 북쪽문과 남쪽문 모두 동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22절 상).

그런데 거룩한 성에는 모두 12개의 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계 21: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성의 문이 12개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세 개의 문이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과는 달리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문이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은 천국의 성전과 거룩한 성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 성전이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은 에스겔 성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겔 40:27]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겔 40:28]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

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겔 40:29]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겔 40:30]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겔 40:31]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겔 40:32]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겔 40:33]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겔 40:34]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겔 40:35]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겔 40:36]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겔 40:37]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안뜰에는 바깥뜰에 배치된 각각의 문과 똑같은 형식의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29절 중).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모두 동일한 건물이 두개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모도 같고 딸린 방도 같고 문 위에 새긴 종려나무 무늬까지 모두 같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제작된 이유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깥뜰보다는 안뜰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지는게 성전입니다. 모세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성전도 바깥뜰과 안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깥뜰의 문간과 안뜰의 문간이 모두 동일하게 제작된 것은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안뜰에 세워진 것은 바깥뜰에 세워진 것에 비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층계가 있더라"(31절 하).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들 때는 석재로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 20:26] 너는 내 단을 쌓을 때에 석재로 쌓되, 그 위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 그 위로 올라갈 때에 네의 하체가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석재로 쌓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층계로 만들 때 하체

가 드러날까 염려함입니다. 석제는 자연적으로 쌓아 올린 것이지만 층계는 나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통으로 짠 세마포를 걸쳐 입었기 때문에 속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단을 쌓을 때 석재로 층계를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도 안뜰 문간은 층계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깥뜰 문간에는 7개의 층계가 만들어졌지만 안뜰 문간에는 8개의 층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뜰 층계가 바깥뜰 층계보다 한개가 더 높습니다. 바깥뜰 층계 7개와 안뜰 층계 8개를 더하면 총 15개 층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사장들은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시편 120편-134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겔 40: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겔 40: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겔 40: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겔 40:41]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겔 40:42]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겔 40:43]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뜰 문간 옆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용도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습니다. "...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38절 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깨끗이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야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출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

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
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모세 성막에는 물두멍이 한 개가 놓여져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자
그마치 10개의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7:38] 또 물두멍 열 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
마다 각각 사십 배를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습니다. 다만 제사를 위해 바쳐진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는 용도
로 사용되는 방이 있을 뿐입니다. 왜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이 없
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에서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
까요?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
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
까.

”[요 13: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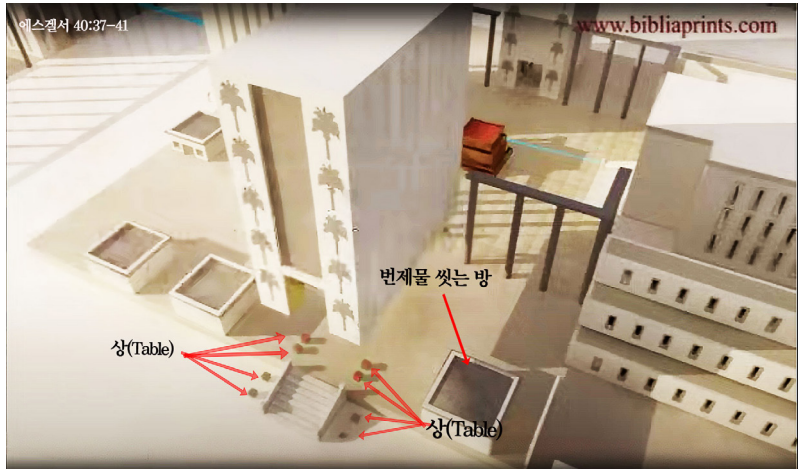
[요 1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바로 이런 이유로 에스겔 성전에는 물두멍이 필요치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희생 제물은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었기에 희생제물 씻는 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복문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들에도 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쓰인 ‘문’이라는 단어가 <하세아림>으로 복수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아마도 남문과 동문에 모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문을 통과하든지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쉽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총 8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간 바깥에 4개가 있고 문간 안쪽에 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39-40절). 이 8개의 상에서는 희생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39절 하). 그 이유는 뭘까요?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미 천국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제가 빠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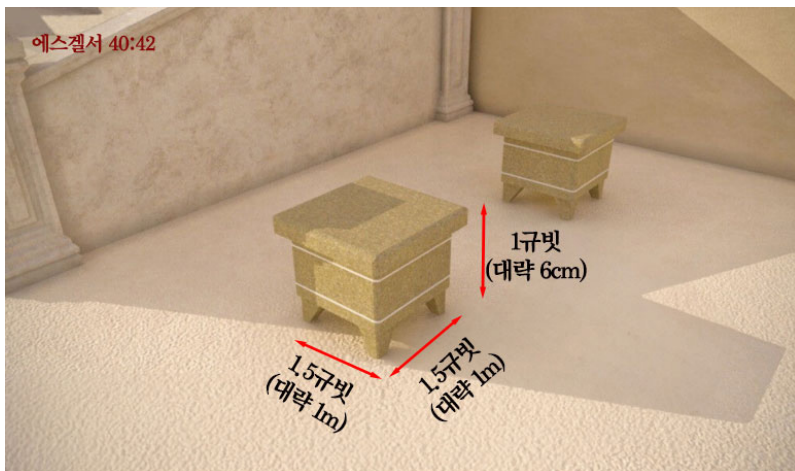


그럼 화목제는 왜 빠진 것일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천국에 거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를 살펴보면,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제사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중요한 성품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천국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도 죄입니다. 예배를 등한시 하거나 소홀리 하는 것도 죄각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필요합니

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며 이웃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천국에서도 성물은 중요합니다. 성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천국에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 곁에는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층계 양 쪽으로 두개씩 배치돼 있습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42절 상). 그 길이는 가로 1.5규빗 x 세로 1.5규빗 x 높이 1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42절 중). 이것들은 모두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상입니다. "...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42절 하).



[겔 40: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

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겔 40: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겔 40: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하고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었습니다.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44절 상).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없으면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44절 하). 찬양하는 자의 방은 서로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서로 바라보며 드려야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독창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

가대의 합창만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동쪽문에 있는 '찬양하는 자의 방'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겔 40:44] 안쪽 문의 밖에는 안뜰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문 옆에 있고 그것들의 정면은 남쪽을 바라보더라. 하나는 정면이 북쪽을 바라보며 동문 옆에 있더라.”(킹제임스흠정역)

'찬양하는 자의 방'은 곧 '제사장의 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뜰 문간 옆의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45절). 이들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46절 중).

남쪽을 향한 방이나 북쪽을 향한 방 모두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이지만 남쪽을 향한 방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사용했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사용했습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46절 상). 성전을 지키는 일과 제단을 지키는 일은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장은 이처럼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동시

에 찬양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교회도 지켜야 합니다. 예배도 인도해야 합니다. 찬양도 불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는 자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수종드는 자도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주차를 위한 주차위원도 필요하고 친교를 위해 친교위원도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위원도 필요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필요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필요합니다. 심방하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경조사를 주관하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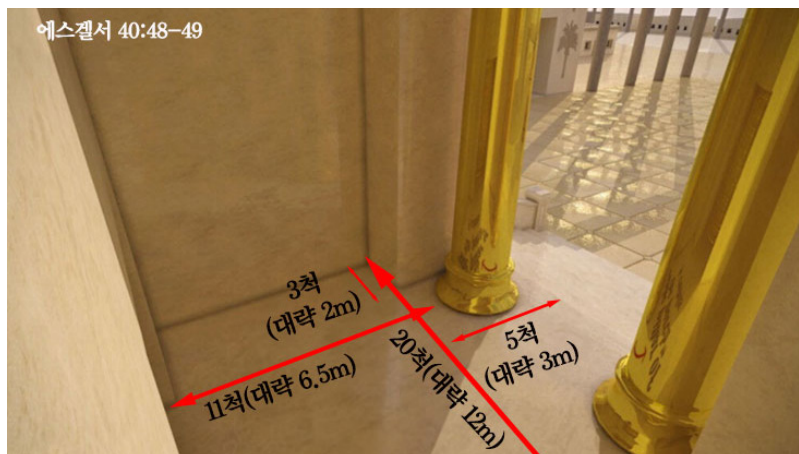
[겔 40: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겔 40:48]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겔 40:49]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내전이 있는 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47절 상). 그곳에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47절 하).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문의 좌우 벽을 측량했더니 벽의 넓이가 5규빗이고 두께는 3규빗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48절 상). 현관의 넓이는 20규빗이고 길이는 11규빗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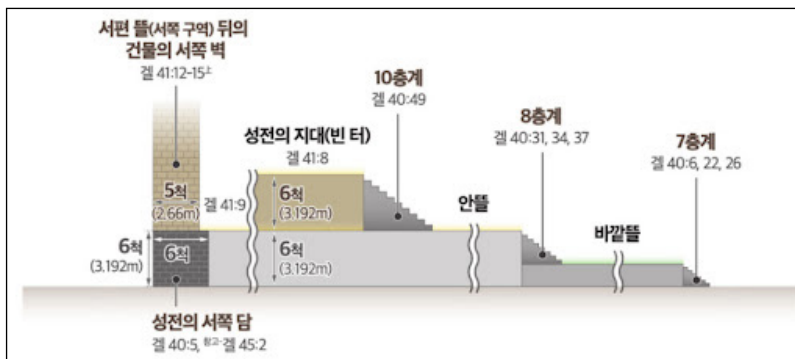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성전 문 앞의 현관은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돌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개역성경은 ‘밀고 들어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역한글의 표현이 더 좋을듯 합니다.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성전문으로 올라가기 위해 마련된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는 10개의 계단으로 이뤄졌습니다.

“[겔 40:49] 현관의 폭은 20자였고, 길이는 12자였다. 이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열 계단이 있었고 현관의 벽기둥 앞에는 좌우로 기둥이 하나씩 서 있었다.”(현대어 성경)



이렇듯 바깥문에는 7개의 층계, 안뜰에는 8개의 층계, 성막문에는 10개의 층계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이라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안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이라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의 층계가 10개로 이뤄진 것입니다.



41 장

/

새 성전
환상(2)

[겔 41: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겔 41: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겔 41: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겔 41: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겔 41:5]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겔 41: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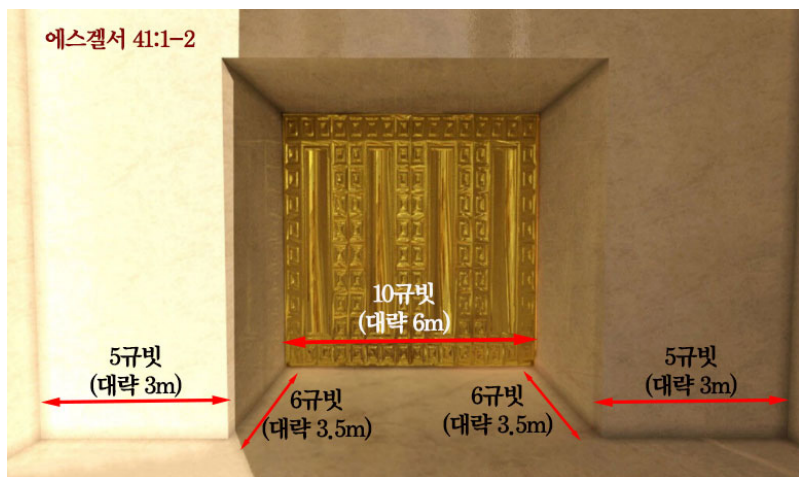
[겔 41:7]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러싼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겔 41:8]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겔 41:9]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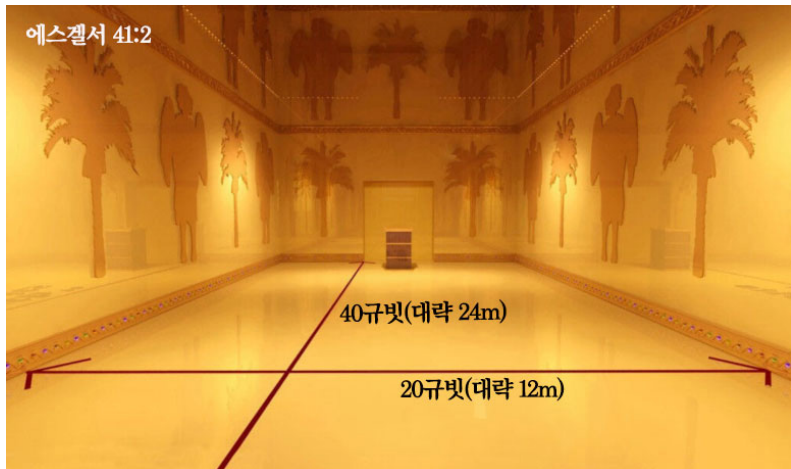
[겔 41:10]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겔 41:11] 그 골방 문은 다 빈 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
 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드디어 에스겔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문 벽을 측량하
 니 모두 6규빗이나 되었습니다. 6규빗이면 대략 3.5미터 정도 되는 두
 겹입니다. 이는 바깥문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두께와 같은 것입니다.
 "...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
 이라 ..."(1절).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면 통로가 나오는데 그 넓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다. 문 통로 좌우 벽의 넓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성소로 들

어갔더니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고 넓이는 20규빗이었습니다. "...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2절 하).



주님께서 지성소의 길이를 측량하셨는데 길이와 넓이가 모두 20규빗이었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4절). 성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 같았습니다. 모든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는 정육면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 장광고 모두 10규빗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였습니다(출 26:15-30). 솔로몬성전의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솔로몬성전의 지성소는 모세성막의 지성소보다 2배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6:20] 그 내소의 속이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이는 거룩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 역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처럼 모든 성전의 지성소가 장광고가 같은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규빗이었고 성전 동편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두루 돌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방의 크기는 4규빗(대략 2.2미터)정도였습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5절). 그렇게 큰 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방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는 이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방이 크면 여러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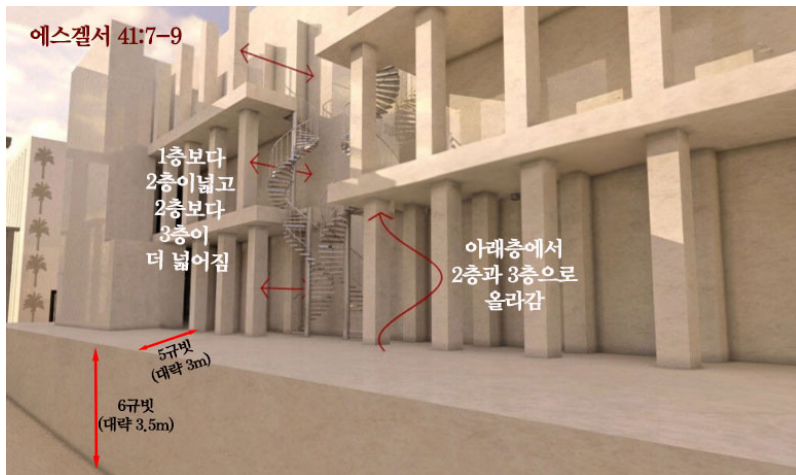
세상의 물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작으면 아주 필수적인 물건만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으로 아주 적절할 것입니다.

성전 삼면을 두루 돌아 30개의 방이 30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층마다 30개이니 전체 합치면 90개의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6절 상). 이 골방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거하는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들은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나 기타 성물 보관용 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방들이 필요합니다. 방이 많으면 집이 없는 분들의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기도방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친교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층마다 점점 벽이 좁아집니다. 이는 성소와 지성소와 맞닿는 벽면은 그대로 똑같으면서 다만 바깥쪽 모습에서 각 층마다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게 제작되었습니다.

"[왕상 6:6] 하층 다락의 광은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여섯 규빗이요 제삼층 다락의 광은 일곱 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솔로몬성전의 경우, 1층은 5규빗이고 2층은 6규빗이며 3층은 7규빗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새는 에스겔 성전과 똑 같습니다. 1층의 벽은 3층의 벽보다 2규빗이나 더 두꺼웠습니다. 2층과 3층으로 올라갈수록 1규빗씩 벽 두께는 얇아졌으며 방의 넓이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경우엔 2층과 3층으로 올라갈지라도 방 넓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1층을 지지하는 바닥의 두께가 5규빗이었기 때문입니다. 2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닥의 두께는 4규빗으로 좁아지고 3층은 3규빗으로 좁아지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 모두 1층과 2층과 3층을 나선모양의 층계로 오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7절).

“[왕상 6:8]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 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올라갈수록 방이 더 넓어지도록 제작한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강하다는 의미일겁니다. 1층에 거한 사람보다는 2층에 거한 사람의 영광이 크고 2층에 거한 사람보다는 3층에 거한 사람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골방은 성전에 마련된 골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겔 41:12]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겔 41: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겔 41: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겔 41:15] 그가 뒤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겔 41:16]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겔 41:17]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에스겔 성전에는 특이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쪽 뜰 뒤에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무엇에 쓰여지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쓰레기나 오물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생각인듯 싶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곳을 넓이 60미터 x 길이 60미터나 되는 건물을 사용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건물은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전의 전체 길이는 100규빗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13절 상). 이것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관 벽 5척(40장 48절) + 현관 12척(40장 49절) + 성소의 문벽 6척(41장 1절) + 성소 40척(41장 2절) + 내전 문 통로 벽 2척(41장 3절) + 지성소 20척(41장 4절) + 성전 벽 6척(41장 5절) + 골방 4척(41장 5절) + 바깥 벽 5척(41장 9절) = 100척. 이것은 성전의 동서간의 길이입니다.

또한 서쪽의 건물에 대한 길이도 똑같이 100규빗입니다. “...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14절 하). 이것은 이렇게 계산 됩니다. 서쪽 성전 뜰 20척(41장 10절) + 서쪽 건물의 동쪽 벽 5척(41장 12절) + 서쪽 건물 70척(41장 12절) + 서쪽 건물의 서쪽 벽 5척(41장 12절) = 100척.

또한 성전 앞쪽의 넓이도 100규빗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남북쪽 성전 뜰을 포함한 폭이 100규빗이란 의미입니다.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14절 상). 이것은 이렇게 계산 됩니다. 남쪽 성전 뜰 20척(41장 10절) + 남쪽 빈 터 5척(41장 11절) + 남쪽 바깥 벽 5척(41장 9절) + 남쪽 골방 4척(41장 5절) + 남쪽 성전 벽 6척(41장 5절) + 성소 20척(41장 2절과 4절) + 북쪽 성전 벽 6척(41장 5절) + 북쪽 골방 4척(41

[겔 41: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겔 41:20]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장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18절 상).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것과 흡사합니다.

"[왕상 6:29]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룹의 얼굴은 두개의 얼굴로 나뉘져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사자의 얼굴로 새겨졌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19절 상). 이것은 에스겔이 처음에 보았던 네 모습을 가진 그룹의 형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룹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사람과 사자의 형상만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참경배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

람 중에서 참경배자가 나옵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어린 사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두 얼굴이 모두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참경배자에게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같은 자에게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겔 41: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겔 41: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겔 41:23]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겔 41:24]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
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겔 41:25]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겔 41:26]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21절 상). 솔로몬 성전의 문기둥도 네모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7: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
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네모지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
문입니다. 네모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의 임재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존재하며 온 우주에 가득차 있습니다.

성소의 맨 끝자락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22절 상). 이것은 분향단
과 의미가 같은 제단입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 끝자락에 놓여
져 있는 제단입니다. 길이가 2규빗(1.2미터)이며 높이가 3규빗(1.8미
터)입니다. 넓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향

단의 경우와 같다고 볼 때 넓이 또한 2규빗일 것입니다. 분향단의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다 높고 영적인 기도인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있는 나무제단 역시 영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언급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무 제단은 '여호와와의 앞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 이는 여호와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22절 하). '여호와 앞의 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차려놓은 영적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설병이 '양식되는 주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인 것과 같습니다. 진설병은 '얼굴떡'입니다. '진설'<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설병은 얼굴떡입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호와와 그의 앞의 상'은 '진설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소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소에 거하기 위해서는 참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바깥뜰의 층계를 올라야 합니다. 바깥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뜰의 층계를 올라야 합니다. 안뜰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 뜰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뜰에는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전 통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제단에서 하나님의 보다 깊은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문에는 모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은 성전의 현관문입니다. 두번째 문은 성소문입니다. 세번째 문은 지성소문입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23절). 이 문들은 모두 두 짝으로 된 여닫이문입니다.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24절 상). ’

접다'<사바브>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회전문처럼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을 회전문으로 만드셨을까요? 이는 그만큼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회전문을 사용해본 적이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회전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전문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년에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솔로몬의 성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회전문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히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42 장

/

새 성전
환상(3)

[겔 42: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겔 42:2]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십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겔 42:3] 그 방 삼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겔 42: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겔 42:5]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좁아짐이라

[겔 42:6] 그 방은 삼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겔 42:7]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십 척이니

[겔 42:8]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십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겔 42:9]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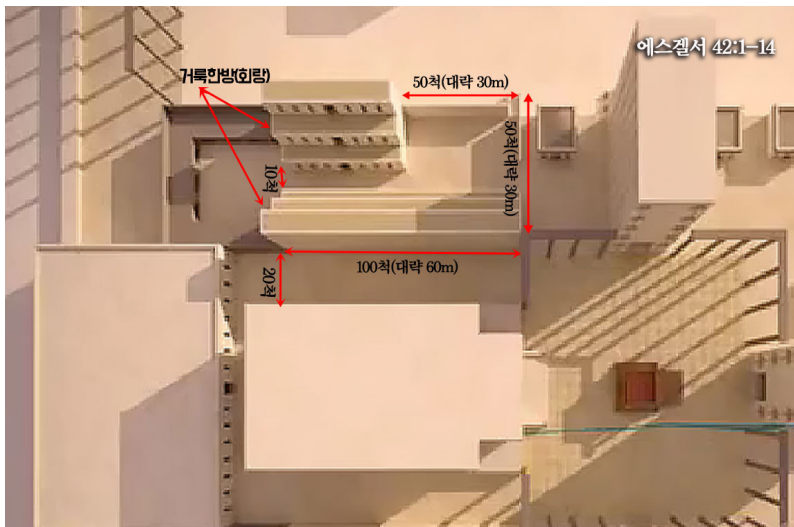
[겔 42:10]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겔 42:11]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겔 42:12]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겔 42: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겔 42:14]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거룩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1절 중). ‘뜰’<기즈라>라는 단어가 ‘따로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과는 구별하여 따로 떨어진 장소에 세워진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의 문은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한 건물의 문은 북쪽 건물을 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1절 하). 그 두 건물 중 하나는 길이가 100규빗인 반면에 보다 북쪽에 세워진 건물은 50규빗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두 건물을 합하여 넓이가 50규빗입니다.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십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2절).

각 건물은 ‘회랑’형식으로 건축되었는데 ‘회랑’은 틈마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발코니입니다. 두 건물에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 건물은 그 발코니가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건물의 발코니는 바깥뜰과 마주 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 삼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3절). 각 층마다 회랑(발코니)이 있어서 삼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극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좁아짐이라”(5절).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데 그 통로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넓이는 10규빗입니다.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

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4절).

성전과 가까이 붙어있는 거룩한 방은 길이가 100규빗이고 넓이가 20 규빗인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이에 반해 북쪽으로 세워진 또 다른 거룩한 방은 길이가 5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입니다.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7-8절).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쪽에 세워진 거룩한 방은 담벼락에서 50규빗을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공간은 ‘거룩한 방’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9절).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곧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13절 상). 거룩한 방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10절).

거룩한 방은 두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의 북쪽 맞은 편과 남쪽 맞은 편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두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13절 중). 또한 그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두었습니다. “...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

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13절 하). 그런데 이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만 언급이 되고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번제의 경우 가축을 제외한 짐승 전체를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올 고기가 없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엔 제사장 뿐 아니라 전가족이 함께 제물을 취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물로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용도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걸어두는 곳입니다. "...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14절 하).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많은 방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깥 문에도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동쪽문과 남쪽문과 북쪽문에 각각 6개의 방이 있었으니 전체 18개의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 방은 문지기들을 위한 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안 뜰에도 바깥문과 똑같은 구조와 형식으로 방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문지기를 위해 마련된 방은 총 36개입니다. 문지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

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성전에도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모두 90개의 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방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조는 에스겔 성전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방의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환상을 볼 때에 그런 선입견이 개입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환상이나 사도요한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처한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소 그가 처한 환경이 묻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환상에는 다소 그가 처한 환경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높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눈높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차릴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는 말 씀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인데 영어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학생인데 대학생들만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겔 42: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겔 42: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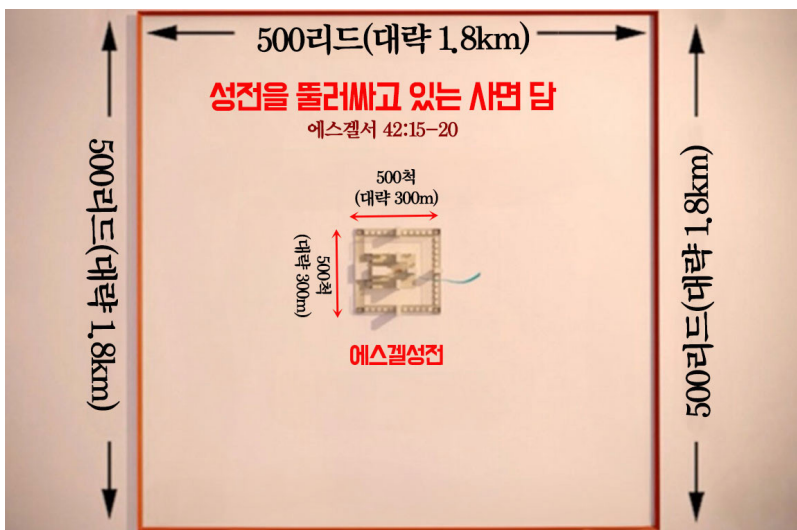
이요

[겔 42:17]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겔 42:18]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겔 42:19]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겔 42: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동서남북 사방이 500리드라면 그 길이는 대략 1.8km 정도가 됩니다 (500 x 6 x 60cm = 1,800m). 참고로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500척(규빗)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모든 측량 수치는 왕실규빗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왕실규빗으로 6척 되는 장대를 말합니다. 일

반 규빗은 대략 50cm 이지만 여기에 손바닥 넓이만큼 더해진 것이 왕실규빗이니 대략 60cm 정도되는데 이것이 500규빗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략 300미터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것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두 같은 길이로 500규빗입니다.

이 500규빗이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남북으로 계산하면, 북쪽 바깥문 50척 + 북쪽 바깥문에서 안문까지 100척 + 북쪽 안문 50척 + 안뜰 100척(성전) + 남쪽 안문 50척 + 남쪽 안문에서 바깥문까지 100척 + 남쪽 바깥문 50척 = 500척입니다. 동서로 계산하면, 동쪽 바깥문 50척 + 동쪽 바깥문에서 안문까지 100척 + 동쪽 안문 50척 + 안뜰 100척 + 성전 100척 + 서쪽 건물과 뜰 100척 = 500척입니다.



43 장

/

성전 문과
제사장 규례

[겔 43: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겔 43:3]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겔 43: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겔 43: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성전 측량을 마치신 후에 에스겔을 다시 처음 장소로 되돌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1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가득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2절 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으면 모세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솔로몬 성전 낙헌식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서서 의식을 집행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구름으로 가득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2절 중).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천사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들립니다.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

은 물 소리와의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의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름이든 소리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면 당신의 얼굴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당신 얼굴이 있게 될 것입니다. “...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2절 하).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접하게 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3절 하). 이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압제된 것입니다.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이 컸던지 무릎

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4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5절 상). '영' <루아흐>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음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은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5절 하).

[겔 43:6]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겔 43: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겔 43: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 시켰거니와

[겔 43:9]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겔 43:10]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겔 43:11]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겔 43:12]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스겔은 어떤 천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6절 하). 그 천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7절 상). 이러한 표현은 모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시 132:7]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 132:8]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
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10절 상).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형상을 측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10절 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형상’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형을 보고서 회개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겔 43:13]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겔 43: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겔 43:15]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겔 43:16]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겔 43:17]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제단을 측량하셨습니다. 제단은 안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뜰은 성소 바로 앞입니다. 전체 4개의 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번째 단은 1규빗이고 두번째 단은 2규빗이고 세번째와 네번째 단은 4규빗입니다(14-15절).

가장 위에 있는 단에는 4개의 뿔이 각 모퉁이에 있습니다. "...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15절 하). 가장 위의 단은 가로와 넓이가 14규빗입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17절 상). 양쪽 기둥을 제하면 12규빗입니다.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16절). 제단의 층계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17절 하).

에스겔의 제단은 모세 성막의 제단과 솔로몬의 제단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대하 4:1]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솔로몬 성전의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x 20규빗 x 10규빗 것에 반해 에스겔 성전은 대략 14왕실규빗 x 14왕실규빗 x 11척이니 솔로몬 성전이 더 큼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모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타인의 아픔보다 나의 아픔을 더 크게 공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나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도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형벌을 받을지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겔 43: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겔 43:19]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겔 43: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겔 43:21]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겔 43:22]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겔 43:23]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겔 43:24]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겔 43:25] 칠 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추어 드릴 것이며

[겔 43:26] 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겔 43: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와 피를 뿌리는 규례를 알려 주셨습니다. "...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18절 하).

먼저 제단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사독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19절 중).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레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합당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수종을 들면 안 됩니다. 아무나 예배를 수종 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다 인정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수종들 수 있습니다.

제단에는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20절 상). '뿔'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뿔에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보혈을 발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20절 하). 보혈은 곧 속죄입니다. 보

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케 됩니다.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피를 바른 후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21절 하). ‘불사르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도 똑같이 행해졌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먼저 태웠습니다.

“[레 16:25]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기타 내용물은 모두 성막 바깥에서 태웠습니다.

“[레 16: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가 불사를 것이요”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 위에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24절 중). 소금은 정결과 영원성
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
을 향한 사모함은 부패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썩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7일간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
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26절). 모세 때에도 속죄 제사는 7일간 드려졌습니다”

“[출 29: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
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솔로몬 성전에서도 속죄 제사가 7일간 드려졌습니다.

“[대하 7:9]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
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그런데 이 구절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봉

헌'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한글개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겔 43:26] 이와 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개역한글)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봉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봉헌이 빠져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7일간 제사를 드린 후에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번제와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27절 상).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 제사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섬길 것을 서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감사제는 소제와 화목제를 뜻합니다. 소제는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제와 화목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미움이 가득차서 원망스럽거나 원망받을만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도 화목해 질 수 있습니다.

“[마 5: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마 5: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받으실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27절 하).



44 장

/

성전 문과
제사장 규례

[겔 44: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겔 4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
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지니라

[겔 44: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주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바깥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처음 측량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동쪽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처음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쪽문으로 들어가셨으며(겔 40:6) 두번째 성전 제단을 소개하기 위해
동쪽문으로 들어가셨는데(겔 43:1) 이번에는 동쪽문으로 들어가시고
는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는 동쪽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2절 상). 그러면
서 왜 아무도 동쪽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
지니라"(2절 하). 동쪽문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쪽문을 닫는다는 말씀을 세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1절에 '그 문이

닫혔더라'에서 한번, 2절에 '이 문은 닫고', 2절 후반절에 '닫아 돌지니라' 이렇게 세번 반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동쪽문을 닫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이렇게 세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 동쪽 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출 27:13]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 지며”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내전의 성소문과 지성소문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성전에 동쪽문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아마도 솔로몬 성전 역시 동쪽문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쪽광장에 사람들을 모은 내용이 담긴 구절(대하 29:4)을 통해 아마도 솔로몬성전의 문은 동쪽에 설치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대하 29: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문이 여러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세세하게 레위 족속들에게 성전 업무를 지시할 때 동쪽문과 북쪽문과 남쪽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선정했기 때문임

니다.

“[대상 26:17]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
씩이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동쪽문은 모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쪽문을 사용했습니
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경우엔 일체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었
습니 다. 왜 하나님은 동쪽문 출입을 금지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라기 보다는 천국
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동쪽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천국의 성전은 동
쪽문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과 남쪽문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왕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동쪽문
사용을 허락되었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
어와서...”(3절 상). ‘안 길’<데레크>는 특정한 길을 의미합니다. ‘안 길’
은 아마도 동쪽문 안에 놓여져 있는 현관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동쪽문을 사용할 수는 없었고 다만
특별히 만들어진 쪽문을 사용하여 동쪽문 현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습니다. "...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3절 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에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왕과 식사를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된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계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겔 44: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겔 44: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겔 44: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겔 44: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겔 44: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겔 44: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한지라..."(4절 중).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4절 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스스로 잘난체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5절 상). '전심으로' <숨레브>라는 말은 '두다', '정하다', '확립하다'라는 의미의 <숨>과 마음이라는 뜻의 <레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다',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확립하다'란 뜻입니다. 을 두다, '마음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목하다' <라아아인>이라는 말은 '보다', '조사하다'라는 말의 <라아>와 '눈'이라는 뜻의 <아인>의 합성어로서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란 뜻입니다.

니다.

하나님은 또 한번 '전심으로 주목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5절 하). 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주목하다'란 말을 두차례나 언급하셨을까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에 안 미치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반역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6절 상). '반역하는 자' <메리>는 말 그대로 '반역하는 자', '반란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6절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가증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로 하여금 성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7절 상).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된 것입니다.

“[출 12:48]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
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
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할례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받
아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미크다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
니다. 넓게는 성막을 의미하지만 좁게는 ‘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스케네>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케네>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
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방인이 성소를 더럽힌 것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습
니다. “...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7절 하). ‘위반하게 하는 것’ <파라르>는 ‘깨뜨리다’, ‘쳐

부수다', '무효화시키다', '헛되게 하다', '실패시키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부유함의 언약이고 건강의 언약입니다. 행복의 언약이며 기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되고 깨어진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명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8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의 행위에 따른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죄악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10절 하). '담당하다' <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에게 임하는 형벌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힘든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나라없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그마치 2천년동안이나 방랑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함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똑바로 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도 걱정입니다. 제사장들이 똑바로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본인 스스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너도나도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겔 44:12]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4:13]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겔 44: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겔 44: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

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4: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11절 상).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전에는 우상을 위해 수종을 들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수종 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1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다른 레위지파 자손들이 악한 길을 걸었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15절 상).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독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16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독의 자손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독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 때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야를 지지한 데 반해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리아의 안티쿠스4세 왕이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까지(기원전 171년) 사독 자속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970년이니까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기간은 무려 8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독 가문이 무려 80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모든 제사장 일을 사독 자손에게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겔 44: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 옷을 입을 것이니

[겔 44:18]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겔 44:19]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겔 44: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겔 44:21]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겔 44: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양털옷<체메르>는 '털이 많다'란 뜻의 어근에서 파생한 말로서 '털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땀이 많이 나게 하는 옷입니다.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베옷'은 목화를 원료로 하여 만든 삼베(byssus)로 만든 옷으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베옷'을 세마포 옷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국에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천국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

제사장은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머리에 '베 관'을 썼으며 '베 바지'를 입었습니다.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18절 상). 하나님은 땀이 나지 않는 삼베로 만든 베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18절 하). 땀이 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수종들 때 입는 옷을 갈아입게 하셨습니다. 수종 들 때 입는 옷은 거룩한 방에서 갈아 입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19절 상). 이처럼 수종들 때 입는 옷과 일반 옷을 구분하신 것은 그만큼 제사 때 입는 옷이 훨씬 거룩한 옷이어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종 들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게 했던 것은 혹시라도 백성들이 수종들 때 입는 베옷을 만짐으로써 자신들도 거룩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19절 하).

오늘날 목회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삼가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입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일상복을 입고서 단에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자를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거룩한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일상복으로 대체한 이유는 뭘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일반 사람과 같은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스럽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성스러운 목회자로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런 불결한 목회자를 반역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

라게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20절). '길게 자라게' <예실레후>라는 단어는 '느슨하게 하다', '풀어 헤치다'란 뜻입니다.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당시 이방인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머리를 제멋대로 길게 자라게 놔두는 행위는 제사장으로서 옳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이 죽은 자의 신을 섬길 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길게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거룩한 모습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제사장은 안뜰에 나아갈 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21절). 안뜰에 들어갈 때라는 전제조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실인처럼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못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평신도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나실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라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적잖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술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술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번째 기적이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을까요?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술을 즐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술을 즐기셨고 죄인들과도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마 11: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또한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지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22절). 이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과부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하는 걸까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면 더없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결혼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부가 성경 때의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한 사람과 성경 때의 이혼한 사람도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 때의 과부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지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호대상 1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부를 그렇게 대하면 큰 일 납니다. 과부 중 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결혼하길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아쉬울게 하나도 없는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사회의 죄악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꼭 믿는 집안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함입니다. 결혼관계에서도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옷 문제도 그러하며 머리 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에도 해당됩니다. 이 옷은 맞고 저 옷은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옷이 거룩한 옷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길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머리 모양이 중요합니다.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잘못하게 되거나 잘못 유지하게 될 경우 성직자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이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믿는 집안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겔 44: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겔 44: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겔 44: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으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 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겔 44: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

[겔 44:27]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44: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겔 44: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겔 44: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겔 44:31]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23 절). '가르치다' <야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세심히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이 혼미해지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죄악된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분별입니다. 목회자만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나의 죄도 보이고 남의 죄도 보이게 됩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구분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재판을 잘 해야만 했습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합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24절 상). 오늘날 재판은 세상의 법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 것이 세상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옳바르게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을 부적절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런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모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24절 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상번제'(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 제사(매주마다 드리는 제사)와 월삭제(매월 첫 날에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7월 14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월절제사(1월 14일)와 무교절 제사(유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

간)와 장막절 제사(유월절 제사 후 50일째)와 초막절 제사(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실절 제사가 있고(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날) 나팔절 제사(새해 첫날에 드리는 제사, 7월 1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와 절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와 절기를 잘 드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와 절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시체로부터 정결해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25절 상).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신을 더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님 시신이라서 가까이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라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시체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체를 통해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신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신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사람의 정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신과 붙어있게 만듭니다. 부모님 시신이니까 귀하게 여기게 하고 배우자 시신이니까 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형제자매의 시신이니까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면 안 됩니다. 비록 부모님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떠난 빈 껍질과 같은 육신은 불에 태워질 요소입니다. 남은 껍질과 같은 시신으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슬픔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 부정결해진 제사장으로 하여금 칠 일동안 정결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 일을 더 지낼 것이요"(26절). 칠 일동안 회개하며 보내다가 마지막 날에 성전에 나아와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 속죄제를 드릴지니라..."(27절 하).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라야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하게 제사장의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28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업'<나할라>는 분배받은 토지를 의미하고 '산업'<아후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분배

받은 토지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아멘”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계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산업이 됨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29절 상).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제사장의 가족들도 함께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29절 하). ‘구별하여’ <헤렘>은 원어상 ‘격리하다’, ‘성별하다’란 뜻의 <하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산 중에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모든 물건을 제사장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제 제물’을 주었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30절). ‘거제 제물’은 제단 위에서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거제 제물은 하나님께 높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첫 밀가루’는 생산된 처음 곡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신 18:3]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신 18:4]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소산물을 염두에 두고 제사에 참여케 하신 것은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 제물로 제사장을 먹이시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제사장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31절). 저절로 죽은 것은 자연사한 시체를 말합니다. 찢긴 것은 동물들에 의해 물려 찢겨진 시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부정한 짐승의 시체로 간주되어서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은 결코 제사장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45 장

/

성전의 기업과 제사장 분깃

[겔 45: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겔 45:2]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겔 45:3]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겔 45:4]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겔 45:5]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겔 45:6]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땅을 배치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45장과 48장에서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서의 땅의 배치를 가나안 정복 당시의 땅을 분배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1절 상). 제비를 뽑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힘있는 사람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돈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재수가 좋아야 좋은 땅을 구하겠단 싶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 땅이 분배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땅이 뽑힐지 모르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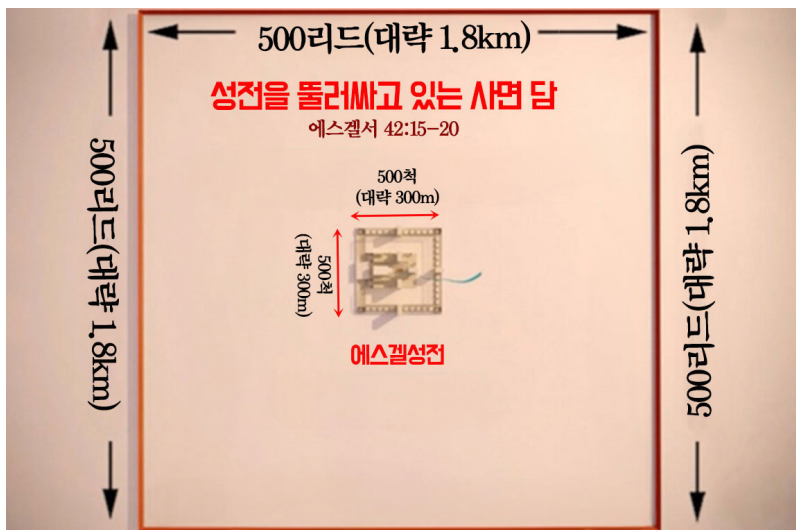
하나님은 어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 (1절 중). 여기서 언급된 '예물' <테루마>는 '집어올리다', '높이다'란 뜻을 가진 <룸>이란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것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 놓는 방식의 제사인 '거제'나 제물을 오른쪽 왼쪽으로 흔드는 제사인 '요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3절 하).

거룩한 땅의 길이는 25,000척이고 넓이는 10,000척이었습니다. "...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1절 하).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와 넓이를 500척으로 삼으셨습니다. ”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
 니...”(2절 상).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것인데 ‘갈
 대’(reeds)를 ‘척’으로 사용한 오역입니다. 성소는 길이 500갈대와 넓
 이 500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의 성전이 길이와 넓이 500척 정방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겔 42:20] 그가 사방에서 그것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에는
 성소와 더러운 곳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해 돌아가며 벽이
 있었고 그것의 길이는 오백 갈대, 너비는 오백 갈대더라.”(킹
 제임스흠정역)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관리케 하셨습니다. "...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 한 거룩한 곳이라"(4절).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룩한 땅'은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천국의 중심임을 뜻합니다.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을 둘러 싸고 있는 거룩한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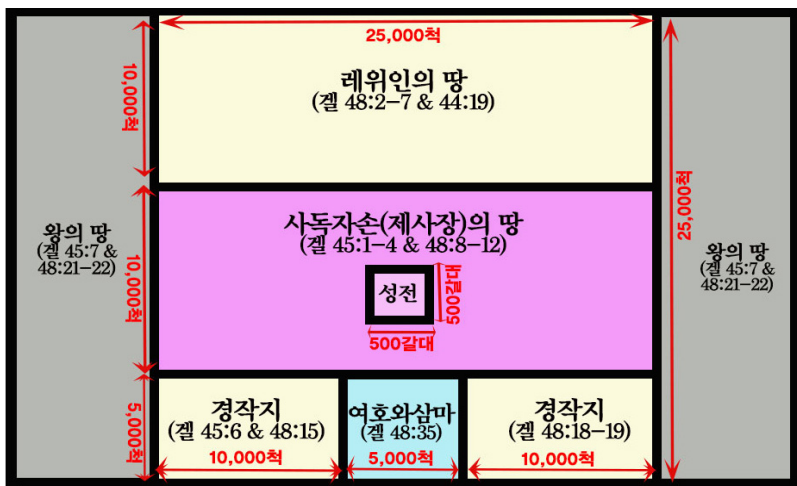
모세 시대 때에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잠시 멈

출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백성이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했는데 그때에도 성막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장 먼저 이동한 것입니다.

“[수 3: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위한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5절). 레위 사람을 위한 땅은 제사장을 위한 땅과 연하여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준 땅의 길이와도 같으며 넓이도 같습니다.



거룩한 땅 옆에는 넓이 5,000척의 땅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렸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개의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정가운데에 '여호와삼마'의 땅이 있습니다. '여호와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란 뜻입니다. 이 땅은 12지파가 모두 공용으로 사용되는 땅입니다.

“[겔 48: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사방 합계가 18,000척인 것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이기 때문입니다

(,500척 X 4(동서남북) = 18,000척).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인 이유는 500척은 구별된 뜰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경계선인 셈입니다.

여호와삼마 성의 출입구는 동서남북 네군데 있습니다. 북쪽의 출입구는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 있습니다.

”[겔 48: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문은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이 있습니다.

”[겔 48: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문은 시므온 문, 잇사갈 문, 스블론 문이 있습니다.

”[겔 48: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의 문은 갓 문, 아셀 문, 납달리 문이 있습니다.

“[겔 48: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성경에는 이렇게 3지파씩 묶어서 언급된 부분이 4차례 나옵니다. 첫번째는 출애굽 한 후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 때 나옵니다. 이 때의 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단, 아셀, 납달리

동쪽: 유다, 잇사갈, 스블론

남쪽: 갓, 시므온, 르우벤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지파별 배치입니다. 여기서는 동서남북 구분없이 세 지파씩 묶어서 나열되었습니다.

1. 유다, 르우벤, 갓

2. 아셀, 납달리, 므낫세

3. 시므온, 레위, 잇사갈

4. 스블론, 요셉, 베냐민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석, 황옥, 녹주옥
2.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3. 호박, 백마노, 자수정
4.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니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르우벤, 시므온, 레위
2. 유다, 단, 납달리
3. 갓, 아셀, 잇사갈
4. 스블론, 요셉, 베냐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 벽옥, 남보석, 옥수
2.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3. 황옥, 녹옥, 담황옥
4.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것을 출애굽기 28장의 대제사장 흉배에 있는 보석과 지파를 연결해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파가 분류됩니다.

1. 아셀(벽옥), 단(남보석), 베냐민(옥수)
2. 르우벤(녹보석), 시므온(홍마노), 유다(홍보석)

3. 잇사갈(황옥), 스블론(녹옥), 요셉(담황옥)
4. 레위(비취옥), 납달리(청옥), 갓(자수정)

결론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4개의 팀으로 구별되는 형식으로 언급된 것이 성경에 모두 5번 나오지만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그리고 레위지파가 항상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유다지파는 예수님의 혈통이라서 중요하고 요셉지파는 이스라엘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서 중요하고 레위지파는 성전과 연관되어서 중요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장남 르우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유다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시대에는 요셉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겔 45: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겔 45: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겔 45: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겔 45: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쓰지니

[겔 45:11]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십분의 일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겔 45:12] 세겔은 이십 게라니 이십 세겔과 이십오 세겔과 십오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왕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각각 왕의 땅을 주셨습니다. "...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7절 중). 에스겔서 48장에도 왕의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군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왕'과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21절 상).

하나님께서 왕(군주)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8절 중).

왕이 백성을 돌봐야 하건만 세상의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강요합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압제하며 탄압합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피를 빨아 먹으며 백성의

것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에게 는 오직 예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9절 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공정히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10절).

통치자들은 말로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지 않는 저울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공정한 저울과 저울추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손해는 백성이라면 늘상 겪는 일입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수천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저울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로 인해 손해를 보는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나라의 왕과 통치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들의 할 일입니다.

[겔 45:13]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겔 45: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 (십 밧은 한

호멜이라)

[겔 45:15]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때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45: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겔 45:17]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갓출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양만큼 드리게 하셨습니다. 곡식의 경우엔 수확한 양의 1/60을 드려야 했습니다. "... 밀 한 호멜에서는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13절 하). 기름의 경우엔 1/100의 양만큼 드려야 했습니다.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14절 상). 양의 경우엔 1/200 마리였습니다. "... 이백 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15절 상).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제물의 양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양이 200마리 중 1마리를 바치라는 것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통적으로 1년에 3-4마리 양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를 보면 유월절제사, 오순절제사, 나팔절제사, 속죄일제사, 초막절제사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양 한마리씩

은 바쳐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제사 외에 상번제, 안식제, 월삭제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이나 소를 드렸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고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지어서 회개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고 사람에게 죄지어서 용서하는 의미 제물을 드렸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과 소를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양 200마리 중 1마리만 바쳐라고 하니 이걸 너무 적은 양입니다. 보통 한 집에 양이 5-20마리가 있고 소는 1-2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 200마리 당 1마리 바치라고 하면 10년에 한번꼴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왕에게 드리는 세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제물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16절).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듯이 이 예물을 군주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군주에게 본문에 제시한 양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면 군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17절 상). 하지만 이 말은 백성들은 왕에게만 세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금

은 나라에 바치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겔 45: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겔 45: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겔 45: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겔 45: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겔 45:22]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겔 45:23] 또 명절 칠 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겔 45:24]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며

[겔 45: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각종 절기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교력 1월 1일날에는 '나팔절'입니다. 이때는 신년 제사를 드립니다. "... 첫째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18절). 나팔절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1월 7일에 범죄한 자들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20절). 성경학자들은 7월 10일 속죄일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구약시대의 규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속죄일의 오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제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력 7월 14일에는 유월절을 7일동안 지냈습니다. 누룩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 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21절). 유월절에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한마리를 제물로 올려 드렸습니다. “...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숫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23절). 또한 소제도 드렸는데 수 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와 숫양 한 마리에 한 에바를 함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한 힌 싹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 일 동안 명절을 지켜...”(25절 상).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46 장

/

제사의 규례

[겔 46: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겔 46: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겔 46: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안식일과 월삭 제사에 대한 규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안뜰 문은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월삭)에도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 일하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1절 하). 하지만 6일동안은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다만 안식일과 초하루 날에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제사에 참여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44장에서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동쪽 안뜰문을 사용토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식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백성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겔 44: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

갈 것이니라”

우리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왕은 바깥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은 동쪽 바깥문이 아닙니다. 이는 그 누구도 동쪽 바깥문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겔 4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동쪽 바깥문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북쪽 바깥문이나 남쪽 바깥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갔습니다.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2절 상). 오직 문 통로에서만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인도했습

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2절 중).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감사제는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모름지기 왕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왕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왕은 동쪽 안뜰 문 통로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2절 하). 이것은 솔로몬성전 때와는 약간 다른 점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왕이 안뜰까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왕하 23:3]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새 땅에서의 제사는 레위 지파 외에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안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백성들이 번제단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번제단이 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안뜰이 구분되

어 있어서 백성은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왕이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밖으로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2절 중). '예배' <샤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란 뜻입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께 몸을 구부려서 절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도 왕처럼 동쪽 안뜰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왕처럼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겔 46:4]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겔 46:5]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니라

[겔 46:6]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겔 46:7]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씩이며

[겔 46:8]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일 제사의 제물 양이 모세시대 때 드린 제물의 양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모세시대 때는 수양 2마리와 가루 1/10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땅의 성전에서는 어린양 6마리와 수양 1마리와 가루 1에바를 드렸습니다. “...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4절 하). 매우 파격적으로 제물 양이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안식일보다 새 땅에서 드리는 안식일은 훨씬 그 소중함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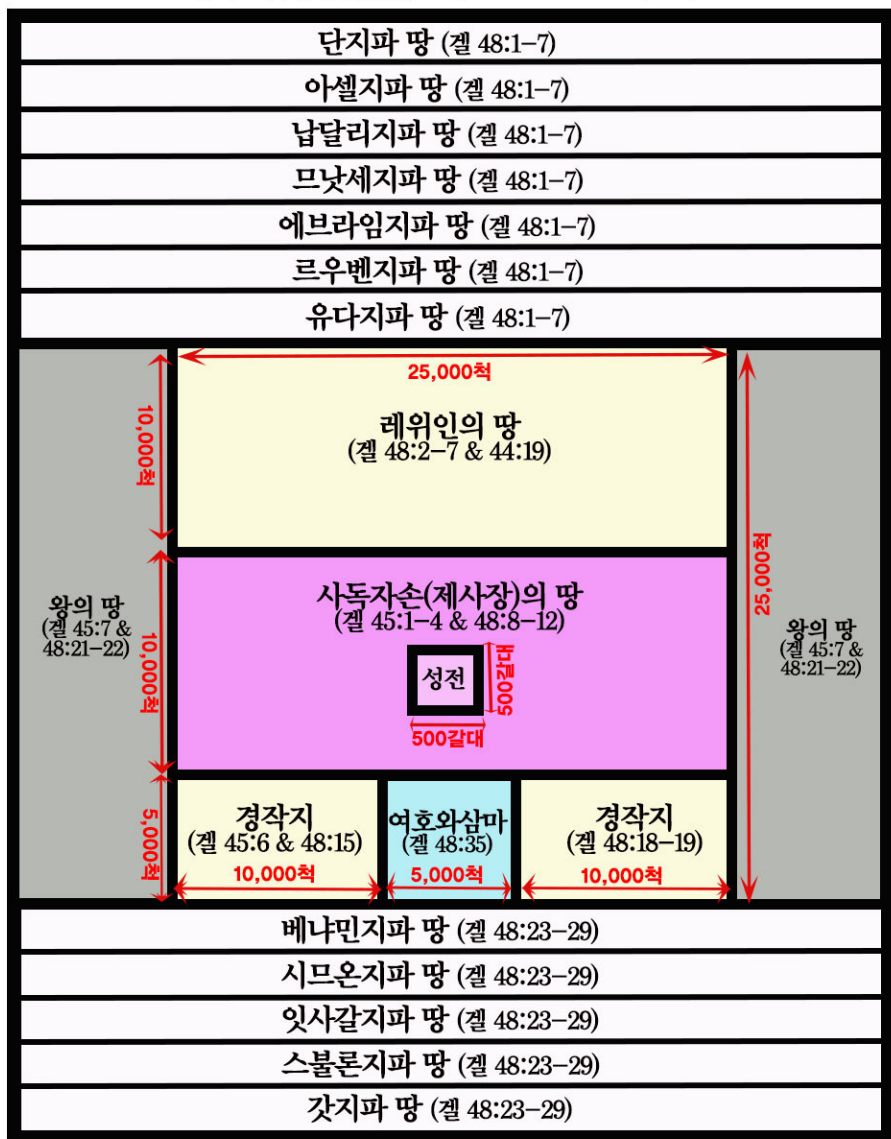
그런데 초하루(월삭)제사 때 드리는 예물의 양은 모세시대 때에 비해 줄었습니다.

“[민 28:11]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천국에서의 땅의 배치

[겔 45장 & 48장]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
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삼에 기름 섞
은 소제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
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섞
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시대 때는 수송아지 2마리에다가 가루 3/10을 함께 드렸고 수양
1마리에다가 가루 2/10을 함께 드렸으며 1년짜리 어린 양 7마리에다
가 가루 1/10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땅에서의 월삭 제사의 예
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다가 가루 1에바를 함께 드렸고 수양 1마리에
다가 가루 1에바를 함께 드렸으며 1년짜리 어린양 1마리에다가 힘닿는
대로 가루를 더해 드렸습니다.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6절 상).

대체적으로 새 땅에서는 육식 제물은 그 양이 줄어든 반면에 곡식 제
물은 그 양이 늘었습니다. 가루 1/10은 에바의 1/10을 의미합니다. 가
루 1/10은 2.2리터이고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곡식 제물은 10배로 늘
었지만 그에 반해 짐승 제물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새 땅에서의
제물의 양이 이 땅에서의 제물의 양과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새 땅에서는 곡식이 훨씬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식을
즐거 먹지만 새 땅에서는 곡식을 즐겨 먹는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겔 46: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 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겔 46:10]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겔 46:11]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힉스이며

[겔 46:12]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북문과 남문을 이용해야 하는데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9절 중). 하나님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9절 하).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눅 9: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시는데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겔 46: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흙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겔 46: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

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겔 46: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내용은 상번제에 대한 것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제에 대한 의무는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 준비는 백성이 했
지만 제사 집행은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상번제를 하루에 두차례 드려졌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두번 드렸습니다.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
제로 드리되
[민 28:4]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
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드려졌습니다. “아침마다...”(13절
상). 아침마다<바보케르 바보케르>라는 말은 아침에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새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저녁 제사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저녁 제사가 폐지되는 것일까요? 새 땅에서 상번제가
아침에만 드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매일 새롭게 시작

됨을 상징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빛과 평강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녁 제사가 생략된 것은 새 땅에서 더 이상 죄와 어두움이 없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신학적 의미를 반영합니다.

[겔 46:1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러니와

[겔 46: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겔 46: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은 왕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규정입니다. 의례적으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업을 마음껏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주어진 땅만 왕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기업은 왕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한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 그 땅은 그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16절 중).

그런데 만일 왕이 어느 한 종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는 희년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 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17절 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왕의 기업은 왕의 후손에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17절 하).

왕은 결코 백성의 기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왕에게 주어진 기업만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뿐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18절 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백성의 기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18절 하).

[겔 46: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 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겔 46: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 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겔 46:21]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겔 46:22]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

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뿔이 같은 크기며

[겔 46:23] 그 작은 네 뿔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겔 46: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제사장의 부엌은 제사장의 거룩한 방 서쪽 뒤편에 있었습니다. "...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19절 하). 여기서 언급된 제사장의 거룩한 방은 북쪽에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그 부엌에서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구웠습니다. "...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20절 상). 그런데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바깥뿔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 음식을 백성들과 나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 음식을 백성과 나눠 먹게 되면 행여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자신들도 먹었다는 자부심이 생겨서 행여 그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성무루를 가지고 바깥뿔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20절 하).

그런데 바깥뿔에는 네 개의 부엌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퉁이마다 뿔이 있고 그곳에 부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뿔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21절 상). 여기서 말하는 '집' <카타르>는 '둘러싸고 있

는 담'을 말합니다. 바깥뜰 네 모퉁이에 길이 40규빗과 넓이 30규빗 규모의 뜰이 있습니다. "...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22절 하). 길이가 24미터이고 넓이가 18미터 정도 되는 것이니 상당히 큰 규모의 부엌인 셈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부엌이 왜 있을까요? 왜 한 개도 아닌 4개씩이나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도 새 땅에서는 부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가 봅니다. 이 부엌 안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23절 하). '삶는 기구' <메바셀라> 요리용 화덕이나 가마솥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신식 부엌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기를 삶을 수 있는 가마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는 삶는 부엌이니..."(24절 상). 역시 고기는 삶아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엌은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부엌입니다. "...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24절 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는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 거룩한 방을 지으셨고 제사장들을 위해 부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 수종드는 일반 레위인들을 위한 집과 부엌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집'이 어떤 모양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규모로만 보면 24미터x18미터는 대략 130평 정도 되는 넓은 집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 건축물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반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저들을 위한 부엌도 마련해 주셔서 백성들이 제사로 바친 제물을 삶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종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으리으리한 큰 집은 아닐지라도 가족이 함께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부엌이 있어서 그 곳에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47 장

/

성전의 생명수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겔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겔 47: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겔 47: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겔 47: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가 충만했습니다. 물이 동쪽에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1절 하).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 바깥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2절 하). '스며 나오더라'〈파카〉

라는 말은 단순히 물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에스겔과 연결된 줄을 잡고서 동쪽으로 나아가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에스겔 발목까지 찼습니다. "...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3절 하). '1,000척'은 일반 규빗으로 계산할 때 대략 500미터 정도 됩니다. 성전 길이가 500규빗이니 이 길이는 대략 성전의 두배 되는 길이를 측량한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 성전의 물을 네차례 측량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물이 점점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1,000척을 측량했더니 그 물은 무릎에 올랐고 세번째 측량했을 때는 에스겔의 허리까지 찼습니다. "...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4절 하). 네번째 1,000척을 측량했을 때는 해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 그 물이 가득하여 해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5절 하).

에스겔이 강 좌우편을 바라보았더니 나무가 심히 많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7절). '많더라' <리브>는 '풍성한'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열매까지 풍성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
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
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
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
료가 되리라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습니
다. "...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
리니..."(8절 상). '아라바'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해수면보다 430미터나 낮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흘렀더니 죽은 사해 바
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8절 하).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해'는 말그대로 죽은 바다입니
다. 그런데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생명수를 통해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면 살아납니다.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해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9절 중). 이 바다에 어부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10절).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11절). ‘진펄’<비차>는 ‘진흙 수렁’을 의미하고 ‘개펄’<게베>는 ‘물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진펄과 개펄이 되어 고인 물들은 계속해서 물이 증발됨으로써 소금층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 결국은 못쓰는 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진펄처럼 진흙 수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받지 못합니다. 개펄처럼 웅덩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새롭게 변화받지 못합니다. 꿈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펄과 같습니다. 항상 척척하

고 항상 습한 사람은 질병이 많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사람은 개펄과도 같습니다. 태평양처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색하고 교회에 인색한 사람들은 개펄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 뿐이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12절 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12절 중). 매달 월급이 나와야 생활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매달 우리에게 월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월급이 세상에서 주는 월급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참으로 먹을만 하고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12절 하).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먹음직스러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모두 먹음직스럽습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약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열매는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항상 약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오직 생명수가 흘러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수는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12절 중). '성소' <미크다쉬>는 거룩하다란 뜻의 <카다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 땅에 가장 거룩한 장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으로 여기십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여기십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가정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겔 47:1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겔 47:14]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겔 47:15]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겔 47:16]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겔 47:17]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 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겔 47:18]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밋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겔 47:19]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겔 47:20]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겔 47:21]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겔 47:22]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겔 47:23]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13절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 <에레츠>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땅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프라워스>는 말 그대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두배의 땅을 주셨습니다. "...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13절 하). 왜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두 배의 땅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뛰어났다는 말일까요? 요셉의 온유함이 뛰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두 배의 몫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유치 않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몫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분배하심을 놓고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14절 중). '공평하게?' 요셉이 두 배를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엇이 공평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공평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 공평합니다. 우리는 적게 가진 것으로 불만을 갖지만 적게 가진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적절하게 배

분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떡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자신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내버려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몫이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 삶에 두 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48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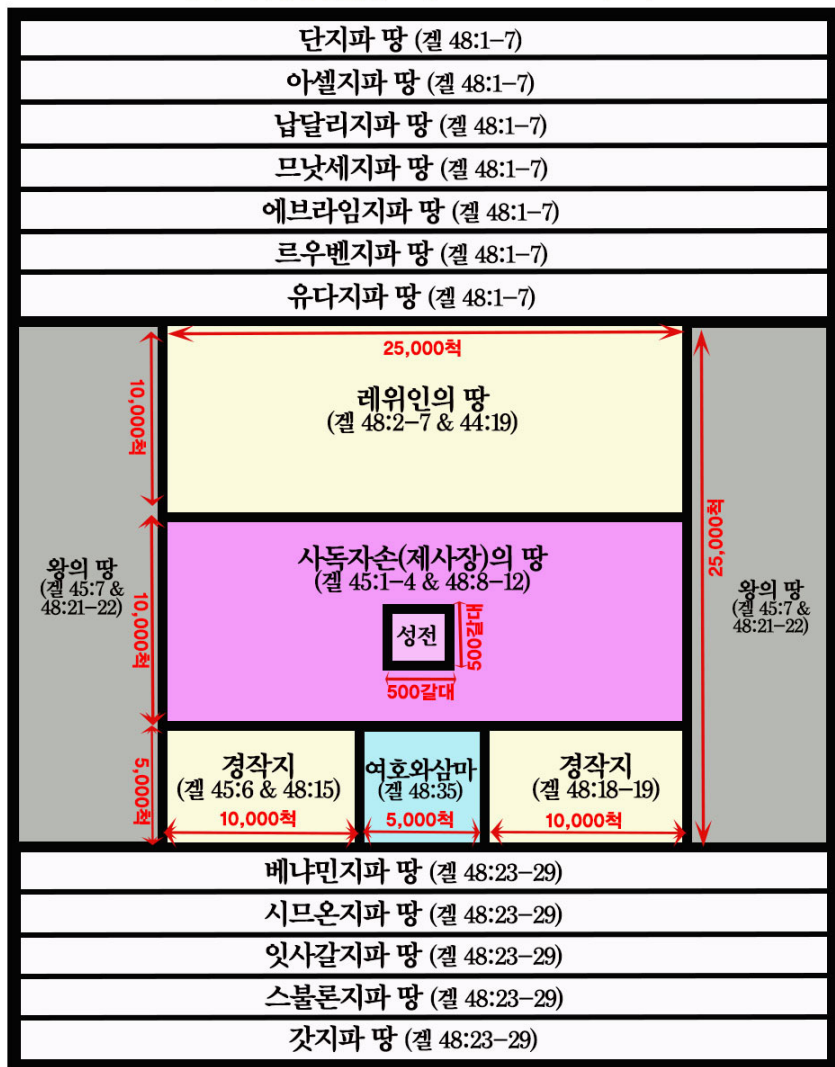
/

천국의 땅

천국에서의 땅의 배치

[겔 45장 & 48장]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겔 48:1]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는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겔 48:2]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겔 48:3]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겔 48:4]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겔 48:5]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겔 48:6]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เบน의 몫이요

[겔 48:7]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겔 48: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앞서 47장 13-23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에 대해 언급되었는데 4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2지파에게 분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은 동과 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땅의 분배는 남과 북으로 구분됩니다. 모세의 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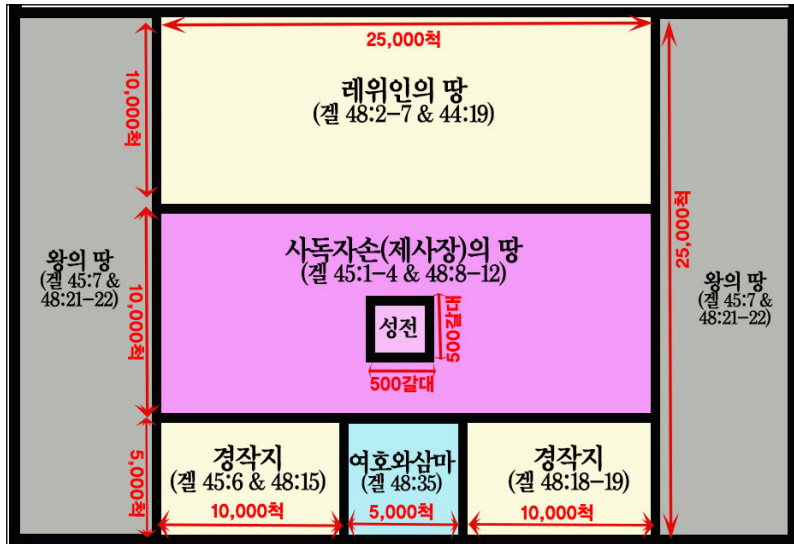
성막 중심의 땅인 것처럼 새 땅에서도 성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12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유다지파가 성소와 가장 가까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매우 귀한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새 땅에서의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유다지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준 땅에서 유다지파를 기준으로 북쪽에 배분된 지파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잇사갈, 스블론, 납달리, 아셀, 단.

이 두 배열을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게 배열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아래와 위쪽 두 군데 모두 있었으니 북쪽에 있는 단지파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서의 땅 배분도 모세 때의 땅 배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남쪽에 배분된 땅을 보면, 베냐민지파를 선두로 해서 시므온, 잇사갈, 스블론, 갓 순서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선두에 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북쪽에선 요셉의 아들 에브라힘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신 것입니다. 남쪽의 선두엔 베냐민 지파를 두신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지파에게 두 몫을 주시고 사랑하는 지파를 선두에 세우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다른 아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

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겔 48:9]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겔 48: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겔 48:11]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겔 48:12]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하나님은 새 땅의 가장 중앙에 성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둘러서 제사장의 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 x 10,000 척입니다. "...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9절 하). 이 땅은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10절 상). 이 땅은 유독 사독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11절 상). 하나님은 사독 대제사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독 가문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랑레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11절 하).

사독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 때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야를 지지한 데 반해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리아의 안티쿠스 4세 왕이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까지(기원전 171년) 사독 자속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이 기원전 970년이니까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한 기간은 무려 8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독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오래 할 수 있었는데 새 땅에서도 사독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충성된 자는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겔 48:13]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겔 48:14]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도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땅은 제사장 땅 옆쪽에 준비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도 제사장 땅의 면적과 같았습니다. "...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13절 중).

레위 자손들에게 준 땅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 (14절 상). 이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들에게 처음 수확한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14절 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겔 48: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겔 48:16]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며

[겔 48:17]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남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동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서쪽으로 이백오십 척이며

[겔 48:18]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겔 48:19]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겔 48:20]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어도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속된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15절 상). '속된'<홀>이라는 말은 불경스럽다는 말보다는 '보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된 땅'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땅에 비해 속되다는 것이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속된 땅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전원을 삼게 하셨습니다. "...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15절 중). 이곳은 마을주민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백성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 땅에서는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먹을만한 식물을 경작하게 됩니다. "...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19절 하).

[겔 48:21]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몫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겔 48:22]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왕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21절 상).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각각 왕의 땅을 주셨습니다.

"[겔 45: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 지니..."(21절 상). 하나님께서 왕(군주)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겔 45: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 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겔 48:23]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
요

[겔 48:24] 베나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
이요

[겔 48:25]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잇사갈의 몫
이요

[겔 48:26] 잇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
이요

[겔 48:27]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겔 48:28]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므리바가
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겔 48:29]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
이니라

새 땅에서의 남쪽은 다섯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남쪽과 북쪽을 6대
6으로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북쪽에 7지파를 두시고 남쪽에 5섯지
파를 두셨던 것일까요? 새 땅에서는 지형적인 문제도 없었을텐데 말입
니다. 그것은 어쩌면 7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의 영적의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며 천국 숫자이지만 5
라는 숫자는 7의 보충적인 숫자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북쪽에 분배받은 지파가 남쪽의 지파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뛰어난 지
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지파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북쪽에 더 많은 지파를 두신 이유

는 하나님의 영광이 북쪽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겔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악의 세력 또한 북쪽에서 몰려옵니다. 물론 남쪽에서도 몰려오고 동쪽
에서도 몰려오지만 북쪽에서 악의 세력이 많이 몰려옵니다. 앗수르도
그러했고 바벨론도 그러했으며 시리아도 그러했고 로마도 그러했습니
다. 이러한 악한 세력을 파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
나님은 오히려 북쪽에 더 많은 지파를 두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겔 48: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
이라

[겔 48: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
는 레위 문이며

[겔 48: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겔 48: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겔 48: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

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겔 48: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속된 땅’으로 구별된 땅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땅이 있습니다. “...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35절 하). ‘여호와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란 뜻입니다. 이 땅은 12지파가 모두 공용으로 사용되는 땅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35절). 사방 합계가 18,000척인 것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이기 때문입니다(500척 X 4(동서남북) = 18,000척).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인 이유는 500척은 구별된 뜰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경계선인 셈입니다.

여호와삼마 성의 출입구는 동서남북 네군데 있습니다. 북쪽의 출입구는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31절).

동쪽의 문은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32절).

남쪽의 문은 시므온 문, 잇사갈 문, 스블론 문이 있습니다.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33절).

서쪽의 문은 갓 문, 아셀 문, 납달리 문이 있습니다.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34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삼마' 성읍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삼마에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책상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직장인이 일하는 장소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설것이 하는 싱크대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화장실도 하나님의 삼마입니다. 침대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로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른뼈들이 부흥을 노래한다 (에스겔서 영맥풀이)

초판발행 2025. 1. 31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123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초강추!
CHANCE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확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